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8일(음력10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503호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가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 온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종교화합 마당 더 넓히자

서울·포항·목포 등 시장들의 '발언' 파문… 교계 '기구 구성' 나서

이명박 서울시장에 이어 정장식 포항시장의 종교편향 행위 파문이 확산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지역에서, 그 지역 개신교인 기관장과 유력인사들 모임인 '홀리클럽'이 주최한 행사 도중 잇따라 '성시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종교계는 주목하고 있다.

한국홀리클럽 성시본부 정관에 따르면 성시화(聖市化)는 "그리스도 가르침에 따라 거룩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 간의 평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 않아도 계층간·정치세력간 갈등이 심각한 요즘 종교까지 갈등 양상을 보일 경우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종교지도자들이 나서서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종교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분망각이 편향 원인

이명박·정장식 시장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전태홍 목포시장이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발언해 지역종교사회 단체의 반발을 샀다. 또 '봉헌' 발언이 불거진 이후 불교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성시화' 언급이후 포항 종교편향 대책위는 12월 15일 정시장의 종교편향에 항의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의 원인으로 공직(公職)에 대한 인식 부족을 우선 꼽는다. 지역단체장들이 지역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라기보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라는 생각을 앞세운다는 곳이다.

또한 자신의 종교만을 인정하고 강요하는 배타적인 사고도 종교 편향을 낳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공직자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백도웅 목사는 "사회가 다양화 될수록 종교 갈등 역시 증가할 것"이라며 "이럴수록 공직자들이 종교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 10월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6%가 한국사회에서도 종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답해 종교간 상생을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종교계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불교계 대안 제시 움직임

따라서 이러한 종교 갈등 양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교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관련법과 제도의 개정이 중요하다"고 잘라 말한다. 현행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에 따라 종교 편향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계도 이를 위해 관련기구를 구성하고 법안 검토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1월 27일 열린 2004년 정기총회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2005년 4월경 설치해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현재 실무를 진행 중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도 2005년 2월 공식적인 출범과 함께 종교 평화를 위한 신도교육과 종교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웃 종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필수적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종교 평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천주교 평신도 모임인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손병두)가 200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신도가족 교환 홈스테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신도회 한 관계자는 "분기별로 5~10개의 가족이 참여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종교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2면에서 계속



백담사 선원 수좌 50여명이 수덕사 황하정루에 마련된 빈소에서 합동으로 분향하고 있다. 예산 수덕사=고영배 기자

"오직 모를 뿐… 큰스님 가신곳"

숭산당 행원 대종사 원적… 4일 수덕사서 원로회의葬

달라이 라마와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으며 한국불교 세계화에 진력해왔던 조계종 원로의원 숭산(崇山)당 행원(行願) 대종사가 11월 30일 오후 서울 화계사 염화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77세, 법랍 57세.

12월 4일 예산 수덕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봉행된 영결식은 영결법요, 행장소개에 이어 숭산 스님 생전의 육성법문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모입정 순으로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오늘 스님의 입적이 생사투탈(生死透脫)입니까, 신명상실(身命喪失)의 허물을 드러낸 것입니까"라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와 얼굴이 다른 벽안납자들이 스님이 사바에 현신하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추도사를 통해 "지구촌 가는 곳마다 흑과 백을 섭수하시고 눈 푸른 세계에 선풍을 떨치시도다"라며 숭산 스님의 해외포교 원력을 기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은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의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고 추모했다. 숭산 스님 행장 4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할'



그림·조태호

혜오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 평생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출발한 '현대불교'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큰 사랑에 힘입어 교계 정상의 신문으로 1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불자 스마트폰 아이벗(I-BUD)은 2005년 1월 1일 부터 불교뉴스, 큰스님 법문, 사이버법당, 교양대학, 불교정보센터, 문화콘텐츠, 커뮤니티, my page, 문화상품샵 등 총 9개 메뉴로 구성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불교정보 매체입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圓 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 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8(2004)年11月30日(陰10月19日)
午後 5時 20分경 서울 화계사 염화실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徒代表 惺光 合掌

■ 永訣日時 : 佛紀 2548(2004)年 12月 4日(陰10月 23日) 午前 10時 30分
■ 永訣式場 : 修德寺
■ 茶 毘 場 : 修德寺 蓮花臺
■ 問議 및 連絡處 : 02-903-3361·041-337-6565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宗山

曹溪宗 元老議員 崇山堂 行願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 證 明 : 법전
■ 葬儀委員長 : 종산
■ 葬儀副委員長 : 지혜 보성
■ 葬儀委員 : 도견 법륜 벽암 도천 도원 수산 성주 활안 녹원 원명 이두 정천 천운 돈훈 지관 지제 초우 혜정 법행
■ 護 喪 : 원담
■ 進行委員長 : 법장
■ 進行副委員長 : 법등 월서 청화 도영
■ 進行委員 : (ㄱㄴㄷ순)
고산 월주 능가 송담 지유 월운 정우 법정 도문 밀운 법홍 철웅 보우 정원 순월 종하 설정 무공 오현 현호 우송 법찬 법안 법현 법광 혜안 현해 현성 종범 혜성 학능 능혜 인환 지안 무문 정태 정찬 지하 성우 법산 암도 무비 성타 정련 천제 혜자 종걸 근일 벽봉 현봉 세민 혜총 혜인 도법 수경 지선 원혜 법산 현각 보광 종호
■ 都 監 : 지운 무애
■ 秉 法 : 세민 자명
■ 儀 典 : 선광 인행 지안 법등 덕원 동덕 영도
■ 知 賓 : 도광 석청 지일 삼우 홍법 설주 여명
■ 財 務 : 효성
■ 接 受 : 지오 경완 견성암·환희대 대중
■ 弘 報 : 정암 김영일 윤스환 여혜영
■ 護 法 : 선본
■ 院 主 : 효정
■ 別 座 : 덕현
■ 侍 者 : 법보 도준 무현 향일
■ 茶 角 : 즐용 견성암·환희대·선수암 대중
■ 供 菜 : 묘행 견성암·보덕사 대중
■ 進 行 : 수암 주경 정법 광호일 이인수 박상희 박종학 김남현
■ 運 樞 : 정혜사·향적사·개심사·신흥사·백담사 대중
■ 駐 車 : 선본
■ 門徒代表 : 성광
■ 恩法上座 : 계정 정우 묘각 성룡 오륜 혜명 담오 각만 지학 무상 무량 무심 도문 도안 도관 대원 계문 오광 만휴 원도 원통 현각 현성 현공 현문 청안 대성 명안 광옥 범조 향음 묘행 원화 묘지 광명 청심 청오 지향 청도 계경 명혜 명화 원성 관미 자은 법현 원보 보관 지광
■ 孫 上 佐 : 혜준 청광 청원 청혜 조불 혜종 혜통 명행 명공 법광 혜안 관법 관행 관진 관산 혜진 보행 보인 혜법 법성 법일 혜오 혜조 혜청 광옥 범조 향음 원화 원호 광명 청심 청오 지향 청도 지천 명혜 명화 원성 관미 자은 법현 원보 보관
■ 在家弟子 : 성문 덕장 광명 대봉 창전 향림 수연 일관 현암 보각 무림 법등 무명 진공 지암 일법 법진 도성 등명 적광 지광 초당 도진 지명 무공 담림 청송 평정 지견 보명 도원 청강 법혜 자광 대연 보산 현광 도원 정산 도광 덕산 법인 인광 덕현 효봉 자광 성담 보인 보명 혜공 무득 여해 덕림 대연 덕현 혜지 향림 금원 진오 보명 보정 일우 덕문 도원 석호 법현 명우 덕장 유리심 대선행 법성화 길덕화 무상심 보리심 법운화 금강화 호법행 보현화 보덕궁 정각월 혜능화 법왕자 대법성 정법신 원만심 묘각심 일상화 대덕화 고상화 자이행 관음만 보리장 반야심 길상원 무진성 이건호

永 佛紀 2548年 12月 4日 午前 10時 30分 永訣式 修德寺 茶毘 修德寺 蓮花臺 問議 및 連絡處 02-903-3361·041-337-6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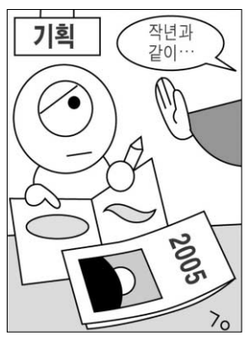


'절 일은 주먹구구식' 탈피하자

"사찰과 '함께' 혹은 사찰을 '대상으로' 일하기가 무척 어렵다."

불교계 안팎에서 일하는 재가불자라면 한 번쯤 했음직한 말이다. 최근 축제 전반을 기획하는 불교 유관 사업체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말이 나왔고, 또 2005년도 사찰 달력 사업에 여념 없는 한 기획사 사장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말은 어김없이 나왔다. 대체 사찰과 '함께' 혹은 사찰을 '대상으로' 일하는 재가불자들은 왜 똑같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들의 하소연은 이렇다. 모든 일에는 기획이라는 게 빠질 수 없고, 또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일선 사찰들은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기획에는 새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새로움보다는 기존방식에 더 연연한다.



변화 수용 없으면 발전도 못해
전문화된 기획으로 효율 높여야

예를 들어 축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선 사찰들은 구태를 답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고집한다. 이로 인해 축제의 집중도는 떨어지고 비용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축제의 지속성까지도 위협하게 되고, 결국 지역문화 발전에서의 불교계의 입지도 좁게 만든다.

요즘과 같은 개성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달력만으로는 불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 사찰 달력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그림과 자판으로 제작된다. 아니 사찰에서 그대로 만들어지기를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찰 달력을 찾는 불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들은 "맡겨 주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사찰 마다 높이 쌓아놓은 '구태'라는 담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최근 불교계 언론을 통해 비쳐진 한국불교계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다.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 복지, 문화,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처님 혜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 단체, 그리고 주요 시민 ·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이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축제 전반을 기획하는 대표이사나 일반 기획사 사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당혹감'과 '유감'이 교차되지 않을 수 없다. 불교계 언론에 나타난 한국불교계의 움직임은 주로 주요 종단과 사찰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불교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다른 말로 '주요'가 붙지 않는 사찰에서는 결코 역동적이지 않다. 아니 여전히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

구태 답습은 사찰 역할의 축소로 끝나지 않는다. 적어도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재가불자들을 도태시키는 최악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사찰 소임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강화하고, 자극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셈이다. ■ 오종욱(광주 서구 풍암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신도회관 세운다

중앙신도회, 50돌 맞아 내년 4월 선포식…각종 사업도

신도운동 50돌을 맞는 2005년, 중앙신도회(회장 백장기)가 신도회관 건립, 신도 윤리장전 정립, 신도 실천과제, <50년 백서> 발간 등 새 신도운동의 지평을 열 '조계종 신도운동 50돌 기념사업-신도운동 비전2050'을 전개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2월 2일 송현클럽에서 개최한 '신도운동 50년, 그리고 화합의 향연' 주제의 송년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앙신도회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신도운동의 조직화 실천화 문화화 사회화 비전화 공유화를 사업목표로 불교계의 재가 중심축인 신도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불교 신도운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50돌 기념사업 가운데 중앙신도회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사업은 단연 신도회관 건립. 내년 4월 신도회관 건립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도회관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다.

신도회관 건립은 향후 신도운동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첫 번째 토대가 되는 조직화 사업이다.

신도들의 실생활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신도윤리장전 요강과 실천과제를 제시할 신도계율 선언도 중앙신도회가 주력하는 사업이다. 오계 또는 보살계를 수지한 신도들에게 좀더 현대에 맞는 신도윤리장전을 제시해 부처님말씀을 생활화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실천화 작업이다.

'불교타임캡슐' '불교비전페스티벌' '신도운동50년 불교운동 100년 학술세미나' 등 비전화 사업도 내년 4월 일제히 펼쳐진다. 신도운동 50년 그 질곡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50년 백서>도 발간된다.

신도공동체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고승 · 명사 초대 서화전, 승 · 재가 애장명품 전시회, 신도운동 50년 활동 사진전, 50돌 기념 바자회(아나바다 장터) 등 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열린다.

국내 이웃 종교 및 계층간 교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가톨릭과의 가족교환 홈스테이(4회), 이웃종교성지교환순례(2회), 종교연대 공동캠페인, 학술연구 포럼, 지구촌종교인 평화대축제 등 이웃종교 연대사업을 준비한다.

남북한 통일 문화교류 사업은 평화통일을 위한 불교단체의 역할을 만들 사회화 사업에 포함된다. 금강산 평양 등지에서 남북불교도 공동행사를 진행할 남북불교평신도대회2005는 6월 15일경 개최할 예정이다.

가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철도를 이용한 국토철도순례대행진 2005를 진행하고, 남북평화통일의 기원을 담아 8월중 불자 일반시민 등을 동참으로 남북평화통일기원탑도 조성한다.

중앙신도회 백장기 회장은 "신도운동 50년의 위상을 재점검하고 통합신도회 행보의 첫발을 신도 공동체 구축으로 내딛고자 한다"며 "공동체 구축과 발맞춰 신행활동의 혁신을 일구어낼 것이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1면에서 계속

종교단체간의 적극적인 연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종교단체들이 각 종교별 내부 자정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종교간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천주교 열린신앙인사회학교' 등의 종교단체들이 구체적인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인연대 백찬홍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민사회에서 종교자유와 평화를 논의한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단체들이 종교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 '홀리클럽' 이란?

1996년 춘천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국내 21개 도시와 해외 2개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리클럽은 시도별로 조직 ·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홀리클럽 회칙은 "한국교회 초교파 크리스천 평신도 리더들의 직능단체 모임으로 법조계, 학계, 재계, 정계 등 각 계각층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국 각 가정과 직장, 사회 등 모든 영역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성시(聖市)화를 이뤄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홀리클럽은 '성시화를 위한 총체적 복음운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위 '3 · 3 · 7 운동'을 펼치고 있다. 즉 △교시협의회(교회와 시청단위 기관장) △교구협의회(교회와 구청단위 기관장) △평신도 중심 직능단체 홀리클럽(3)이 상호 자력, 조력, 협력(3)을 통해 한 도시를 그리스도적 도시로 통째로 변화시키는 7성(聖)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홀리클럽의 창립자인 전용태 前 대구지검장은 '뉴스파워'와 인터뷰에서 "성시운동은 현재 25% 선에서 머물러 있는 한국 교회 성장을 견인해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51%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75%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 정족수도 전체 의원의 3분의 2거든요"라고 밝혔다.

"특별교구 설치 위해 노력"

군승의 날 기념법회…김갑영 법사 등 총무원장상

조계종 군불교위원회(위원장 성광)는 1968년 5명의 군승이 최초로 임관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군승의 날을 맞아 11월 30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제36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군불교위원회 출범 3주년을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포교여건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전법도생의 사명감으로 힘차게 정진해온 군법사들에게 종단을 대표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하며 "군포교를 활성화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특별교구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최고상인 총무원장상에는 김갑영 법사(육군 교육사령부)와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변상수 씨(연천군청), 이시찬 대전 군불교진흥회장이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군불교위원장 성광 스님 등을 비롯해 현 · 예비역 군승, 군불교지원단체 회원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국제포교사 합격자 영어 일본어 등 26명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11월 30일 제 20차 포교원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제 9회 국제포교사 선발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는 영어 분야에 현묵 스님 등 22명, 일본어 분야에 김경희 씨 등 4명이다.

■영어 분야 : 현묵, 도승, 영조, 근후, 철영 스님, 김승기, 강홍길, 이성심, 최준서, 이호녕, 김재순, 변동윤, 최영달, 김보영, 최정선, 이성상, 이지희, 안송이, 임대성, 구윤임, 김무신, 나승혁

■일본어 분야 : 김경희, 최현모, 요네까와 준꼬, 나영희

강지연 기자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1차 교안 나와

조계종 포교원, 신도용 내년초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지난 2월부터 신도수행연구팀을 구성해 개발에 몰두해온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의 1차 교안이 나왔다.

포교원은 1차 교안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신희섭 단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습기억현상연구단), 최훈동 원장(한별정신병원), 박영재 교수(서강대 물리학과), 이헌주 교수(제주대 공과대) 등을 자문단으로 구성, 12월 8일 오후 6시 포교원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현대인에게 맞는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개발과 선 수행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전국 선원장 스님의 감수와 최종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교안>은 각 주제별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수행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등도 포함되어 있다.

포교원은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교안>이 발간된 후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교안을 홍보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자 과정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

'동국대학교병원 · 한방병원' 대외명칭서 '불교' 삭제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현해)는 11월 29일 제204차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실시한 외부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적인 공식명칭은 기존의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으로 하되, 대외명칭은 불교를 뺀 '동국대학교병원 · 한방병원'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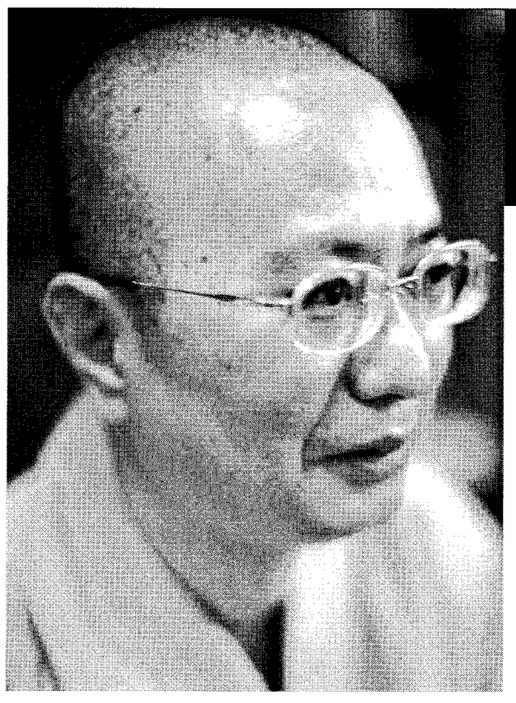
이사회는 또 강남병원의 현재 인력과 시설을 일산불교병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의료원' 산하인 강남병원을 '의무원' 체제인 일산병원으로 이관할 경우 발생하는 종사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강남병원이 가진 동국대 의료원의 불교계 위상 문제 등에 대한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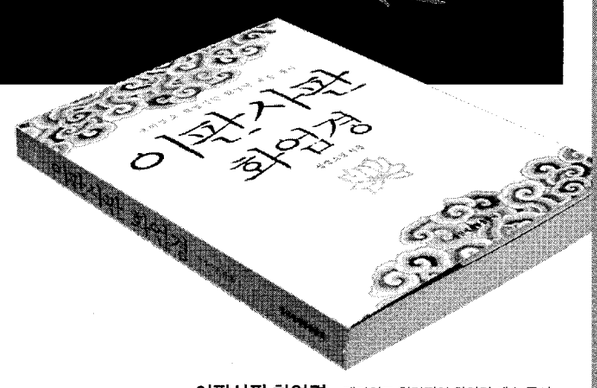
이사회 감사에는 성월(중앙종회의원), 상운(전 중앙종회 사무처장) 스님이 선임됐다. 조용수 기자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출간2주만에 교보 베스트10위권 진입(종교 부문)!

이판사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쑥쑥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난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헤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쟁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 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 1957년 태어나 중동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골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佛事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판 화엄경 -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게송 풀이
성법스님 지음/신국판/값 11,000원/정신세계원 출판국

이판사판理判事判 : 본래 화엄경에서 나온 말로 세계의 두 가지 차원을 일컫는다. 이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판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에 대한 판단이다. 삶의 진실과 행복은 이판과 사판의 조화 속에 있다.

www.mindvision.org 정신세계원
tel.02.747.7033/fax.02-747-7034

불자마라톤동호회 생긴다

경주남산 산길마라톤대회, 달마마라톤대회 등 불자 마라톤대회가 열리면서 마라톤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마라톤을 매개로 불교를 널리 알리는 불자마라톤동호회가 내년 3월 5일 발족된다.

불자 아마추어 마라토너 10여 명은 11월 30일 불자마라톤동호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마라톤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장에 이용권(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씨, 사무국장에 이종철(서울광역신도회사무처장) 씨 등이 선출됐다.

강지연 기자

파라미타 봉사 터전 인증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상설기구인 파라미타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터전으로 인증받았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터전 인증은 서울시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모범적인 청소년단체를 공인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파라미타는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강지연 기자

봉축 장엄등 제작 강습회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단체의 얼굴이며 연등축제의 상징인 '장엄등(燈)'의 제작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2월 18~20일, 2005년 1월 22~24일 두 차례에 걸쳐 '불기 2549년 봉축 장엄등 제작 강습회'를 개최한다. 봉축행사 참가단체 제작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장엄등 제작 강습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10일까지 봉축위원회(02-2011-1747)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종교자유정책硏 설립키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 이하 재가연대)는 11월 27일 우리함께 회관 6층 수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예산 · 결산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과 2005년 사업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역점 사업인 우리함께 회관 매입건, 특별기구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가칭) 설립 등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졌다.

강유신 기자

전국 여성불자 연대 모색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4돌 맞아 도약선언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이 11월 30일 창립 4주년 기념행사에서 취임인사를 하고 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오른쪽부터 이인자 전 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새 원장을 맞은 불교여성개발원이 재도약을 선언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 이하 개발원)은 11월 30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창립 4주년 기념행사 및 원장 이 · 취임식'을 열고 역량강화를 위한 내년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개발원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여성 불자 인재 양성이다. 김인숙 신임원장은 여성 불자 육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장학금 지급, 유학 지원 등 도움의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 불자 108인을 추가로 선정해 여성 불교 지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 하고, 리더십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교여성아카데미를 발족하고 불교여성 리더십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고심 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 불자 발굴에만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들을 통한 불교의 사회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승만경> 등의 대중강좌, 불교여성학 관련 논문 공모 등을 실시해 여성 불교 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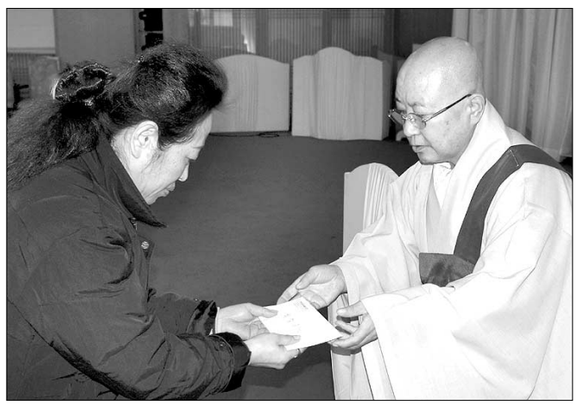
불자 가정을 위한 교육과 지원의 폭도 넓힌다.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혼인준비교실을 이어가는 동시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실'을 개설한다. 여성 불자의 자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응용할 수 있는 교육 역시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 확보 사업 역시 개발원의 주요 과제.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성 불자들을 위한 문화 공연 등의 후원 행사를 추진하고 기금 모금 활동 등을 전개한다. 또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참여불교재가연대 등의 단체를 거울삼아 불교여성회관 설립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독립된 법인체 설립을 목표로 내실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김인숙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4년 동안 인력과 재정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딛고 발전의 물꼬를 틔웠다"며 "앞으로 지부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하며 전국 여성 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는 것을 비롯해, 타종교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한마음선원, 간암환자 20명에 1억8천만원 전달


12월 1일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제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에서 모아진 후원금을 간암환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2월 1일 2층 강당에서 간암 환자 20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11월 6~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간암환자돕기 '제 2회 한마음선원 합창제'에서 모금된 수익금과 특별 보시금 등 총 1억 8천만 원.

혜원 스님은 "모든 병은 마음먹기 달렸으니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스님은 "이번 성금은 단순한 물질의 개념을 뛰어넘어 합창제 공연을 보러 온 1만여 불자들의 정성과 자비스런 마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각각 7백만 원~1천만 원 정도씩 성금을 받는 수혜자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비롯해 한양대 병원과 전남대 병원 등 10여개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혜자 중에는 중국 연변 출신의 조선족으로 간암 진단을 받고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예숙(47)씨의 딱한 사연이 알려져 성금 전달 행사장을 숙연케 했다. 특히 김씨는 한국 국적이 아니어서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전남대 병원의 계좌로 성금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간경화로 판명돼 대구 가톨릭 대학에 입원해 있는 홍일순 환자는 자신이 다니는 절(경북 안동 월안사)의 주지 스님이 대신해 행사장을 찾아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생명나눔 회원 배가 나선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가 2005년 사업목표를 협회의 역할 및 역량강화로 삼고 생명나눔운동과 환자 돕기 지원 등 기존사업을 심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 26일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배가를 통한 생명나눔운동 확장 △회원만족도를 높이는 조직관리 △업무역량의 전문성 강화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자원 확충 △대중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의견을 모으고, 세부사업 설정에 들어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재 진행중인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골수기증사업을 확대해나가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회원 및 재정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구와 목포지부의 창립을 돕고, 호스피스 및 간병인 교육 수료생들과 관련기관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통해 재가복지 분야의 발전도 꾀할 생각이다. 특히 '건강지킴이 캠페인'을 통해서는 기존의 목적사업 중심의 캠페인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월 3일 인사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창립10주년을 기념행사 뜻깊은 자리'를 열고, 자원봉사자 및 골수기증자 등 회원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김은경 기자

"열린 수행의 장 만들터"

인터뷰 중앙승가대 총장 재임 종범 스님



"중앙승가대를 시대에 공헌할 수 있는 열린 수행의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월 29일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법장) 제68차 이사회에서 제4대 총장으로 선출된 종범 스님은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승가교육의 정체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대로 임기를 다 채운 총장이 없었던 중앙승가대에서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연임까지 하게 된 종범 스님의 재임배경에는 스님이 중앙승가대가 김포학사로 이전 후 학교의 안정에 기여한바가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단 내 유일의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중앙승가대의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종범 스님은 "저 역시 수행중심의 교육, 교화중심의 교육,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교육 가운데 어느 것에 역점을 둘 것인가를 놓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취임 2기의 목표로 "과거를 바탕으로 명분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속에서 종단 내 중앙승가대의 역할을 찾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차원에서도 대학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이나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종범 스님은 "승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불교계 인식이 개선되면 재정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 승가교육 재정확보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앙승가대가 전통강원과 일반대학(동국대)의 성격을 아우르는 종합적 교육기관임을 강조한 종범 스님은 대학운영의 이상이 "해탈, 행복, 삶의 의미를 자각케 하고 시대에 공헌하는 인재를 배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승가의 전통교육과 일반대학의 제도가 어우러진 열린 수행의 장으로 중앙승가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용수 기자

도롱뇽 소송 기각 · 각하 판결에 반발

환경단체 대법원에 항고키로

3개월 동안 끌어온 도롱뇽소송 항고심에 대해 부산고법은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렸다. 철도시설공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사 재개에 나선 반면,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법원 재항고의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11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터널공사가 무제치늪이나 화엄늪 등의 고산늪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판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천성산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은 11월 29일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하겠다. 국책사업에 대해 무조건 손들어주자는 식의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은 다양한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지율 스님은 "기소편의주의와 심증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에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10월 27일 시작한 제4차 단식을 절대 중단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재판 전 과정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해, 여론 앞에서 재판의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12월 3일 현재 단식 38일째인 스님은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도 고려 중이다.

천미희 · 강유신 기자

법당 난방 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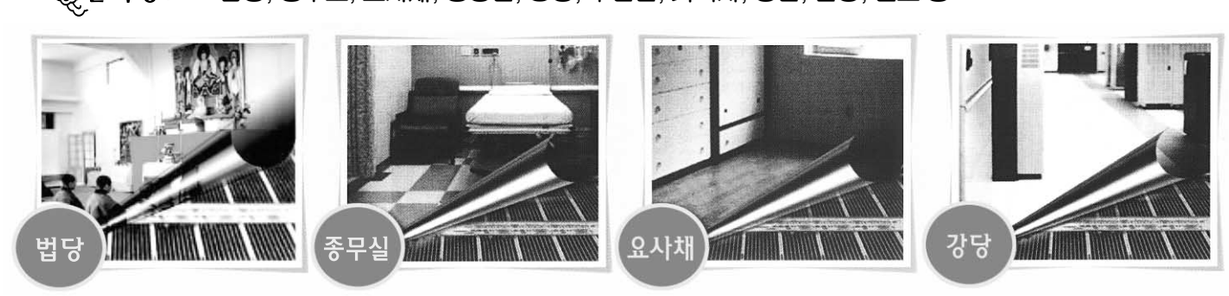
배관난방이 아닌 면상발열체 난방시대.

원적외선 복사열 난방필름 [10평 기준 월 3만원대 - 1일 8시간 30일 기준]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산속 사찰에서 도심 포교당까지)



설치장소 법당, 종무소, 요사채, 공양간, 강당, 수련원, 기숙사, 병원, 별장, 콘도 등



경제적 난방!! 간편한 시공!! 반영구적 설비!!



세계 7개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수입완제품.
쾌적단 원적외선 복사열 면상발열체 난방시스템으로 21세기 사찰 난방의 새로운 혁명을 한국전자난방이 만들어 갑니다.

난방 종류별 단가 비교표

구 분	심야전력(축열식)	전기판넬	도시가스	보일러등유	LPG	한국전자난방
가 격(원)	31.24(kwh)	71.5원	500원(㎥)	650원(ℓ)	950원(kg)	71.50원(kwh)
연료소비량(월)	192(kwh)	167(kwh)	13(㎥)	17(ℓ)	12(kg)	43.2(kwh)
난 방 비(평당)	5,998원	11,941원	6,500원	11,050원	11,400원	3,088원
단가지수(%)	194	386	210	358	369	100
10평 난방비(원)	59,980원	119,410원	65,000원	110,500원	114,000원	30,880원

음이온 시험 성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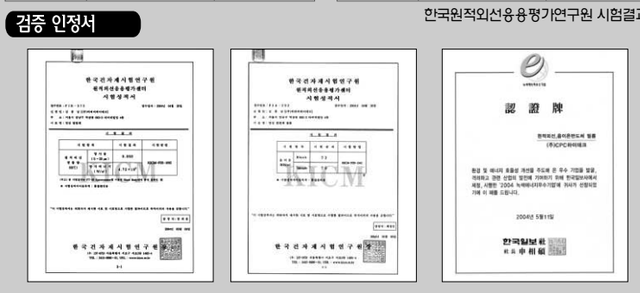
시 료 명	음이온(on/cc)	발급번호
발열필름	158	kfim-236

원적외선 시험성적서

방 사 율	방사에너지	발급번호
90.3%	3.64×10²	kfi-403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결과

검증 인정서



(주)한국전자난방 본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16-5번지 고려빌딩 4층 • 설치 및 전국문의 : 080-017-0100, 지역문의 : 043)221-6006

‘한송이 꽃’ 피우려 1초도 아꼈던 큰 스승

숭산당 행원 대종사 행장

“세상에는 뛰어난 인물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숭산 스님처럼 참 자신을 깨닫게 도와주는 이들이야말로 인간 잠재능력의 최선을 이끌어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게도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도올 김용옥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중)

세계 4대 생불로 추앙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캄보디아 종정 고사난다, 베트남 출신 프랑스 플럼빌리지 틱낫한 스님과 함께 ‘살아있는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숭산(崇山)당 행원(行願) 대종사는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했다.

일제 강점기인 44년, 스님은 지하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만주국경을 넘어 독립군에 합세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46년 동국대 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불교에 뜻을 두게 된다.

그 때 한 친구가 스님에게 〈금강경〉을 건넸다.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만일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이 모양이 아님을 알면 그가 곧 부처이니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想非相 卽見如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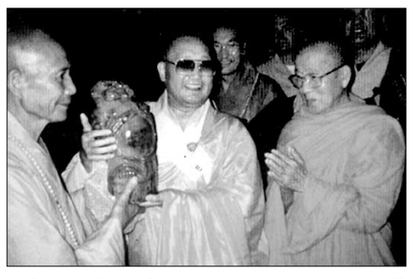
〈금강경〉의 이 구절이 스님의 마음에 와 닿았다.

“아아, 바로 여기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동양철학이 일치하는 곳이구나. 불교의 골수가 여기에 있구나.” 스님은 47년 공주 마곡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출가한 지 열흘 만에 원각산 부용암에서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솔잎을 말려 빻은 가루를 먹으며 매일 20시간 동안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했다.



원적한 석주 스님(사진 오른쪽)과 법담을 나누고 있는 숭산 스님.



같은 ‘4대 생불’로 추앙 받았던 고사난다 스님(사진 오른쪽)과 함께 한 숭산 스님.



숭산 스님이 구 소련 대통령인 고르바쵸프와 세계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도 100일 째, 스님은 암자 밖으로 나와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자신이 몸을 떠나서 무한한 공간에 있음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자기 음성도 들을 수 있었다. 잠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같은 체험을 한 뒤 스님은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원각산하비금로(圓覺山下非今路)
배낭행객비고인(背囊行客非古人)
탁탁이성관고금(濯濯履聲貫古今)
가가오성비상수(可可烏聲飛上樹)
원각산하 한길은 지금 길이 아니건만
배낭 메고 가는 행객 옛 사람이 아니로다
탁, 탁, 탁, 걸음소리는 옛과 지금을 꿰었는데
깍, 깍, 깍,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날더라

고봉 스님에게 인가 받아

춘성 · 금봉 · 금오 스님께 인가를 받은 숭산 스님은 고봉 스님을 찾았다.

고봉 스님 앞에 절을 올린 후 “제가 어제 저녁에 삼세제불(三世諸佛)을 다 죽였기 때문에 송장을 치우고 오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봉 스님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고 답했다.

숭산 스님은 걸망에서 오징어 한 마리와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송장을 치우고 남은 것이 있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한 잔 따라라.”

“잔을 내 주십시오.”

이 말에 고봉 스님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스님은 술병으로 고봉 스님의 손을 치우고 장판 위에 술병을 내려놓았다.

“이게 스님의 손이지 술잔입니까?”

고봉 스님이 빙긋이 웃었다.

이렇게 몇 차례 문답이 오고간 뒤, 고봉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숭산 스님을 얼싸안고 말했다.

“네가 꽃이 피었는데, 내가 왜 네 나비 노릇을 못하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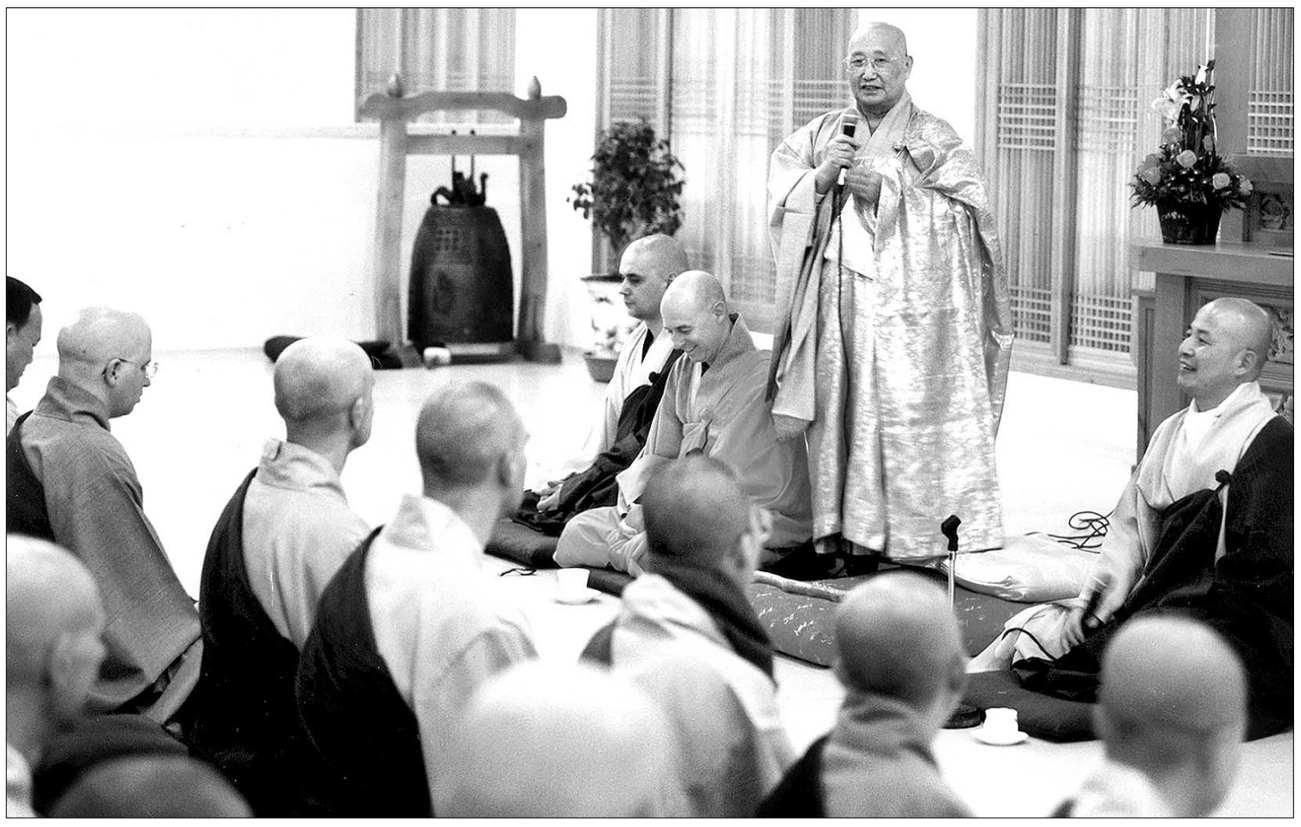
49년 1월 25일, 스님은 고봉 스님에게 ‘숭산’이라는 당호를 받았다. 나이 22살 때였다.

‘일체 법은 나지 않고 일체 법은 멸하지 않는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법 이것을 이름하여 바라밀이라 한다.’(고봉 스님에게 받은 전법게)

32개국 120여곳 선원 개원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부처님 법을 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전 세계로 한국선불교를 전파한 ‘한국의 달마’ 숭산 스님. 1966년 일본 홍법원 개원을 시작으로 35년 만에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개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눈푸른의 납자와 제자들을 두었다.

62년 조계종 비상종회의장과 통합종단 비상종회 초대 의장을 역임한 뒤, 스님이 조계종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을 때였다. 동국대 기숙사를 짓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일본인 유골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스님은 유골을 화계사에 안치했고 이 소식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불교계 초청으로 도쿄를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부처님 자비정신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스님은 도쿄에 홍법원을 개설한 뒤 69년 홍콩, 72년 미국에 홍법원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해외포교에 뛰어들었다.



숭산 스님은 해외포교 35년 만에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곳의 홍법원을 개설하고 5만여 납자와 제자를 두었다. 사진은 2001년 무상사 동안거 결제법회에서 스님이 제자들에게 큰 원력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숭산 스님은 당시 한국불교 최초로 폴란드를 비롯해, 중국, 구 소련 등 공산권에서 법문을 했다. 아프리카권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포교 활동을 했다. 이처럼 스님의 해외포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이다.

숭산 스님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그 나라의 법식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는 특별한 통제와 간섭이 필요 없어요. 목탁을 치고 설법 준비를 하기도 전에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경우는 반대예요. 시간이 다 돼야 어슬렁어슬렁 모입니다. 그게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나라마다는 각기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야만 포교가 가능해요”라고 생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

스님의 이 같은 지론에는 원칙이 있었다. 스님은 “우리 것 중에서 좋은 것은 반드시 지키고 남의 것 중에서도 좋은 것은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양의 정신과 소중한 전통을 버리고 서구를 따르는 것은 인류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생활 자체가 가르침

무엇보다 스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스님 생활 자체가 그대로 가르침이며 귀감이 됐기 때문이다.

오래 전 스님이 제자들과 멕시코에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곳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제자 대봉 스님(무상사 조실)이 숙소를 찾아왔다. 그때 스님은 잠에서 깨어나 속옷 차림으로 대봉 스님을 반갑게 맞았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스님이 숭산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은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반갑게 맞았다. 잠시 후 한국인 제자 스님이 숭산 스님을 찾아왔다. 숭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고리와 마고자를 차려입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저마다 어떻게 다른지 헤아리는 스님은, 찾아오는 제자들에 따라 옷 입는 그 한 가지에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가르침의 핵심 ‘오직 모를 뿐’

스님은 평소 ‘앎’을 가장 경계했다. 앎이란 마음이 제멋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분별해 만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란을 조성하고, 그 여파로 우리 스스로와 남들의 고통까지 낳는다는 것이다.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이란 말은 숭산 스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바로 ‘선의 나침반’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른 바 ‘숭산 가풍’을 낳았다. 숭산 가풍은 남녀노소나 승속을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수행만을 강조할 뿐이다. 합리와 이성으로 길들여진 서양 사람들에게 스님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은 그들에게 자신의 머리 속에 가득 채워진 지식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들은 충격을 받는 한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닫는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스님은 ‘오직 모를 뿐’인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대화의 바탕을 미국식으로 ‘공안 인터뷰’라고 한다. 이 공안 인터뷰의 특징은 스승과 제자가 마주한 그 순간의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곧 진리임을 스스로 체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世界一花’에 일평생 바쳐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전 세계 5만 여명의 제자들을 배출했다.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진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통 한국사찰 ‘태고사’를 건립중인 무량 스님, 화계사 국제선원장으로 있으며 숭산 스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무심 스님, 베트남전 반대 운동을 하다 숭산 스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한 대봉 스님, 프라비던스 선원 소식지인 ‘프라이머리 포인트’ 편집자 엘렌 사이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스님은 저서 〈부처님께 재를 털면〉〈선의 나침반〉〈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천강에 비친 달〉 등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세상은 하나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는 뜻인 ‘세계일화(世界一花)’.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아무런 말씀 없이 꽃 한 송이를 드셨고, 해방 후 만공 스님이 무궁화 꽃으로 세계일화라고 쓰기도 했다. 이미 세상을 내다보고 세계일화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스님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1년에 지구 세 바퀴를 돈 적도 있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네. 동서남북 지구촌을 돌고 돌아 35년 올바른 생활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네. 허무한 세상을 실체의 세계로, 실체의 세계를 실상의 세계로, 실상의 세계를 실용의 세계로 세세상행 대보살도를 성취하려고 일분일초도 쉴 사이 없었네.”(해외포교 35주년 기념법어 중)

“만고광명이요, 청산유수니라”

‘한국불교 해외포교의 역사’(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 ‘세계와 한국에서 제1조와 제28조 여래의 정법을 펴는 불가결한 정신적 기둥’(고은 시인)이라 평가받았던 숭산 스님. 85년 세계평화문화인대회(WUM)에서 세계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스님은 별도의 임종게를 남기지 않았다.

원적을 앞두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면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답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만고광명(萬古光明)이요, 청산유수(靑山流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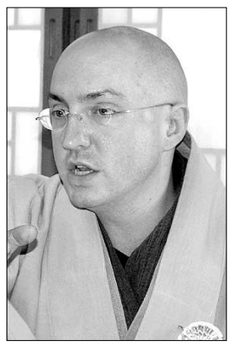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열반에 들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인 터 뷰

외국인 상좌

현각 스님



편안하게 떠나시는 모습 잊지못할 감동

“큰스님이 주셨던 가르침 ‘오직모를 뿐’이라는 진아에 대한 큰 깨우침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외국인 스님들은 평소 정신적 의지처로 여겨왔던 숭산 스님의 원적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숭산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수덕사에서 만난 현각 스님은 은사 스님과 인연 있는 종단의 크고 작은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지금까지 자신의 부모님 잃어 본적도 없는데다 이처럼 가까이서 모셨던 분을 떠나보낸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다.

11월 30일 숭산 스님의 임종을 지켰던 현각 스님은 당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스님처럼 열심히 수행하신분의 마지막 순간은 방안 가득히 환한 기운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말할 수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떠나시는 스님의 모습은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까지 숭산 스님은 제자들에게 ‘걱정하지마라, 걱정하지마라 오직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며 상좌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15년 전 처음 숭산 스님을 만난 뒤 출가에 길에 들어섰던 현각 스님은 “마치 소화력이 약한 아기를 위해 부드럽고 영양 있는 이유식을 먹이듯 어머니 마음으로 한국불교를 전해 주었다”며 스승의 지난 모습을 회고 했다.

5일 장을 치르는 동안 분향소를 한 시도 떠나지 못했던 현각 스님은 “숭산 스님이 계셔서 우리가(외국인 수행자들) 있었는데 스님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걱정스럽다. 평생 그 큰 가르침의 빚을 갚을 길이 없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존 케리 추도문



아들의 삶에 큰 변화 주신 대선사님 …

친애하는 여러분

숭산 대선사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온 모든 분들께 애도를 전하며 기원합니다.

숭산 대선사는 젊은 시절부터 전 세계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새로운 혁신을 일으켰고, 캠브리지 선원과 각 나라에 100개가 넘는 선원을 건립하여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고요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가족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존(John)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숭산 대선사의 가르침은 존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고, 계속적으로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과 딸에게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나눠주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보여준 모습에서 숭산 대선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는지 저와 아내 테레사(Terasa)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이 애도의 시간동안 평안을 빕니다. 비록 숭산 대선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대선사님이 남기신 가르침과 정신적 우산을 통해 계속 적으로 영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스승이신 고봉 큰스님이 숭산대선사에게 법을 전하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500년 후에 다시 만날 것이다”고 하신 말씀을 빌어 다시 한번 저의 애도를 전합니다.

마음을 모아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상원의원 존 케리 드림

동화사, 한몽불교교류 앞장

협의회 새 임원진 구성 … 사단법인화 추진

한국과 몽골 불교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2003년 8월 대구 동화사와 몽골 간단사가 결성한 한몽불교교류협의회(총재 지성)가 12월 12일 몽골 노동자를 동화사로 초청, 한국불교체험 행사를 열며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대구 성서, 이현, 논공 공단의 몽골 노동자를 동화사로 초청하기 위해 공단을 찾아가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12일 동화사를 방문하게 될 몽골 노동자들은 점심 공양 뒤 동화사를 둘러보고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지역불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몽골 노동자로 교류의 물꼬를 트고 향후 양국스님들의 교류, 불교 대학간의 교류, 불교 유물 연구 등에 대한 교류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1월 18일 반월당 보현사 문화관에서 열린 한몽불교교류협의회 이사회 이후부터. 19명의 이사가 참가한 이날 이사회에서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몽골 노동자 초청을 포함한 향후 계획과 사단법인 설립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운대학교 이외수 교수가 회장에, 부회장에 윤완묵(미성테크 대표) 김정남(억조상사 대표) 씨, 감사에는 화장사 주지 일경 스님과 청도 한옥학교 변숙현 교장이 선출됐다.

또 교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임원단 구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몽골간의 불교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사안으로는 몽골 스님 초청 몽골인 초청법회와 대구지역 몽골 노동자 초청행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를 통해 지역불자들의 해외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불교를 해외에 알리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미얀마 성지 순례도 개최한다.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동화사 본말사 신도 108명을 모집하여 미얀마불교성지순례를 갈 예정이다.

12월 12일 몽골 노동자 초청 행사

대학간 협력 · 유물연구 등 확대 방침

몽골불교계를 대표하는 간단사 주지 초이참츠 스님을 초청, 창립된 한몽불교교류협의회는 그동안 유니버시아드 대회시 몽골 선수단 격려금 전달, 몽골 불교발전기금 전달, 몽골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 등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후배들 위해 소임 다할 것"

대불련 대구·경북 동문의 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경북지부(이하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 500여 명이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가 11월 27일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04년 동문의 밤(사진)을 개최한 것.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대불련 동문들은 침체된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재학생들의 지부결성과 활동을 돕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10개 지회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한 선배 동문들이 불교의 중추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불련 대구경북동문회 임해수 회장은 "본 동문회가 선후배의 소중한 인연 맺기를 통해 참다운 공덕의 씨앗을 가꿔 나가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김해 포교 활성화 닻 올랐다

(사)가야불교문화원 개원

가야불교의 역사를 복원하는 중심도량이 될 (사)가야불교문화원(이사장 한파)이 김해 동상동에 문을 열었다.

(사)가야불교문화원은 11월 28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가야문화 복원사업, 가야문화 학술 연구 및 김해지역 포교 활성화에 깃발을 올렸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송은복 김해시장을 비롯한 7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한파 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칠불이 탄생한 불모의 땅이며 가야문화의 발원지인 김해지역 불교를 다시 꽃피우기 위한 사부대중의 발원이 담긴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존재의 불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심이야 말로 불교의 바른 가르침"이라며 "가야불교문화원이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널리 펴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굴사 선무도 시연에 이어 열린 개원법회는 경과보고와 더불어 그동안 가야불교문화원 건립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과 불자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의 순서로 이어졌다.

건평 4백 평 규모의 지상 4층 건물인 가야불교문화원은 김해가락불교거사림회, 김해불자자비회, 김해불교합창단, 김해불교청년연합회, 김해불교산악회 등의 산하단체를 두고 김해지역 불교 발전을 이끌게 된다. 4층에는 장유화상을 모신 조사전을 갖추고 수행, 기도 공간으로 활용되며 향후 다목적 세미나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가야문화 복원사업, 가야문화 학술연구 및 간행 교재 기관지 발행,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국제문화 교류,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야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확한 쌀 90포대 이웃에게

부산 보현의 집 노숙자들이 전달

12월 1일 동래구 관할 독거 노인세대에 20kg 쌀 한 포대씩이 전달됐다. 같은 관할에 있는 노숙자 쉼터 부산 보현의 집에서 보내온 이 쌀을 받은 세대는 90세대로 겨우내 먹을 쌀 걱정을 덜어 흐뭇한 웃음이 가득했다. 실직 노숙자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휴경지에서 수확한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해온 것을 벌써 4년째.

부산 보현의 집 입소자들은 봉사모임 자비회를 만들어 매월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구미시청불자회, 콘서트 개최



"하루 빨리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11월 30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구미시청불자회가 창립7주년 기념행사로 인기연예인과 우담바라예술단을 초청 위문공연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우담바라 예술단의 월연 · 벽운 · 태화 스님, 시민복지회관 스포츠댄스팀 등이 출연해 산재 근로자를 포함한 300여명의 장기입원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문했다. 배지선 기자

환희지합창단 음악회 개최

불자 교육의 요람인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을 수료한 신심 깊은 불자들이 결성한 환희지합창단(단장 손순금)이 창립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12월 9일 오후 7시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44명의 환희지합창단 단원들의 합창은 물론 소프라노 정서영 씨의 독창, 각 사찰 합창단 지휘자들로 구성된 가릉빈가 중창단의 중창, 바리톤 김성국 씨의 독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선보인다.

특히 식전 행사로 한석란 씨 외 9명의 다도시연 헌공다례가 선보이며 의호 스님의 천년의 기억 종성과 사물놀이 등이 무대에 올려진다. 천미희 기자

납골당 설립 신고서 반려

법적 결격 사유가 없는 납골당 설립 신고서를 집단민원을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1월 3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경주 보광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주시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보광사가 지난 6월 제출한 경내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경주시는 설치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경주시 보광사는 지난 6월 경내 5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짓겠다며 신고서를 냈다가 경주시가 반려하자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배지선 기자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 위한 2차 토론회'

"출가 · 승가정신 되살리자"



"총림의 수행환경 조성을 위해 심오한 이론과 제도를 만들기 전에 투철한 출가정신과 승가정신을 고취하고 강화해야 한다."(혜능 스님)

진솔한 자가 진단…다양한 방안 모색

진정한 수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인총림의 몸부림이 계속됐다. 비판과 자기반성이 쏟아졌던 제 1차 토론회에 이어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을 위한 2차 토론회(사진)가 11월 28일 보경당에서 '해인사 수행풍토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렸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해인총림 및 교구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원택 스님, 율주 종진 스님, 강주 종묵 스님 등 본말사 및 산내 암자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솔한 자가 진단이 내려지고 다양한 방안이 모색된 자리였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혜능 스님(율원장)은 "기본적인 조석예불이나 사시마지, 포살 법문 등 대중적인 의식에 빈자리가 많고 무관심하다"며 "계와 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성 스님(희랑대 감원)은 "치문반에 편중된 소임의 조정과 강원 위계 질서 완화, 율원장 스님의 부재시를 대비한 자율학습제도와 수학 연차에 따른 교과과정 정비"를 제안했다.

법진 스님(대교반 강사)은 "대중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포살의 내용과 형식, 과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지선 기자

29일간 영축산 가득 '사자후'

통도사 12일부터 화엄산림법회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12월 12일부터 1월 9일까지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화엄경의 방대한 가르침을 24명 선지식들의 사자후로 2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자들에게 전달하는 화엄산림법회는 12일 오전 10시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화엄산림 법회 기간 중에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선망부모와 일체 영가를 위한 천도의식이 함께 열린다.

12월 12일 오전 10시 입재법문은 원로의원 초우 스님이, 오후에는 통도사 전계대화상 혜남 스님이 현담을 맡았다. 13일부터 24일까지는 지안 스님이 세주묘엄품과 여래현상품을, 15일에는 재문 스님이 보현삼매품과 세계성취품을, 16 · 17일에는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이 화장세계품과 비로자나품을 맡았다. (055)381-1288 천미희 기자

행원상에 송인식 씨 선정

마창불교련, 시민불교문학상

마산 ·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는 12월 1일 제 14회 시민불교문화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광석)를 열어 행원상(지역개발)에 송인식 마산 동서화랑 주무, 문학상에 이우걸 경남문인협회장, 예술상에 여현주 창원국악협회장을 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했다.

행원상의 송인식 씨는 동서미술상을 제정해 향토 작가 발굴 · 육성에 크게 공헌했다. 문학상의 이우걸 씨는 향토문학 발전과 문학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예술상의 여현주 씨는 창원 야철제기 원무, 퇴촌농악 등을 발굴 재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300만원이 전달되며, 시상식은 12월 9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린다. (055)222-1393 천미희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 · 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계룡산도 뚫린다

환경부가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최종 확정했다. 천성산 고속철 공사가 최근 재개된데 이어 계룡산 관통도로 공사마저 강행되면서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립공원을 팔아먹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인근 지역 갑사(주지 장곡)와 동학사(주지 요명) 등 사찰의 수행환경에도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통터널 추진 확정
갑사·동학사 등 환경훼손 적신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는 12월 1일 회의를 열고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 도로 확 · 포장 공사를 허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중단된 충남 계룡시 두마면~공주시 반포면간 10km 국도 1호선 확 · 포장 공사가 11개월 만에 재개돼, 총연장 2.45km의 터널 두개를 포함한 4km의 관통도로가 계룡산 국립공원을 뚫고 지나가게 됐다.

지역 불교계에서는 계룡산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확대되면 갑사 등 인근 사찰들의 수행환경은 물론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계룡산보존시민운동 공동대표 장곡 스님은 이와 관련 "이미 몇 개 이상의 도로가 개발된 상황에서 효용성이 낮은 계룡산 관통도로를 또 뚫겠다는 발상은 불교계와 주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관치행정의 전형적 사례"라며 "계룡산 지역 사찰들과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 관계자 10여 명은 12월 1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사무실에 들어가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점검농성을 벌였다.

이어,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석중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윤주옥 사무국장은 표결 개시와 동시에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환경비상시국회의는 또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민 재산인 국립공원을 개발정책에 팔아먹은 반생명, 반환경 집단임을 분명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정토회 4차 천일결사 회향

10~12일 문경정토수련원서 5차 결사준비

'일과 수행의 공동체' 정토회 만일결사 중 4차 천일결사 회향식이 12월 10~12일 문경정토수련원에서 열린다.

이번 회향식은 정토회가 지난 3년간 진행한 각종 활동을 결산하고 다음 3년간 실천할 5차 천일결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2000여 명 정토행자들은 10일부터 문경정토수련원에 모여 3천배 참회정진을 하고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부산 · 울산 · 광주 정토법당 개원,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 개최, 천성산 살리기 10만인 서명운동, 북한 용천구호 활동, 탈북주민 통일축전, 음식물 쓰레기 제로 및 빈그릇운동 등 4차 천일결사 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볼 예정이다.

정토회는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일구자는 서원을 세우고 1993년 3월부터 만일결사에 들어갔다. 정토행자들은 5차 천일결사 기간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정진하고 매일 천원 이상 보시하며, 매일 1가지 이상 선행을 하자는 약속 등 다양한 과제를 실천하게 된다.

강유신 기자

새로운 장례문화 꽃 피울터…

연화회, 10주년 맞아 대중화 모색

장례복합서비스업체 연화회(대표 유재철)가 12월 9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교식 장례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연화회는 지난 7월 포교원에서 진행하는 교구본 · 말사 주지 연수 때 상장례를 통한 포교방안 설명회를 갖고, 현재 각 사찰 염불봉사팀의 창립과 교육 등을 돕는 등 장례의식에 대한 인식전환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수업지원 및 관련서적 발간 등을 통해 불교의 장례의식의 역사와 특성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 보급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연화회 유재철 대표는 "10주년을 맞아 불교장례문화를 정례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불교장례에 대한 인식전환과 불교장례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화회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례서비스 및 수의구입, 납골당 이용료 등의 각종 장례서비스를 10%할인 서비스할 계획이다. 단, 1 · 2급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례비는 50%할인. (02)734-4444

김은경 기자

세번째 단기출가학교 엽니다
월정사, 12월17일까지 접수

1달간의 스님 생활 체험으로 각광받고 있는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세 번째 문을 연다.

제3기 단기출가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인 2005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열린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수행경비는 성인 30만원, 중 · 고 · 대학생 20만원.

단기출가학교에 입교하면 삭발염의(여행자는 원하는 사람만)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초심자(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불법에 대한 신심고취는 물론, 밖으로만 치닫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삶을 돌이켜 점검해 볼 수 있다.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사회봉사대상 의료부문 최우수상에 감로심장회



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사회봉사대상에서 감로심장회가 사회봉사대상 의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남 진주의 감로심장회(이사장 불산)가 11월 28일 문화방송(MBC)이 수여하는 사회봉사대상 의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화방송은 "감로심장회가 심장병 환자 수술 지원 및 장기기증주선, 간병봉사 및 헌혈 지원 등 다양한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에 이바지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감로심장회는 지난 1990년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 현재 2,000여명의 회원들이 팀을 이뤄 심장병과 기타 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감로심장회의 도움을 받은 이는 수술 환자 165명, 심장병 무료검진 2,097명, 장기기증 4명(13명 수혜), 안면기형 13명, 벽지농어촌 무료검진 56,564명, 헌혈지원 1,588명, 안과(백내장, 족내장 수술) 26명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감로심장회 안민지 간사는 "작은 봉사의 손길을 모아 지역사회 및 복지사업의 발전은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보다 많은 소외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55)747-0106

김은경 기자

자재암 '태고복지관' 개관



태고종 진천 자재암(주지 혜성)은 진천읍 사삭리에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인 '태고 복지관'을 건립하고 11월 27일 개관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태고종 원로회의 위원인 보안 스님과 충북교구 종무원장 월담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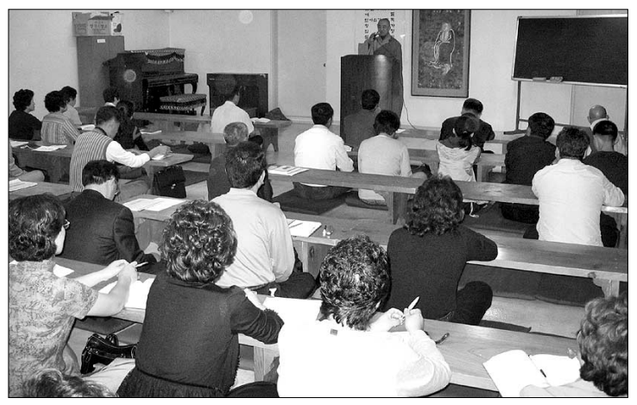
60평 규모의 태고 복지관은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4개의 방외에 목욕탕과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혼자 생활하기 힘든 노인. (043)532-9463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청주 용화사

"신행의 신바람 일으킬 것"



충북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불자들. 충북에서는 유일한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인 용화사 충북불교대학은 이론교육 외에 신행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서울에 조계사가 있다면 청주에는 용화사가 있다. 그만큼 용화사가 청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다.

청주에서 용화사만큼 활발히 움직이는 사찰은 없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조계종 포교원이 인가한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대학과 유치원도 있다. 어린이회 · 학생회 · 청년회는 물론이고 신도회가 탄탄하게 꾸려져 있고, 시민선원도 갖추고 있다. 한마디로 없는 게 없다.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충분히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만 보면 용화사를 도심포교당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용화사 사적기에 의하면 대한제국 광무 6년(1902)에 창건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게다가 용화사에는 보물 제985호로 지정된 석불상군이 있다. 전통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용화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전통사찰로서, 도심포교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8월, 각의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충북불교대학의 교과과정에는 주지 스님의 강의가 편성됐고, 용화대학에는 고전무용이나 국악, 발마사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또 사보 <용화세계>를 발간해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면서 젊은층의 신도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됐고, 지역복지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노숙자가 절에 와서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주 중앙공원에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김장김치를 나누어주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각 신도회들의 활동은 눈에 띄게 늘었다. 생활 불교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충북불교대학과 용화대학도 이론교육 위주에서 신행중심 체계로 바뀌면서 신도들의 신심이 깊어졌다. 젊은 신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젊은 불교, 신행 불교'를 내세운 각의 스님의 의지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충북 유일의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신도 포교 진력

하지만 각의 스님은 내세울 것이 없다고 겸손해한다. 그러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후원을 더 늘리고 군 포교에도 관심을 높여 용화사를 이웃과 함께 하는 사찰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각의 스님은 지역 스님들의 추대로 지난 10월 청주사암연합회장을 맡았다. 용화사 움직임이 청주불교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것을 각의 스님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지금 청주불교는 용화사를 주목하고 있다. (043)274-2159

청주=한명우 기자

삼매체험 선 수련회 안내

-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압시다 -

화두 참구가 바르게 될 수 있는 문답식 법문이 수련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정진과 점검을 반복하여 화두 참구가 자리잡아가도록 지도한다. 의정이 돈발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한다.

1)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심오한 간화선 수행이 행해짐.
2) 모든 업장과 습기를 뛰어넘어 곧 바로 당처를 관조하여 단박에 수렁에서 뛰어넘는 직관수행의 길에 바로 나아가는 체험
3) 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지와 미혹의 맹목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된다.
4) 불교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과 해탈의 삶에 다가간다.
5) 기복과 타력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6) 그릇된 종교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불교관을 찾을 수 있다
7) 생활에서 수행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중선을 체득한다.
8)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도록 한다.

홈페이지 www.wnseon.com

대상및인원 · 성인 남녀 00명

수련일정(4박 5일) · 1차 : 04. 12월 24일 ~ 12월 28일 · 2차 : 12월 31일 ~ 05. 1월 4일(일반인)

접 수 · 12월 20일 까지 선착순 마감.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여야 함(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 통지합니다)
※항공사 예약전화 :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신청및서류 · 후원금 입금후 서류제출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1. 성명(한글,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자택,직장) 4. 전화(자택,직장,휴대전화) 5. 종교
6. 직업-학교(과)반 7. 참가동기 8. 수련회 참가경험 유 · 무(유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 원하는 차수 10. 본 선원 참석 유무 및 년도

문의시간 · 평일(월 ~ 금)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해주세요.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접수처 · 제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 064-755-3322 / 팩스 064-755-0880 (팩스 신청 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회 비 · 후원금으로 받음(생계가 어려운 자는 혜택이 있음) 후원금 입금 (농협 953-17-000706 예금주 : 원명선원)

자성불 열린도량 원명선원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초종파적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및 특강반을 개설하여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출가자(행자)과정** - 출가득도를 희망하는 남 · 여(1년)
▶ **경전연구자 과정** - 스님및 교임, 관심있는 불자(1년)
▶ **의 식 과 정** - 초심자, 불자, 법사, 교임, 스님(1년)
◎ 기본반 : 4개월(월,화) ◎ 전문반 : 4개월(수,목) ◎ 연구반 : 4개월
▶ **의 식 과 정** -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지도함
◎ 바라반 - 바라춤에 관한 일체를 집중 지도함
◎ 착복반 - 다게 도량게 사방요신등 일명 나비춤 을 집중 지도함
◎ 사물반 - 목탁 요령 태징 법고등 사물다루는법 지도
※ 그 외 호적, 서예, 생활역학 등을 희망하시는분 직접 지도해 드림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63-5213
(기숙사및 숙식 가능함.주차장 완비)

3 개강일자 **2005년 1월 3일 오후 4시(예정)**

4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타종교 강세 속 다양한 전법활동 '관록'

전북 군산·익산·김제


김제 금산사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사진은 올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모습.

군산 새싹포교·가족법회·문화활동 '인기'

익산 관음사·숭림사 등 생활불교 이끌어

김제 금산사·불교회관 지역신행 구심점

교회 많기로 이름난곳의 '뚝심불심'

 # 군산 호남은 기독교세가 강한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다. 군산은 그 정도가 심해 인구밀도 당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불교계가 위축되거나 기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는 불교인들의 심성으로 조용한듯 하지만 불자들의 신심과 정진은 결코 여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

백제불교를 처음 전한 마라난타가 창건한 불지사를 비롯해 은적사, 상주사 등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천년고찰이 지금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히 자리해 있다.

도시 확장으로 주택가 중심지가 된 설림산 은적사(주지 성우)는 금강불교대학, 진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설립한 진실어린이집은 100여명의 원아가 생활하고 있으며, 금강불교대학은 내년 3월 개강에 앞서 6기 학인을 모집중이다. 또한 지장전에는 전북유일의 사찰납골시설인 영각당이 있으며, 사찰주위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해 지역주민들이 쉬어가도록 했다.

월명공원 내에 자리한 흥천사(회주 지환)는 수행과 포교에 있어 군산을 대표한다. 48년 전, 혈혈단신 군산에 첫발을 디딘 지환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수행하며 포교에 임했다. 1981년 반야선원을 개설해 안거 때는 재가불자가 함께 정진하곤 했다. 50대이상 비구니 수좌 가운데 반야선원을 거쳐 가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이다.

금년으로 18년 된 반야유치원도 군산에서 꽤나 유명해 입학 때면 경쟁이 치열하다. 월명공원에서 노인들에게 펼치던 무료급식은 군산역 앞으로 옮겨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전 선운사 주지 재곤 스님은 시내에 도심포교당 관음사를 창건해 가족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재곤 스님은 30여 년 전부터 군산에 주석하며 전북불교총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불교를 이끌고 있다.

시내에 자리한 동국사(주지 종현)는 군산지역에서 신도회는 물론 고등부, 대학생 불자회, 교도소 법회, 군 법회가 처음 시작된 전형적인 도심포교당이다. 특히 법당은 1913년 일제점령기에 일본승려가 창건한 일본식 사찰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 한 채 남아있는 적산사찰이다.

오성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의 포교반경은 지역을 초월한다. 문서포교 원력을 세운 송월 스님은 그동안 1만5000여권의 불서를 자비로 출판해 불자와 일반에 무료보급하고 있다. 현재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송월 스님은 군산불교회관, 지역불교대학, 문화센터에서 선 체조, 불교기초교리를 강의하고 있으며 군, 교도소 법회를 담당하고 있다.


올 4월 개원한 여산 호국 충국사 육군부사관학교 법당에서 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연합활동으로 포교일선 꾸려

 # 익산 익산은 근대들어 새롭게 조성된 종교도시이다. 기독교의 강세 속에 원불교 총본산과 원불교 종립 원광대학교가 사회, 문화,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 불교계의 입지가 더욱 좁아 보인다.

지역적으로도 교구본사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교 속의 오지를 연상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지역 불자들의 신행과 포교는 눈물겨울 정도이다. 타종교의 공격적인 선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연한 종교편향으로 불교계는 몇 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개별 활동보다 연합 움직임이 강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익산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광)의 활동이 눈에 띈다.

익산시가 할렐루야 축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거액의 후원금을 책정하자 연합회가 나서 저지했다. 시립합창단이 찬송가 위주로 준비 중인 공연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암연합회는 대사회 활동으로 독거노인 돕기,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사암연합회를 이끄는 지광 스님(숭림사 주지)은 1986년 해인사에서 열린 승려대회에서 '불자여 눈을 떠라!'는 혈서와 함께 '불교재산관리법 폐지'를 주창했다. 불교자주를 위해 애쓰는 지광 스님은 지역 불자들과 함께 불교수호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섬이 없다. 또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불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을 펼쳐 소외이웃을 돕고 있다.

익산 도심 포교 중심지는 갈산동 관음사(주지 원성)다. 이리불교대학, 어린이법회, 학생회, 합창단 등 각종 신행단체가 관음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5년 전 법당 및 문화센터 불사가 회향되면서 신행단체 움직임이 더욱 활기차다. 일요법회, 시민선방이 운영중이며, 이리불교대학은 금년 14기 30여명의 학인이 재학 중이다.

불교학생회가 전국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대불련 익산지부(지부장 이응진 · 원광대)는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학생법회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원광대는 동아리방 법당에서 매일 저녁예불을 봉행하고 있으며, 종교문화제, 100일 정진 등 각종 행사를 펼치고 있다.

여산 호국 충국사(주지 정행)는 국내최대 하사관 양성기관인 육군 부사관학교 내에 자리한 군 법당으로 지난 4월 1200명의 군 불자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법당을 준공했다. 부사관학교는 연간 1만여명의 사관후보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충국사에서 매년 4000여명의 군 불자가 수계를 받고 야전에 배치된다.

현재 충국사는 교육생의 40%가 법당에 나오고 있어 국내 군 법당 평균인 28%를 초과해 군 포교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뿌리깊은 신행단체 다시 뭉쳐…

 # 김제 지리적으로 조계종 제17 교구본사 금산사의 영향이 큰 편이다.

지역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금산사가 시내에 불교회관을 개설했다. 불교회관에는 공무원불자모임인 연우회를 비롯해 합창단, 청년회 등이 활동하고 있다.

시내권 사찰로 흥복사(주지 우진)가 손꼽힌다. 전강 선사가 주석하며 선풍을 날렸던 흥복사는 학생회, 청년회 등 김제의 각종 신행단체 모태이기도 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신도조직이 힘을 잃었으나 새로 주지로 부임한 우진 스님이 도량정비를 마치고 신행단체 규합에 나섰다. 청년회를 복원하고 시민선방, 문화교실, 어린이법회를 개설해 대중포교 거점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혜봉사에 주석하고 있는 태고종 승정 남파 스님은 지역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해 발품을 아끼지 않는다. 남파 스님은 "지도자의 역량이 불교와 종단발전을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승려교육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최근 하소백련 축제로 전국적인 명소가 된 청운사(주지 도원)는 △음력법회 탈피 △의식중심에서 경전중심으로 대화 · 토론문화를 살리자는 기치아래 새로운 신행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다. 사찰운영에 있어서도 '문화가 있는 사찰, 사찰자립경제'를 위해 백련축제를 운영하며 백련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해 일반에 보급하고 있다.

동국학원 금산 중 · 고교(교장 채규수)는 전북 유일의 종립학교로 1947년 금산사가 세웠다. 현재까지 중학교는 55회에 걸쳐 1만100여명, 고등학교는 46회 3400여명을 배출했다.

군산 · 익산 · 김제=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재곤 스님 군산 관음사 주지


남파 스님 태고종 승정


지광 스님 익산 숭림사 주지


도원 스님 김제 청운사 주지


종현 스님 익산 동국사 주지


성우 스님 군산 은적사 주지


우진 스님 김제 흥복사 주지


원성 스님 익산 관음사 주지


송월 스님 군산 성흥사 주지


지환 스님 군산 흥천사 회주


정행 법사 여산 충국사 주지


채규수 금산 중 · 고 교장

■ 인터뷰 / 귀신사 회주 용타 스님

동사섭 법회 25년째 진행



인간을 비롯한 모든 중생은 '더불어 존재'하며, 서로 잘 어울리면 편하지만 어울리지 못하면 불편하다. 불교의 사섭법(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으로, 사섭법을 바탕으로 개발된 '불교심성프로그램'이 동사섭 법회이다.

1980년부터 25년째 동사섭 법회를 이끌고 있는 용타 스님(김제 귀신사 회주 · 사진)은 "동사섭은 정체(正體)-대원(大願)-수심(修心)-화합(和合)-작선(作善)을 삶의 5대 덕목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수련이다"고 소개한다.

동사섭은 무종교인은 물론 종교를 초월해 신부, 목사, 수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동참해 그동안 183차에 걸쳐 1만 여명이 거쳐 갔다. 특히 심리치료 전문가와 상담기관 종사자들 사이에 필수과목처럼 알려져 동사섭 수련에 참가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국내 정신학계에서 독보적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마음 알기, 마음 다루기, 마음 나누기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동사섭 수련회는 방학을 이용해 5박6일 코스로 진행된다.(063-227-1000)

■ 주목!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축제

2만평 백련지 연 30만명 '발길'

공연 · 전시 · 연차 시음 등 볼거리 풍성



김제 청원사에서 열리는 '하소백련축제'는 전국에서 연 3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있는 '야단법석'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는 시골의 작은 사찰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2만 여 평의 백련지를 조성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7~8월 여름 내내 피고 지는 백련을 좇아 사진작가가 몰려오더니, 소리 소문을 듣고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3년 전부터 아예 축제마당을 펼쳤다. 백련과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그대로가 야단법석인 자리를 마련했다.

금년엔 축제기간에 물경 30만 명이 다녀갔다. 지난 3년 간 무대에 오른 예술인만 800여명. 청운사 백련을 주제로 한 시가 200여 편에 이른다.

주지 도원 스님은 "사람이 있어야 교육, 문화, 포교가 된다"고 판단하고 "백련을 방편삼아 사람들이 스스로 사찰을 찾도록 했다"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백련을 통해 사찰경제도 돌파하고자 했다.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2년간에 걸친 공동 연구 끝에 백련차를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청운사 백련차는 우전, 세작, 중작, 잎차, 정차 등 총 7종으로 일반에 보급되고 있다. 금년에 제조시설을 기계화해 약 5톤의 백련과 관련된 상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27호 탱화장이기도 한 도원 스님은 "주 5일제가 확산됨에 따라 사찰도 수행, 문화예술, 경제생산 등 3박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준엽 기자

■ 인터뷰 /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

인재불사로 미래지향



미륵성지 김제 금산사는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이자 명실공히 '전북불교의 얼굴'이다.

60여개의 말사를 중심으로 전북불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지 평상 스님(사진)은 "전북지역 포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토로한다.

수년째 교구본사 예산의 30%를 포교비로 쓰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교에 소홀할 수도 없는 일이다.

스님은 "단지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며 불교바람 일면 크게 일어날 곳이 이 지역이다"고 확신한다.

그러한 조짐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금산사는 김제 불교활성화를 위해 시내에 불교회관을 개관했다. 비록 전세법당이지만 지역의 재가신행단체가 마음껏 정진하라며 운영도 재가에 맡겼다. 최근 들어 고사위기에 처했던 재가신행단체가 서서히 움직이는 느낌을 감지한다. 3년 전 시작한 금산사 일요가족법회(매월 둘째 일요일)는 평상 스님이 직접 법문을 맡아 이제 자리가 잡혔다.

스님은 늘 강조한다. "건물불사는 '이제 그만' 해야 합니다. 인재불사를 통해 미래불교를 준비하는 것만이 불교가 살 길입니다."

총지종 '대중화 불사' 착수

종조기념관 개관 계기로 시대 맞는 교화방편 개발
불단 장엄·의식 개편…종합수행타운 건립 등 추진


총지종은 종조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대대적인 종단혁신에 나섰다. 사진은 12월2일 종조기념관 현판 제막식.

총지종이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교화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종단 대중화에 나선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12월 2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종조 원정기념관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승직자과 교도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는 종단쇄신 의지를 피력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총지종의 최고 권위를 지닌 효강 종령은 "대승불교의 정점이라고 자부하는 밀교의 교학과 수행원리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한고 아직도 밀교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은 종도 모두의 책임"이라며 "종조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시대에 맞는 교화방편을 개발함으로써 이 땅에 밀교중흥의 기치를 드높여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승직자들은 창종 초기의 열화와 같은 교화정신을 되살리고, 교도들은 초발심의 정진으로 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줄곧 '종단혁신과 교화활성화'를 주문해 온 효강 종령의 이날 법어는 향후 총지종의 종단운영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불교(현교)와 밀교의 차이가 교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법장원을 중심으로 불단 장엄, 사원 활성화 등의 방안이 마련돼 종단내에서 공론화 과정에 놓여 있다. 총지종 전체 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18~21일 열린 추계강공에서 1차적으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뤄진 상태다.

지금까지 논의된 총지종의 혁신 방안은 불단 장엄화와 의식 · 의궤 개편, 불구 사용, 도제양성 확대, 사원 건립 및 활성화, 종합수행타운 건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불단 장엄화의 경우, 총본산격인 총지사에 봉안된 태장계만다라의 중심부분인 중대팔엽원을 보다 확대시켜 만다라내의 부처님이 크게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형상화된 불상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는 대중의 성향에 맞춰 아예 법당에 봉안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불단 장엄화와 함께 의식 · 의궤의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5일 근무제 패턴에 맞춰 일요일 열리는 법회를 다른 시간에도 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2시간여가 걸리는 법회의 시간을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으로 단축시켜 법회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식 · 의궤시 사용하는 불구는 죽비 외에 요령과 종 등을 허용해 의식 · 의궤의 분위기를 장중하게 진행하는 한편, 반배만 하도록 하고 있는 의궤를 일반적인 불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체투지와 병행한다는 것이 총지종의 기본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화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도제양성 확대, 지역사원의 활성화, 사원 개척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총지종은 고령화 현상이 굳어지고 인원이 늘지 않는 승단의 개혁을 위해 도제양성 확대에 나선다. 기존의 승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질 향상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써 포교 · 수행 · 복지 등을 아우른 종합수행타운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개척지역에 대한 포교 방안으로 사원을 건립하는 한편, 장기적인 지역사원 활성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총지종 관계자는 "효강 종령님의 확고한 의지에 힘입어 종단개혁과 교화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이미 그려진 상태"라며 "내년 1월 중순 열리는 승단총회에서 가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힘있는 종단' 청사진 내놔

태고종, 내년도 사업·예산 105억원 확정


태고종은 12월 2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90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태고총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고종이 '힘 있는 종단'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승가상 구현'을 내년 지표로 확정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인공)는 12월 2일 서울 봉원사에서 제90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2005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105억4천여만원의 예산안, 태고총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태고종은 내년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종단발전기반 구축사업, 인재양성과 종도 의식개선을 위한 전인교육사업, 사찰기능 확대사업, 사회복지사업, 불교분규 청산사업 등의 5대 중 · 장기사업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16개 중점사업을 벌여 나간다.

이날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단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립기금 조성사업 △지방교구 신도회와 중앙의 전국신도회 재결성 △재정확보를 위한 종단수익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보인 <한국불교>를 현재 순간 12면 발행에서 주간 16면으로 증보발행하고 불교위성TV(BSB)의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인교육사업으로는 통합적으로 시행됐던 승려연수교육을 종무직원 행정연수, 승려 선수행 연수, 한문 및 외국어 연수 등 기능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권속 · 신도회 · 청소년 · 외국인 수련회 개최 등을 개최한다.

사찰기능 확대 방안으로는 총무원-교구종무원-사찰을 연결하는 행정시스템 전산화 완료, '인간 대각성운동' 등이 제시됐다.

또 태고종은 종단 산하 종무기관이나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종단차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벌여나가는 한편 자원봉사단 결성, 인권 · 환경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태고총림법 왜 개정했나
직영에서 직할사찰로 전환

새로 개정된 태고총림법은 선암사 재적승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태고종의 수행 · 교육 중심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큰 폭으로 손질됐다. 이를 위해 재적승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총무원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운영위원회의 규모를 축소, 직영에서 직할사찰로 전환했다.

당초 태고총림법은 98년 경내로 진입한 조계종측의 일시적인 소유권 행사에 대항해 선암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다.

문제는 주지 선출을 앞두고 선출권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의 과반수를 임명한 총무원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일부 재적승들이 태고총림법의 무효를 선언하고 나선 것. 관음전 불상 위조설과 전산대회 개최 시도 등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이에 태고종 총무원은 재적승들의 불만을 줄이면서 선암사를 총본산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결국 종법의 제 · 개정, 폐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종회는 폐기 대신 개정을 택함으로써 현 총무원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조계종측의 소유권 행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또한 태고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라는 상징성을 감안한 결과다.

박봉영 기자

조불련, 남한 불교계에 베이징 만남 제안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서기장 정서화)가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주요 종단과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불국사 등에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조불련은 11월 30일 종단협 등에 보낸 전문을 통해 "조불련 부위원장에 심상진 서기장이 내정됐으며 서기장으로는 정서화 스님이 임명되었음을 알린다"고 밝히고 "협력과 연대의 폭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중국 베이징에서 상호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과 당면한 현안문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불련은 12월 14일 천태종과의 접촉을 시작으로 15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15일, 16일 불국사, 17일 진각종, 평불협 등과 차례로 만남을 갖자고 제안했다.

이번 조불련측과의 접촉은 정서화 서기장 체제 이후 첫 만남으로 향후 남북불교 교류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동안거 결제 12월14일부터 한달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2월 14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250여 사찰에서 제88회 갑신년 동안거 결제에 든다.

이번 안거에는 전국 사찰에서 천태종 스님과 재가불자 5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자는 1월13일까지 방부를 들인 사찰에서 용맹정진한다. 스님들은 2월까지 60일간의 안거에 든다.

구인사는 12월 14일 오후 10시 설법보전 5층 법당에서 결제법회를 봉행한다. (043)423-7100~8

박봉영 기자

수행지침 진각의범 출간

진각종의 각종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인 <진각의범>이 출간됐다.

<진각의범>은 진각종에서 제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각종 불사 및 행사, 가정에서 행하는 혼례, 상례, 제례 등의 의식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 의범의 종요 및 대요를 비롯해 심공의례, 수계관정의례, 제반의례, 의제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총화종 '종찰' 건립 나선다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이 종도들의 정신적인 귀의처가 될 대본산 건립에 나선다.

총화종 중앙종회(의장 화담)는 11월 30일 총본산 남양주 수진사내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5차 중앙종회를 열고 종찰 건립에 매진하기로 결의했다. 건립기금 90여억원은 종도들의 성금 등으로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종찰건립기금을 포함해 96억 3천 3백여만원의 2005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화종은 내년 재단법인 설립,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중앙연수교육 실시, 해외 성지순례 등을 추진한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총화종은 내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종찰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 재단법인 설립 등 어느 해보다 중요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며 "종단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와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원력으로 모든 종도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법륜종 창종 16돌 법회

법륜종(총무원장 창법)은 창종 16주년을 맞아 11월 30일 논산 총무원 대법당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초대 종정을 지낸 금암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무원장 창법 스님은 법회에서 "종단 발전과 중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이 화합단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금강경의 주장자
84,000장경의 엔솔로지
빈손도 내려놔라
도서출판 여래. 저자 둔세승. A4 size 100% 칼라양장판 8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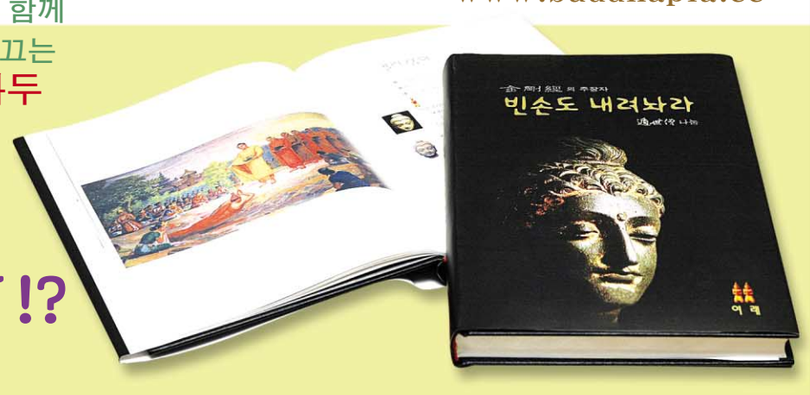
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라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정가 / 상하권 100,000원

연락처 : 02)515-8289
053)744-9009

www.buddhapia.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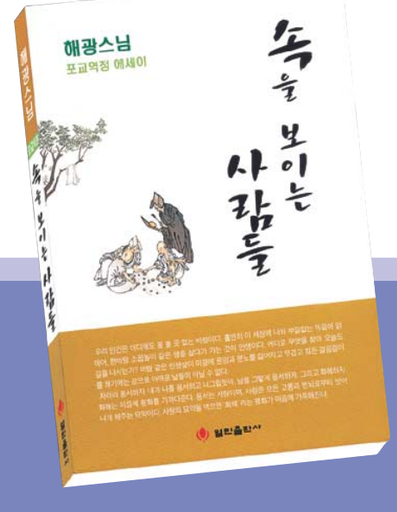
보면
보인다!?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우리인간은 어디에도 몸 둘 곳 없는 바람이다. 홀연히 이 세상에 나와 부질없는 마음에 얽매어, 한바탕 소꿉놀이 같은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로 무엇을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서는가? 바람 같은 인생살이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짊어지고 무겁고 힘든 걸음걸이를 하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날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용서하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그럽듯이, 남을 그렇게 용서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화해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묘약이다.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해광(海光)스님 저 서
불교비전의술서「불가비의」/ 실용 역학서「운명비결」/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왕 초보 절에 가다」집필 중.

해광스님 /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금강선원 032-665-8472
열린출판사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33-4 영화빌딩 504호 / 02-2275-3892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김장 울력 수행의 맛도 깊어집니다

산사의 겨울채비 – 해인사 김장 담그기 현장



수영장처럼 넓은 대형 간절임통이 만들어져 이곳에서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진다.

8000 포기 간절임통 수영장에 온 듯

"스님, 소금 좀 더 뿌려주세요"

"바닷물 농도가 참 좋은데, 예전에 바닷가 사람들은 바닷물에 배추를 절였다고 하잖아요."

12월 1일 경남 합천 가야산 해인사. 1994년을 한달 남겨두고 고요하던 산사가 시끌벅적하다.

해인사가 겨울 한철 나기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해인사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김장 울력에 나섰다.

올해 해인사 김장은 8,000포기. 보통 여염집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다. 따라서 해인사 김장에는 남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김장 하루 전날 김장을 하게 되는 장경각 보존원 뒤쪽 주차장에는 칼 40개, 도마 30개, 빨갛고 노란 바구니 50개, 빨간 고무통 30여개, 고무장갑 200 켤레, 소금 50포가 준비됐다. 대형 간절임 통도 필수. 8,000포기의 배추를 간 절이기 위해서는 일반 고무통으로는 어림도 없다. 철골과 합판으로 가로 3m 세로6m 높이 1m의 사각틀 3개를 만들고 물을 채울 수 있도록 큰 비닐 천으로 덧 씌웠다. 꼭 아이들 수영장(?) 모양이다.

200여 대중 동참, 높고 낮음 없이 울력

아침 8시, 극락전 옆과 율원 뒤쪽에 있는 약 1,000여 평의 밭에서 싱싱한 무공해 배추 8,000포기가 3.5톤 트럭 두 대에 나눠 계속 공수돼 왔다.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소임자 스님, 강원, 율원, 선원의 스님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강주 정묵 스님은 밭에서 배추 뽑기에 여념이 없고, 율원장 혜능 스님과 선원장 선각 스님도 학인들 틈에서 칼과 도마를 잡았다. 오늘은 뒷방의 어른 스님들까지도 털모자에 목도리를 하고 모두 나왔다. 이것이 산사의 울력이다.

선원 스님들은 배추를 다듬고 자르는 일을 맡고, 강원과 율원 스님들은 밭에서 배추를 뽑고, 간절임에 나섰다.

200여명의 전 대중이 마당에 이렇게 마주앉는 일이 또 있을까? 전 대중이 동참하여 겨울철 수행을 위한 먹거리를 장만하는 것에 대한 설레임과 흥분의 기운이 살짝 감돌았다.

누구 하나 일 안한다고 불평하는 이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따지는 이도 없다. 일이지만 스님들에게는 수행인 것이다.

쉬어야 되면 쉬고, 일손이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채워 나갔다.

도마를 앞에 두고 배추를 자르는 스님들의 모습 속에는 높고 낮음이 없었다.

김장 첫날은 밭에서 배추를 뽑아다가 반을 쪼개서 소금에 절이고, 둘째 날에는 절인 배추를 물에 씻어 물기를 빼 둔다. 셋째 날, 양념에 버무려 항아리에 담아 땅에 묻는다.

"배추가 알이 꽉 찼네요, 올해는 배추가 참 잘됐습니다."

율원 뒤쪽 배추밭에서 배추 세 포기씩을 한꺼번에 나르던 강주 정묵 스님의 한마디에 고랑고랑 앉아있는 배추가 더욱 탐스럽게 보인다.

배추수확에 나선 강원의 학인 스님들 손이 무척 분주하다. 배추를 나르는 솜씨는 일품. 배추가 밭 위를 경쾌하게 날아다녔다.

"스님 허리가 없어요", 농담 한마디에 '푸근'



이번 김장울력에는 주지 · 선원장 · 율원장 · 강주 등 해인사 전 대중들이 나섰다. 배추를 뽑고 있는 율원장 혜능 스님(왼쪽).

한 스님이 노루가 먹다가 버리고 간 배추 하나를 쩍 하니 쪼개어 으적으적 맛을 봤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 먹어야 제 맛을 아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는 모두들 너무 꾸미려고만 하지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배추밭에서 스님은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리이야기.

"원래 음식은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할 때 잘 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법문이다. 배추밭에서는 진리의 말이 절로 나오는 것일까. 수행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스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을 파고든다.

"스님 애쓰십니다." "원 별말씀을…."

서로를 격려하는 스님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천진난만하다.

한 켠에는 불을 지피고 감자구이에 나섰다. 불속에 넣은 감자가 10여분 만에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구수한 냄새를 풍긴다. 산사의 김장 울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다.

"스님, 허리 펴 가면서 하세요. 100번 건져 올리고 허리 한번 펴기, 하하하"

"스님은 허리가 없어요. 워낙 유연해서."

8000포기의 배추를 소금물에서 건져 올리는 일이다. 계속 허리를 숙이고 일하는 스님에게 넌지시 건넨 충고 한마디와 농담이 따뜻하다.

수영장 모양을 한 큰 절임통은 세 칸 중 두 칸이 소금물로 가득 채워졌다. 다듬고 반으로 쪼개진 배추들이 소금물에 순응하며 그 속에서 둥둥 떠다녔다. 여기에 학인 스님 20여명이 어부장화(어부들이 신는 독특한 장화 옷)를 입고 들어갔다. 첫 번째 칸에서는 배추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한다. 두 번째 칸에서는 깨끗이 씻고 배추 구석구석에 간이 알맞게 배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칸으로 옮겨진 배추는 사이사이 소금을 뿌려 가지런히 재어둔다.

어부장화를 입은 스님들은 배추더미 속에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잠깐의 실수로 배추더미에 넘어지기가 쉽다. 여기저기서 배추더미에 주저 않고 엎어지는 사태가 속출했다. 그렇지만 김장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스님들의 바람은 간절했다.

마음으로 담근 김치 산사의 귀한 양식

김장 셋째 날인 3일, 이제 절여진 배추에다 속만 채우면 된다. 김치 속을 만들려면 우선 뭉근하게 찹쌀풀을 쒀야한다. 여기에다 고춧가루와 청각, 통깨, 생강 갈은 것, 소금을 함께 섞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김치 속은 젓갈이 사용되지 않은 정갈한 '산사 김장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이 과정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옛날부터 절집에는 여름에는 상추 따다가 쌈장에 찍어 먹고, 겨울에는 청국장에 시래기 삶아 먹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때 겨울철 유일한 반찬이 김치입니다."

김장을 총괄 지휘하는 원주 본학 스님이 산사의 겨울철 김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했다. 김장 김치는 200여명이 넘는 산중 스님들의 유일한 겨울철 양식이며, 몸에 들어와 수행정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사찰의 김장은 '겨우내 먹거리 준비'에서 나아가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데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승가 전통의 하나인 '사찰의 맛'도 공동체 수행을 통해 이어져 나간다고 할 때 김장은 단체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의식'이 되는 것이다.

"총림의 대중생활은 공동체 생활이지요. 공동체 생활에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중규약이 있는 것입니다. 예불, 울력, 정진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중에서도 김장 담는 것은 울력에 해당하는 것이니 누구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원장 선각 스님은 총림 공동체 생활에서 울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모든 대중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8,000포기의 김장김치는 20여개의 김칫독에 담겨 땅속에 저장돼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산중 스님들과 일반 대중들의 귀한 양식이 될 것이다.

해인사=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배추와 무 뽑기



소금뿌려 절이기



절인 배추 물에 헹구기



마지막날, 절인 배추에 속 넣기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2월 14일 출발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일 시	교 통	일 정
12월 14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국내선편으로 정주로 이동
12월 15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12월 16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12월 17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12월 18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에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농협 불심 10년 저력

전국연합회로 '점프'

11월 26일 직지사서 '연합법회 및 발기인 대회'

성지순례·법회 정례화·전국 농협불자회 결성 추진

농협중앙회 불자회인 중앙본부 불교회가 창립한지 10년, 부산지역 농협 불자회인 반야회가 생긴지는 13년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농협불자회가 더 이상 예전의 신행활동만 고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법. 중앙본부 불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 산재한 농협불자들을 하나로 묶는 전국농협불자연합회를 조직, 전국단위 조직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농협불자회가 11월 26~27일 김천 직지사에서 전국연합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립 10주년기념 연합법회 및 발기인대회'를 가졌다(사진 위). 농협 불자회원들이 서울 광주지역의 농협불자회 창립을 축하하고 있다.(아래).

■ **창립10주년, 이제는 전국연합회로~!**

11월 26~27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는 전국의 농협 불자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협불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미 창립 지역 불자회의 결성을 돕고 전국농협불자연합회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연합법회 및 발기인대회' 현장.

이날 법회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직지사 포교국장 덕영 스님,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정관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봉독, 개회사, 환영사, 법문, 농협불자연합회 창립 결성식,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기 모인 농협불자들은 새농촌 새농협으로 새롭게 탈바꿈 시킬 원을 세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를 바란다"며 "법회 등의 활동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여래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농협불자연합회 조공제 대표는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해 모든 농협불자들이 정진함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분별없는 마음으로 농협불자들의 힘을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농협불자연합회 창립 결성식이 거행됐다. 전국농협불자 250여명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전국단위조직으로서의 전국농협불자연합회 창립이 선포되고 조공제(부산농협 카드공제담당) 상무를 제1대 연합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 **전국단위 조직 구성, 연계사업 도모**

농협불자회의 첫 창립은 1991년 부산 반야회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94년에 중앙본부 불자회와 충북불자회가 창립되고 2001년 경남불자회가 결성됐다. 농협불자회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부산과 서울 양 지역의 불자들을 중심으로 나름의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전국 곳곳에 농협이 분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반야회 창립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회가 단 4곳뿐이라는 점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역적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발돋움이 있어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2004년 2월 중앙본부 불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농협불자회의 전국단위조직으로의 확대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복영 중앙본부 불자회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전국농협불자연합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10명의 추진위원회 위원은 전국단위조직의 농협 불자회로 거듭나기 위한 힘겨운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농협불자연합회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불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들을 찾아 연결해주는 고리역할을 했다. 또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자들을 수소문하고 이미 결성된 부산, 충북, 경남 불자회와의 연계를 계속해 나가며 연합회의 틀을 다져나갔다.

■ **전국 농협을 포교 거점으로 활용**

이날 법회에서 서울 광주지역 불자회가 결성됐고, 전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지역본부의 불자회 결성을 약속받았다. 또한 이복영 추진위원장과 조공제 연합회 대표, 각 지역불자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합회의 규약과 조직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전국농협불자연합회는 연합법회와 성지순례를 정례화하고 미창립지역 불자회의 결성을 통해 전국 농협에 불자회가 활성화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새롭게 창립된 전국농협불자연합회는 그동안 지역적 신행조직으로만 머물러 있던 농협 불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불자회의 활동을 회원조합에까지 확대시킴으로서 농협 내부 계통간의 화합에 주력하고, 전국농협불자들의 신행활동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 퍼져있는 농협을 통한 포교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중앙본부나 부산 반야회가 회보지를 통해 해왔던 포교활동을 전국연합회 차원으로 확대·실행할 계획이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국립의료원 법우회

국립의료원법우회(회장 정덕자)가 11월 27일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파주 보광사 수구암 학송 스님, 백령도 연화사 지명 스님, 중앙승가대 혜도 스님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김주효 회장 등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자리에서 학송 스님은 "모두가 부처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환자들의 질병은 물론 세상 곳곳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가족 합동수계법회

인천지역 경찰불교회

인천지역 경찰불교회원 합동수계법회가 11월 27일 인천불교회관 법당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인천지방경찰청 경승위원장 선일 스님(대명사 주지) 및 인천중부경찰서 이판열 불교회장, 인턴해양경찰서 성낙관 불교회장 등 인천지역 경찰불교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와 반야심경, 선일 스님의 계사 및 정암 스님(안심선원 주지)의 인례, 대은 스님(태고종 인천 전종무원장)의 수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인천지역 불교연합합창단 및 수미정사 모듬북 공연단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인천지역 경찰불교회원들이 11월 27일 인천불교회관에 모여 합동 수계법회를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선일 스님은 "이번 수계를 계기로 다시 한번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민생안전은 물론 지역불교 및 경찰불교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며 "앞으로도 인천지역 경찰불교회원 및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운불련, 대전지역회 금강지부

뛰뛰 빵빵~! 신나는 경적소리에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거리 곳곳에 전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전지역회 금강지부입니다.

우리 불자회 회원들은 1990년 대전지역회에 소속돼 활동을 해오다 1995년 목요일과 일요일에 근무가 없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금강지부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처음 40여명의 회원들로 창립한 우리 불자회는 현재 75명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매주 첫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 정기법회와 기도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법회는 태전사 주지 도일스님의 지도 아래 불교 기초교리 공부와 회원 개개인의 신심증진 및 안전운전 기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회를 통해 공부한 내용들을 차에 탄 손님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려드리는 데, 이를 계기로 불교를 가깝게 느끼게 됐다며 인사를 건 내는 분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회는 일년에 두 차례씩 가족동반 성지순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매회 100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매일 10시간 이상 차 안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닦고 초발심을 되 세기는 데 성지순례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가족들도 참석하는 만큼 생활하면서 느끼는 고충들을 이야기 나누고, 서로서로 도닥거리고 용기를 불어넣으며, 불자회의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불자회는 대전지역 내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쌀과 비누 등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목욕 돕기 및 집안청소 등 노력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늘 따뜻한 마음과 미소로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갈 정도로 불규칙하고 고된 생활이지만, 때로는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시간활용이 용이해 짬짬이 인근의 복지관 등을 찾아가 봉사행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강변웨딩홀 뷔페에서 대구 중구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서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을 대접하고, 노래자랑 등의 신나는 프로그램 등으로 이날 하루만큼은 모든 근심·걱정을 잊고 즐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잔치 내내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우리 불자회 회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많이 가지자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대전시내 곳곳을 누비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회가 되겠습니다.

■윤건호 교무국장



운불련 대전지역회 금강지부 회원들이 11월 25일, 대구 중구 어르신 100명을 초청, 뜻깊은 경로잔치를 열었다.

매주 2회 법회, 신심 다지며 안전 기원

독거 어르신돕기·복지관 봉사 '꾸준히'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춥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 상담실 : 02)969-8080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 (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가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certificate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神 비법 강의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한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법경 합장 ※ 빙의치유세미나
※좋은인연이란 주고받는 거래일뿐이다. 그게바로 福
055-573-7832 / 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생사리 이백팔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덕계리 영도사
041)641-3249

사찰종무행정요원모집
PC가능. 신심 용모단정한 30~40대 불자 여성.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1통, 자기소개서
· 접수일 : 2004.12.13일까지 (서류심사후-면접통보)
·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대구포교원 선광사
053)963-9945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1-9109-3660
(24시간 상담)

女 36세이하 직원구함
▷ 운전면허 소지자 숙식가능 (부산)
016-637-6144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첩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산세좋고 물맑은 천하명당자리에 절터를 갖고 있습니다.
창건불사에 동참하실분.
절터, 집터, 묘터, 점포, 상가터 인연되는분 부처님 원력으로 천하명당자리를 무보시로 찾아드립니다.
용천사 용천선원
010-4524-8058

도시환경에는 맞지않아서 포교에 관심있고 인수 받을 능력있는 스님을 찾고 있음. 그리고 40 ~ 50대의 비구니 스님이 사원을 관리할 비구니를 구함
부산설법원 051-441-1430
예천내원암 054-653-1180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576-2737

법납 30년된 50대초반 승려로서 포교 및 사찰운영관리 책임지고 평생 머물곳을 찾습니다
▷ 부산 경남지역 원함
051)553-574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출퇴근. 80만원 강남구청역 4거리
010-5541-6568
02)458-11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40대 ~ 60대전 부산근교 조계종 사찰
011-693-7742

공양주보살님(45~57세) 포교사(숙식가능-유급) 행자(나이불문) 모심
양주백석 지산리 기장사
02)352-6406

공양주보살님
(50대 이후)
모십니다
▷ 대구
010-4667-071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40~50세. 포항시 근교
010-6658-3397

(급) 부전스님 모십니다
▷ 충남 논산. 조계종
011-791-2889
041)734-8730~1

화주보살 구합니다
02)952-7277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부전도 가능)
02)790-0805
017-515-7527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054)654-4925
011-758-181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 고양시
019-211-8533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 강원도 강릉
033)661-5878

달마도 무료 보시합니다.
액운소멸, 수맥차단 달마도
불자님들의 은혜에 보답코자 천운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불자님께(음력, 12월 31일까지)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207번지
031-764-3399 천운사 구암 합장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 평수: 200평, 대지: 200평
- 건물: 43평 2동
- 상태: 시설 A급
- 비구니스님 포교수행도량으로 적합 앞마당 잔뒤, 주변경관 수려
- 가액 : 1억1천9백만원

011-522-489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3동
- 평수: 약80평
- 전통한옥법당 정원이 아름답고 외관수려
-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6천(융자5천7백 별도)

019-473-7600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1천만원 총 2천만원

010-6304-003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삼천포
- 대지 및 부속토지 3필지 합 930평
- 분할 또는 전부
- 가액: 1억4천만원~1억6천만원 절충가능

016-332-1265
055)832-126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약 35평, 방1, 부엌, 화장실, 법당, 오불 모셔져 있음, 각단 탱화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51-524-8108
011-844-989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 116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공양실, 칠성당, 산신각
- 마을과 인접, 읍내와 5분이내 거리
- 가액 : 5500만원

011-9227-4387
055-585-5116

21C는 불교로 간다!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감포도량, 뉴욕도량, 서울도량
▶ 신입생 주, 야간반 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일반신도교육, 조계종포교사배출기관
- 도심속7층대법당, 최첨단시설

▶ 행자(예비스님, 남녀) 모집
- 행자원있음(엘리트 스님양성 - 40세 이하, 고졸이상)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우학스님('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의 저자) 직접지도합니다.
문의 : 011-9852-0075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어느새 초겨울입니다.
현대가 성장해온 시간들이
벌써 12년
힘차게 도약하는 마음 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성혼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喪,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만삼 생것 10kg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60포 : 20만원) ● 2Box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벼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1. 3.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000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위치: 강원
- 임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원
- 공부하는 스님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3억 / 5억 / 10억
- 경기도 : 7천 / 8억 11억 / 13억
- 서울. 수도권사찰. 사찰터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서울시내
5억 ~ 10억
사찰구함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018-267-0988

사찰구합니다
- 장소 : 부산, 대구, 서울

을 제외한 지역은
전화 사절
011-9338-2993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부지 : 만평
- 법당 : 10평
- 요사 : 35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경북 소도시
- 부지 :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1억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 동부산 관광지,버스에서 5분거리
- 평수 : 36평, 2층 법당
- 1층 방 2개, 법당 12평 요사채 15평
- 가액 : 7,500만원(절충가능)
- 시설비 일체 없음. 시설일체

016-819-0318
051)721-6735

암자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학장동(대로50m)
- 구조 : 단층 건물 독채(아파트 밀집지)
- 시설 : 법당(석가,관음,지장,후불탱화, 신중탱화,약사불탱화,인등설치,영가단
- 승방, 거실, 주방, 창고 산신당, 세면장, 수세식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즉시법회가능)

011-768-1355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 상하옥
- 대지 : 200평
- 전 500평, 국요지 300평
- 신축요사 법당
- 경치좋은곳
- 가액 : 1억 3천만원

054)262-667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7천 5백만원 (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전 세)
- 위치 : 남양주시내
- 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20억
※ 산세 계곡 좋음

- 위치 : 천안 목천 IC
- 부지 : 1000평
- 법당 : 40평(목조)
- 요사 : 50평
- 전세가 : 2억 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월계)
- 대지 : 250평
- 건물 : 구한옥 한채
- 풍악산 마애여래좌상 산자락 대나무 숲 남향 동문
- 가액 : 1,500만원

042)272-1208
010-6811-9598

토굴(급)안내
- 위치 :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위 맥전마을
- 대지 : 436평
- 건물 : 조립식 1동 황토방1동, 벽돌방1동
- 토굴로 적합(산세수려,전망좋음)
- 가액 : 6천 5백만원

011-9340-1331
043)743-5577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무거동
- 평수 : 22평 방3개 관음보살, 후불탱화, 독성당, 산신용왕
- 전세 : 300만원 월28만원 시설비 : 450만원

052)223-2823
018-550-7260

사찰안내
- 위치 : 강릉 I · C 부근 천혜의 소나무 자연 조경
- 부지 500평, 노천 미륵 법당
- 법당 30평, 요사 30평, 산신각
- 가액 : 2억 (융자 6천만원 포함)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2층건물 중 2층
- 약 3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02)6497-09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 평수 : 35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시 설 : 삼존불, 각단탱화, 주지실, 주방

011-317-0582

사찰안내
- 위치 : 구리시 교문동
- 부지 : 200평(텃밭, 주차)
- 법당 : 아담하고 시설이 완벽함 삼존불(개금), 각단탱화, 영단, 집기일체, 살림포함
- 몸만오시면 됨.즉시법회가능. 교통편리
- 전세 : 4천만원 시설비 : 2천 7백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7705-22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로변
- 3~4층 (방8개) 총 135평 옥상 80평 (노상법가능)
- 특징 : 최고의 위치,시설(시민선방, 불교대학,대중포교당으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 5천만원(시설비(권리금)포함)

053)745-3334
017-501-7369

포교당 안내
- 위치 : 후암시장 입구 2층건물 중 2층
- 평수 : 12평
- 가액 : 전세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약간)
- 즉시법회 가능
- 철학관 적지
- 땅은 있고 법당 보시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2)771-190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읍내
- 대지 : 192평
- 법당 : 28평
- 요사채 : 28평
- 산신각 : 각 10평(2층)
- 가액 : 1억 2천만원

019-292-7025
052)294-702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64-5 주안전철역 2분거리
- 건물 7층 중 4층 90평, 5층 90평
- 전세 8천만원. 6층 건물 45평
- 전세 1천 5백만원. 월100만원

011-734-7918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28-61호 4층 건물 4층
- 법당 : 30평 중 방 2, 공양간 1, 최고시설
- 월 40만원 총금액 1,300만원

011-9864-1095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요사채(1~2층) 60평
- 법당(40평)
- 시설 : 소불 천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사찰안내
- 위치 : 통영시 근교
- 총면적 : 약 5500평
- 법당 : 20평, 칠성각 10평 산신각 1동, 요사채 목조15평, 스라브 30평
- 계곡 청정한 고찰 버스종점 5분거리
- 가액 : 2억 5천만원

055)637-5927

암자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 부지 : 350평, 법당, 삼선각, 주지실, 요사채
- 가액 : 8500만원
- 산세 아늑하고 편안함 집기일체 양도가능 모든시설 완비

041)578-3565
010-7770-32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 (32평)
- 건물 (시설) : 법당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016-640-8133

사찰 터 안내
- 위치 : 신행정 수도권역(명산자락)
- 용도 : 사찰, 별장, 농장, 최대요지
- 대지 738, 전 3,187 답 1,958(우량농지조성)
- 지상물 : 신가옥(원목 고건축 한옥 1동 2004년말 준공) 구옥 1동 비닐하우스100 (현대식)

011-409-9243

지리산 깊은 산중 사찰
- 기운이 장하고 전망이 웅혼하며 맥반석계곡에 접한 동남향 명당터. 무문관 수행이 가능한 4개의 방사와 법당 외에도 심야전기, 기름보일러, 황토방이 설치된 여러채의 건물에 총 15개의 방사와 1000여평이 넘는 부지. 만오천평의 임야, 아래마을까지 2.5키로, 일체의 소음없고 청정한 기도, 참선도량 ● 가액 : 5억원

010-6398-5730/011-9136-131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산면
- 대지 : 약 1000평
- 건물 : 요사채, 삼성각
- 법당 : 20평(삼존불, 단청)
- 특징 : 마산-통영간 국도변
- 가액 : 5억

055)931-9633
011-9521-9633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송현동 송현주공 시장 앞(월촌지하철역 5분)
- 평수 : 53평(4층건물의 4층)
- 법당 30평, 방2개,공양간,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답사후 꼭 하실분 가격절충 가능)

011-503-1090
016-869-245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지하철에서 5분거리
- 평수 : 250평
- 법당 : 40평, 요사채 40평
- 가액 : 8억원(3억 융자있음) (절충가능)

011-584-129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 대지 : 60평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금액 : 1억 9천 5백만원 은행융자 : 3천 5백만원

011-9543-0226

토굴안내
- 위치 :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 대지 : 150평
- 임법당, 방3개, 목욕탕2개, 부엌
- 마을에 위치 시내에서 7분거리
- 가액 : 3천 5백만원

011-9581-9390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반야월
- 평수 : 150평
- 법당 1, 주방, 방6,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년 7백만원 시설비 무
- 특징 : 밭 300평 사용

053)961-0224

포교원안내
- 위치 : 광명시 하안동 사거리
- 건물 : 총131평 (사무실, 방2, 주방1, 화장실2)
- 특징 : 중심상업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대중교통편리
- 가액 : 4억

02)898-820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 대지 : 2300평
- 건물 : 황토 전원주택 35평(신축)
- 특징 : 사찰 및 전원주택지. 농장 등으로 최적지임 (토지정리)
- 가액 : 6억 9천만원 평당 30만원

011-9853-384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 땅 : 1000평(등기상) 과외로 300평
- 법당 : 20평, 요사채 2동 종교부지, 시설완벽
- 몸만 들어오시면 됨
- 가액 : 3억(절충가능)

017-403-66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 대지 : 17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40평 (방5,주방1,거실,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 특징: 합천댐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공기
- 가액 : 3억 3천만원(답사후절충가능)

016-9771-273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울진군 울진읍
- 평수 및 시설 : 법당, 산신각, 용왕당, 칠불전, 요사채(30평) 등 총1000여평
- 전세 및 양도

051)257-2044
011-554-2044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급)안내
- 실평수 25평,방3,살림가능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200만원, 월 80만원
- 수백년 된 부처님 계심
- 주차가능 지하철 1분 거리
- 이주관계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02)543-5060
017-803-669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제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1억6천만원(시설비 포함)

※ 최적의 포교중심지
053)959-0490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 600평(대지 402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7층석탑, 삼성각 10평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143-0098

절터(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
- 전 : 267평
- 대지 : 83평
- 합 : 351평
- 가액 : 2천 5백만원

011-9219-0105
043)873-821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 42평 4층건물 중 4층
- 법당, 산신각, 방2, 주방, 거실, 욕실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7-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 대지,법당30평 요사채50평, 텃밭
- 가액 : 1억 4천만원

054)372-8734
011-9382-4782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내
- 부지 : 900평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40평
- 양도가 : 2억 8천

010-8678-13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1)303-7477
011-9338-74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총부지 : 813평(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용도변경 되어있음
- 건축물 : 46평(법당, 요사채, 객실) 한동으로 되어있음
- 특징 : 자연석축으로 가람이 조성됨 자연석 다량 보유 (무상양도可) 공토가 주변 200평있고, 구조물 일체양도, 법회즉시가능함
- 가액: 3억 5천(융자 6500만원포함) 답사 후 절충가능

011-9378-5637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건물 내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욕실
- 주차 : 도로상 일렬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모든시설완비, 삼존불, 탱화,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포교와 법회 등, 바로 운영 가능한 최적의 장소임

017)269-2629
032)517-3001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 상가주택 대지 8m×6m 코너 절
- 평수 : 113평, 건평 120평, 1층 상가 4개, 2층 사찰 대웅전 25평, 스님 방겸 큰방 3개, 후불순금탱화, 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 5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순금 4자 반, 삼신불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자신있게 갖춘 도량
- 가액 : 4억 8천중 잔금 2억 7천만원이며 등기완료
- 좋은조건 : 매월 상가, 임대료 1백 50만원 나옴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포교요충지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11-650-848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도심속포교당겸토굴안내
- 위치 : 부천역사 부천시장부근 유동인구 밀집지역
- 2층 30평, 대웅전, 법당1개 큰방2, 거실, 욕실, 도시가스완벽 온수기, 부처님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열석자 조각
- 보증금 : 1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 스님 개인사정상 1500만원에 보시하고자함
- 비구니, 부전스님, 보살님 도량

010-3166-8483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평창 청옥산 자락
- 평수 : 815평 ● 대지
- 건물 : 조립식 주택 40평
- 가액 : 6,400만원
- 특징 : 솔밭 약 200평, 밭 약 400평, 마당 및 가옥 약200평, 해발 700m 경치 수려한 암자 적지. 세속에 가까우나 세속을 떠난 신선감. 넘치는 명당자리

011-361-0230
011-9638-446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중앙농협뒤) 상가, 시장 밀집(교통, 편리)
- 평수 : 56평(엘리베이터 유)
- 법당 : 삼존불, 탱화, 엠프설치, 연등220등 내부 (한옥식, 바닥-게르마늄+맥반석온돌, 방6개, 욕실, 주방2칸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2)907-1626 /010-8678-5612

日 '아미타삼존도' 사건 계기로 본 해외문화재 환수문제

의지도 전문성도 낮은 수준

가쿠린지 절도 고려불화, '선의 취득' '돌려줘야' 갈피 못잡아

20만점 이상 해외산재… 인력 · 기관 · 연구 활성화 시급

국내 절도범이 일본 효고(兵庫)현 가쿠린지(鶴林寺)에서 훔쳐 반입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도의 반환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법의 '선의취득' 조항을 들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절도범이 반입한 아미타삼존도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130여점. 대부분이 일본에 있으며 한국에는 10여점만이 남아있다. 국보 제218호 아미타삼존도(리움박물관 소장), 보물 제1048호 지장시왕도(호림박물관 소장) 등이 대표적이다. 고려불화는 정교하고 치밀한 묘사, 완성도 높은 구도와 장엄한 분위기로 세계적인 미술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1991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한 점이 176만 달러에 팔렸을 정도. 절도범이 반입한 고려불화 아미타삼존도 역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수작이다.

일본 측은 도난당한 아미타삼존도를 되찾아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월 10일 가쿠린지의 특사로 정광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데 이어, 시게마츠 스님(대흥방 주지)이 천태종 특사 자격으로 11월 25일 방한해 도난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가쿠린지와 한국과의 역사적 친밀성을 강조하며 아미타삼존도가 약탈문화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반환 불가 여론을 삭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가쿠린지 측은 아미타삼존도가 1477년과 1700년, 1938년 등 3차례에 걸쳐 수리됐다는 기록을 근거로 "임진왜란(1592년) 훨씬 이전에 우호적으로 도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미타삼존도는 국내 반입 후 4~5차례 주인이 바뀐 끝에, 최종 구매자가 대구 어느 사찰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기증받은 사찰은 도난당했다고 주장,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홍훈 부장검사는 "불화를 보관중인 사람이 정상물품으로 알고 있었다면 '선의취득'의 원칙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협약(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경우 회수 및 반환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요청국은 선의의 매수인이나 문화재의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리만으로 사건을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고려불화 권위자인 동국대 정우택 교수는 "선의의 취득 규정만을 적용해 돌려주지 않는다면 해외소장자가 앞으로 문화재 공개를 기피해 연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한일 문화재 교류가 불가능해짐은 물론,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오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검찰이 문화재청, 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불화 처리 방안을 의논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안이 더욱 중요한 까닭은 일본이 한국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공식 확인한 일본 소재 문화재만도 3만4천여 점으로, 1만7천여 점의 미국, 7천여 점의 영국보다 훨씬 많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약탈해간 것으로 앞으로 환수돼야 할 문화재이므로 한 · 일간 문화재 분쟁은 잦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손에 들어온 문화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보다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문화재 환수 어떻게 되고 있나

해외에 있는 문화재의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은 7만4천여 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박물관(미술관)에 전시된 것만 계산에 포함한 것으로, 수장고에 방치돼있거나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들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있는 문화재가 20만 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를 돌려받는 방법은 기증, 구매 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5천여 점에 불과하다. 1994년 9월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고속철도'를 계기로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10년이 지나고 고속철도가 달리고 있는 지금까지도 반환은커녕 고문서 반환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만 봐도 문화재 반환이 녹녹하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절도범이 반입한 '아미타삼존도'. 반환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문화재 환수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는 외교통상부.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문화재 분포 실태와 문화재 반환을 위한 외교 협상사례 분석 등을 담아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를 찾아>라는 책을 펴낸 문화관광부 문화비전추진연구단의 조부근 과장은 "문화재 환수 협상은 고난도의 게임인데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 기관(부서) 신설 그리고 연구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일제 때 일본은 경찰을 동원해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반출했다"며 "1천400여점만을 반환키로 한 1965년 한일협정은 분명 불평등 협정인 만큼 바로잡아야한다"며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조 과장은 강조했다.

박익순 · 이은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5>

지식과 상(相)

종교는 몇 천 년의 역사를 가진다. 반면 근대 생명과학의 역사는 수백 년도 채 되지 못한다. 더욱이 물리나 화학보다 단순한 서술식 학문인 생물학의 역사는 몇 십 년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왓슨과 클릭에 의해서 기본적인 핵산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생겨난 분자생물학의 덕분이다. 어쨌든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한 지식의 축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영역의 확대 역시 눈부신 것은 사실이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무렵 그 당시 생물학적 지식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우생학이란 것이 첨단과학이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란 좋은 자질을 지닌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식의 지극히 간단한 당시의 첨단 유전학적 지식에 의거한 관점이었다.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열등한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출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고가 대두됐던 것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견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잘 연결되면서 히틀러 정권은 그 시대에 잘 나가는 과학자의 견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종 소탕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사람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동물

정보 · 지식 시대따라 변하는 게 당연

한편 상대성이론을 발표하여 물리학계의 천재로 인정된 아인쉬타인에게 당시 들어왔던 제안을 지금 살펴보면 참 우스운 것들도 많다. 이스라엘의 대통령 자리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게 한다. 천재 학자라고 정치를 잘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는 왜 그러한 이야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사람은 생각하는 주체로서 스스로 의미(相)를 부여하는 동물이다. 만들어진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재생산하면서 연쇄적으로 퍼져 나아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부여한 의미의 의미도 모른 채 그것에 휩쓸리어 그 안에 갇혀 스스로 옭아매는 경우가 많다.

생명체는 주위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 만의 내부 세계(internal images. 우리가 지닌 사상四相)를 형성하고, 외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는 그러한 자신의 내부 세계를 통과하여 여과된 형태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과학적 지식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요즈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뜨거운 생명윤리나 혹은 개인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지닌 이러한 속성에 대하여 심사숙고 없이 그저 표면적으로 보고 들리는 것에만 의거함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또 다시 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게 된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생명의학의 지식도 변화한다.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생명의학이라면 지금의 지식만으로 우리 삶을 규정하는 판단을 성급히 내려 행동한다면 위의 우스꽝스런 예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유행하고 잘 나아가는 각종 이미지(相)에 대해 현혹되거나 부화뇌동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 주인 됨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안목을 지닌 불자로서의 몫이 아닐까 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인터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1호 명예박사 팡리티엔 중국인민대 교수



"중국불교는 인간불교를 지향해요"

"대승불교 두 번째 모국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중국은 21세기를 맞아 인간불교로 나아가려 합니다."

12월 1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명예불교학박사학위를 받은 중국인민대학교 팡리티엔(方立天) 교수는 미래의 중국불교는 '인간불교'가 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팡리티엔 교수는 "인간불교란 인간과 현실사회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불교윤리로서 정화하며 인간의 도덕적 소양을 높이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전통문화 육성 차원에서 불교 중흥책을 펴고 있다"며 "선학 관련 업적이 탁월한 한국과 학술 · 인적교류 및 성지순례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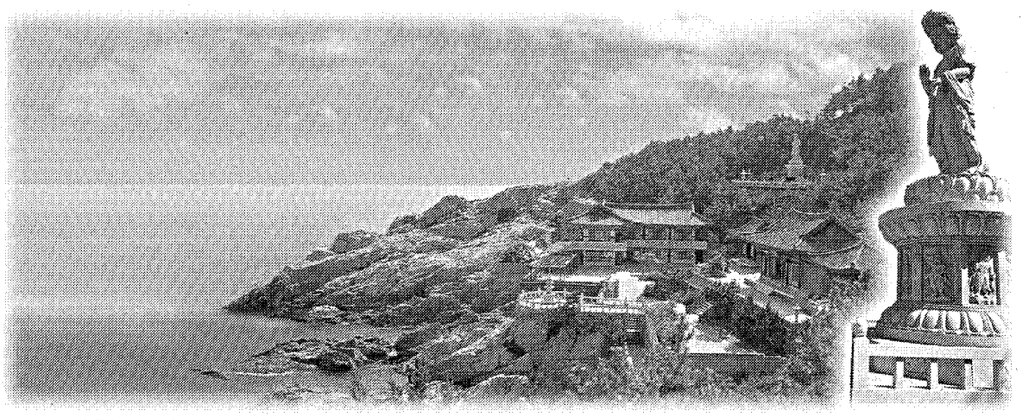
연구 계획에 대해 그는 "유불도와 국가의 관계, 중국전통문화 분석, 불교와 당대사회와의 관계를 밝히는 한편 불교의 범주 개념을 파내서 현대사회에 적용함으로써 현대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팡리티엔교수는

1933년 저지앙성 태생. 중국불교사와 중국철학사의 권위자로 꼽힌다. 저서로 <위진남북조불교논총> <불교철학> <중국불교철학요의> 등이 있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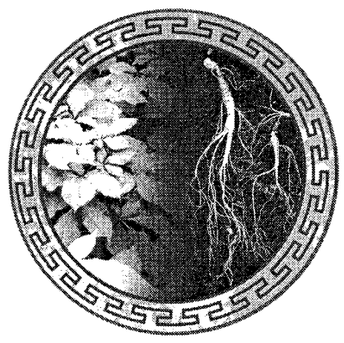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광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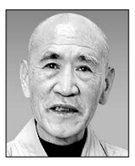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47-9114
㈜현풍F&B HYUN PUNG F&B CO.,LTD.

일주문



'노년기 사회…' 주제 특강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노년기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해 12월 9일 오후 2시 조계사 교육관 2층 2강의실에서 특강한다. (02)737-8803



혜룡불교작법 수강생 모집

혜룡불교작법 전수원장 혜우 스님이 불교 전통의식 작법(바라춤, 나비춤)과 예경의식을 교육할 혜룡불교작법 전수원 수강생을 모집한다. (062)515-7749



신규 조교 100명에게 수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도업 스님은 11월 24일 정각원 법당에서 신규 조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신행교육과 수계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 만남' 송년법회

서울 성북구 불교사암련 회장 정수 스님은 12월 10일 오후 6시 종암동 동방웨딩문화원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美 동부 주요 대학과 연구소 방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실장 현원 스님은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동부 주요 명문 대학과 연구소 등 7곳을 방문하고 학술교류를 논의한다.

"회원 늘리며 지성불교 확산에 노력"

교수불자연합회 새 회장 김용표 교수



교수불자들은 보살도 실천의 원력을 세우고 종단은 물론 지역과 대학 안에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불자연합회는 교수불자들의 그런 활동을 이끌어내고 전 사회로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11월 27일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 제 11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표 동국대 교수(불교학과 · 사진). 김 교수는 교수불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김 교수는 "1988년에 창립된 이래 16년이 흘렀지만 교불련 회원은 500여명인데, 전국의 5만여 명 교수 가운데 불자가 1%밖에 안 되겠느냐"고 되묻고 "교수불자들의 교불련 회원 가입 유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정난 극복 · 사무국 강화
퇴임교수도 참여시킬 터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각 대학에서 활발하게 신행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수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교불련 임원으로 영입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포교사 자격을 부여하여 본격적인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과 상당히 논의가 진척됐다고.

취임 후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재정난 타개와 사무국 정비를 꼽은 김 교수는 "회비 납부 유도와 후원자 물색을 통해 재정난을 해결하는 한편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퇴임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현행 전임강사와 교수로 자격요건이 제한돼 있는 정관을 개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용표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제원효학회 원효전서영역연구실장,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 편집위원장,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 부회장, 아시아-태평양 교수불자연합 부회장,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 한국불교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능인선원 신도 1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에서 봉행된 '대학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법회'. 사진=박재완 기자

능인선원 '대학건립 위한 백만불 봉안법회'

11월 27일, 1만여명 동참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11월 27일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 · 주지 영조 스님, 불암사 회주 일면 스님, 민주당 한화갑 국회의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김세호 건교부 차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건립을 위한 백만불 봉안 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했다.

이날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20년간 흘러온 선원의 역사에는 신도들의 기도, 원력, 신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며 "이렇게 결집된 힘으로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건립하려는 불교대학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 3부에 걸쳐 진행된 이번 법회는 서울 대원여고 고적대 연주를 비롯해 능인선원 정법사, 현법사단의 옴자 만들기 퍼레이드, 능인장과 금강회의 태극권 마스게임, 지역대항 축하 응원전 등으로 진행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제 2회 민족화해상 수상

평불협회장 법타 스님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 · 사진)이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경향신문이 시상하는 제 2회 민족화해상을 받는다.

민화협은 11월 30일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족화해상 개인부문에 법타 스님, 단체부문에 (사)남북어린이 어깨동무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강사료 전액 불우이웃성금 기탁

구미 영명사 지범 스님



구미 영명사 주지 지범 스님(사진)이 11월 22일 선산읍사무소를 방문, 불우이웃 8가구의 병 치료비와 생계지원금을 위해 써달라며 341만5200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지범 스님이 시민복지회관 요가교실의 강사료를 1년간 모은것. 이 성금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6가구에 각각 50만원씩과 소년소녀가장들의 생계보조비로 지급됐다.

세계 변화 따른 활동 기반 마련

국제포교사회 새 회장 김봉래 기자



"국제포교사회가 세계의 변화에 발맞춰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제 4대 회장에 김봉래 기자(불교방송 보도부 차장 · 사진)가 11월 27일 열린 2004년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에서 36명의 재적회원 중 35명의 찬성표를 얻어 선출됐다.

"96년 국제포교사 시험을 칠 때만 해도 영어공부와 불교공부를 다시 하겠다는 자기 계발 목적이 강했지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보니 불교계에서 국제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 회장은 미8군 법회, 외국인 노동자 행사를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176명에 이르는 국제포교사들의 능력 배양 프로그램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국제포교사회 자체 연수와 영어 설법 스터디를 강화하겠다"는 김봉래 회장은 "외국어 능력 배양에만 치우쳤던 국제포교사들에게 신심을 키우고 불교적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선 등의 수행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강진 기자

■노작 · 동서 문학상 詩 부문 수상 문태준 PD

"자연 · 인간 공생관계서 자비 찾아"



"불심이 시심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는 마음으로 시작(詩作)에 임하겠습니다."

노작문학위원회(위원장 홍신선)와 동서문학사(대표 전숙희)가 주관하는 제 4회 노작문학상과 제 17회 동서문학상 시부문 수상자로 동시에 선정된 시인 문태준 PD(35 · 불교방송 · 사진). 문 PD의 수상작은 '어두워지는 순간' 외 3편과 작년에 펴낸 시집 <맨발>이다.

그의 시는 "농촌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와 존재를 표현하면서 불교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태준 PD는 내년 시집 <느림(가제)>을 출간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혜자 스님 유네스코 국제은관문화상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 사진)은 12월 2일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열린 국제 평화 · 인권 · 문화 · 예술상 시상식에서 '국제은관문화상'을 받았다. 유네스코와 국제평화지도자연합은 혜자 스님이 한국과 캄보디아의 불교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도선사는 2005년 캄보디아 왓라지보 사원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정목 스님 불교방송 MC 복귀



불교방송 개국당시 스님 MC 1호로 인기를 끌었던 정목 스님(사진)이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불교방송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매주 월~토 밤10:05~10:55)의 진행자로 방송에 복귀한다. 1995년,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방송을 떠났던 정목 스님은 당시 한국방송대상 사회상 및 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주는 사회상을 수상해 종교를 초월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은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능성음악 및 뉴에이지 음악과 월드 뮤직으로 엮어진다. 조용수 기자

소보원 한승호 팀장 대통령상



한국소비자보호원법우회 한승호(47 · 사진) 거래조사국 서비스조사팀장이 12월 3일 '제 9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법우회 창립멤버로 제 1대 부회장을 역임한 한승호 팀장은 분쟁조정국 교육연수국 소비자안전국 등에서 근무하며 소비자보호 업무 발전과 지방소비자 보호를 위해 진력해 왔다. 특히 소비자안전국에서 위해정보제도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제도의 발전에 공헌했다.

김은경 기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회제의 신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 페이지 / 정가 50,000원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周易의 神秘 육효학 핵심비결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육효학은 음과 양 二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응용하여 우리생활에 적절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점서(占書)로서는 가장 적중률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이는 물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이는 보배 중 보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송월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 을 사고 주식 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述編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就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흉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불자 세상보기

이 문 재
시인

'신고려장' 누구 책임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중학교까지는 고향에서 다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대처로 나가, 서울에서 대학 졸업장을 받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다. 든든한 직장을 잡고, 서른 살이 넘기 전에 결혼해 아이는 둘만 낳고, 월급의 일부를 차곡차곡 모아 삼십대 중반에 집 한 칸 장만하면 그럭저럭 중류층의 삶을 사는 줄 알았다.

내 삶은 이 땅의 산업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나 1980년대 중반 대학을 나오는 즉시 사회에 진출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 딸 하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월급을 모아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결혼 10년만에 서울 변두리에 있는 25평 형 아파트 한 채를 구했으니, 나는 '40대 평균인'에 해당한다. 물론 고향은 시골이고, 부모님께서 마지막까지 고향집을 지키다 돌아가셨다.

이농향도나 핵가족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압축 발전'이라고 불리는 가파른 산업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늙으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였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고향집으로 달려갈 때마다 산업화의 비인간성을 절감했다. 연로하신 부모님를 모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산업화 정책이었는데도 국가는 잘난 체만 했다. 국가는 연간 수출 증가액이나 국민소득을 내세울 뿐, 가족의 해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단절은 전적으로 그 부모와 자식의 문제로 환원되었다.

노인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려다 들통이 나자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치매에 걸린 부모들이 유기되는 경우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노인들이 유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디 노인들뿐이랴. 이혼이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어린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산업화가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의 성과를 구가하고 있는 국가는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그늘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버려지는 노인과 어린이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깊고 큰 그늘이다. 노인을 버리는 자식, 어린이들 버리는 젊은 부모들을 탓하기는 쉽다. 하지만 비난은 비난에서 그칠 때가 많다. 비난이 비판으로, 비판이 대안으로 이어지려면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것을 공유해야 한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를 추진해온 근본 동력은 경제 논리였다. 노인을 버리는 자식이나 어린 자식을 버리는 젊은 부모들을 패륜으로 몰고가는 것은 대부분 '돈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신(新) 고려장'에 대해 나는 함부로 입을 열기가 힘들다. 신 고려장이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모아 놓은 재산이 없는 노인,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 세금조차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 학비를 대기 힘든 청소년들…. 세계화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예견했던 '20 대 80의 사회'(직장을 가진 20%와 직장이 없는 80%로 이루어진 사회)가 눈앞에 있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사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국가가 나서야 한다. 가족의 희생을 요구한 국가가 노인과 어린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고려장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최근 들어 노인분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있다. 이 참에 노인분들께 감히 당부하고자 한다.

부디 구시대적인 색깔논쟁, 보혁논쟁을 접고, 노인 복지 대책에 초점을 맞춰 주었으면 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정부를 닦달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 사회 전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숭산 스님의 원력 이어가자

불교계의 큰 별 숭산 스님이 입적했다. 고봉 선사를 통해 전해 온 임제종의 법맥을 전해받은 조사로서 국제 포교에 다른 이가 이룰 수 없는 큰 족적을 남기시더니, 그 발자국을 거두고는 그렇게 여여하게 가셨다. 세상에 많고 많은 눈 푸른 선지식이 있겠지만 숭산 스님처럼 그 깨달음의 빛을 온 세계에 펼치신 분도 드물기에, 우리는 그 큰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가신 뒤의 빈 자리를 크게 느낀다.

그러나 숭산 스님의 가신 빈자리는 오히려 충만한 빈자리다. 정말 이름 그대로 눈푸른 납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텅빈 충만함을 이룬 숭산 스님의 생애는 깨달음이 한갓 머물러 안주하는 자리가 아님을 보여준 생생한 증언이요,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더 없이 높아진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그 분의 가르침을 이은 한 눈푸른 납자는 한국불교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오로지 한국에서만 큰소리치는 이유를 "한국 스님들은 너무 높아요!"라는 한마디로 갈파했다. 이 말은 숭산 스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외국인들 속으로 파고 들으셨던 그 족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외국 생활의 밑바닥부터 체험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전했던 스승의 자취를 드러내 주는 이 한마디는 우리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큰 시사를 주는 말이다.

단순히 국제 포교에 한정된 말이 아니다. 숭산 스님의 입적을 계기로 한국불교는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고 외치는 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임을 새겨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숭산 스님은 쉴없는 국제 포교를 통해서 입증한 것일 따름이다.

스님께서는 "다 걱정하지 마라! 만고광명(萬古光明)이 청산유수(靑山流水)니라"라는 송을 남기셨다지만, 우리는 새김없는 새김으로 스님의 큰 부촉을 읽어야 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가 물결을 타는 이 즈음을 맞아 보이신 원적 또한 우리들에게 말없는 부촉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그 부촉을 새삼 무겁게 받드는 마음으로 숭산 스님의 깨달음과 업적을 기린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쉽게 사는 인생

"어떤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 악행을 하고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마치 돼지가 항상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곳에 누워 있으면서 다른 돼지 앞에서 뽐내는 것과 같으니라." 〈증일아함경〉

"감명깊게 읽은 책이 뭡니까?" "여성잡지요."

한 국책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이 '어이없는 대답'의 주인공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모든 이들이 선호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한 유력인사로부터 "아들내미 합격시켜라"는 인사청탁을 받은 이 은행의 인사부장은, 면접도 보지 않고 집에 가버린 '귀한' 핏줄 자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면접 행차까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층 취업청탁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모 국책은행의 경우 신입직원 50%가 고위 공무원 출신 자제라는 소문, 이들 중 몇몇은 채용공고가 나기 전부터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부모 잘 만난 덕에 난세(亂世)의 모진 바람에도 호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이들에겐 난관을 뚫고 목표에 골인하는 희열 따윈 중요치 않다. 오직 눈부신 결과만 갈구할 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쉽게 사는 인생'을 닮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을 부정으로 치른 학생들에겐 다른 이유가 없었다. 명문대를 나와야 세상살이가 쉬워진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잘 살 수 있는 한 방편이었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 강신재(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東大 일산병원 명칭

동국대 이사회는 11월 29일 2005년 상반기 불교병원 개원을 앞둔 일산 병원의 명칭을 '동국대학교병원 · 한방병원'으로 결정했다. 병원이름에서 '불교'를 뺀 것에 대해 개원 초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과 불교병원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다.

위상 · 대외 친화력 감안한 것

그 동안 병원명칭과 관련해서는 2002년 개원준비 당시부터 수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내용은 불교계 기간병원이라는 정체성 문제와 지역주민이나 일반인들의 정서나 선호를 고려하여 '불교'라는 대외적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병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불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병원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거치기도 했다. 설문결과 지역주민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동국대학교 병원'에 대한 선호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불자들 역시 중립적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운영주체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운영주체에서는 불교계 기간병원으로의 위상, 동국대학교 의료사업 부문 중심병원으로의 위상, 고객 관점에서의 시장친화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다각도로 감안해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을 두기로 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사회 논의과정에서 현재 정관상 명칭인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라는 명칭을 '동국대학교 불교의료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일단 '동국대학교 병원 · 한방병원'으로 하자는 내용을 의결했다.

결론적으로 불교계 기간병원으로의 위상을 상징하는 '동국대 불교의료원'이라는 명칭결정은 차기의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불교병원의 명칭은 불교계 기간병원으로의 위상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외적인 친화도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병원명칭 결정에 있어서 불교병원의 정체성이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김지형(동국대학교 병원 개원추진단 기획팀장)

정체성 잃을까 걱정된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일산불교병원의 명칭변경 소식을 전해 들었다. 불자들의 염원이던 불교계 종합병원의 개원을 위해 선뜻 모금에 참여했던 불자로서 여간 당혹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동국대 관계자들이 2002년 준공을 마쳤지만 자금난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가슴아파했던 불자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교'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라면 왜 일반인들이나 동국대 동창들이 아니라 불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모금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경기에 시작해야 하는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을 떠올릴 때마다 기독교인인 세브란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연세대 병원이나 가톨릭대의 성모병원과 견주게 되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듯하다. 또 일산불교병원의 개원으로 불교계에서도 번듯한 종합병원이 생긴다며 기뻐했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주변의 스님들도, 몸이 아파도 불교 병원이 없어 기독교 관련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스님들의 이야기나, 기독교인들의 손을 잡고 임종을 맞는 수많은 불자들을 생각하며 일산불교병원 개원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물론 '불교'를 뺀다고 해서 그 병원이 불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동국대학교의 병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명칭을 통해 병원의 정체성과 이상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원이름에서 비록 불교는 빠졌지만 불교의 참뜻을 전하고 종교적 구원을 이루는 동국대 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홍 스님(서울 아산병원 지도법사)

'현대' 만평 심 민 섭



신간

禪 너는 누구나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 초청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禪 너는 누구냐』

선 수행 현장에서 실참실수하고 있는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이 일러주는
'참선, 어떻게 할 것인가'



■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 –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봉화 축서사 주지) –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보은 법주사 총지선원장) –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前 조계종 기초선원장)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웅 스님(美 버클리 육조사 주지) –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선덕) –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수좌) –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여시아문



“작은것도 함께 나누며 살래요”

‘나눔의 손잡기’ 성금 1차 회향
종립학교 학생 72명 산사체험
장학금 총 2700여만원 전달



현대불교신문 제1회 나눔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 · 경기 12개 종립학교 학생 72명의 모습.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제식.


현대불교 위영란 부국장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종립학교 학생들이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산사체험을 통해 새롭게 느껴져서 참 좋아요.”

11월 27일, 강화도 전등사(주지 계성) 저녁예불에 참석한 72여명의 불교 종립 중 · 고등학생들이 신선한 산사체험 소감을 털어놓는다.

이날 행사는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김광삼)이 올 1년 동안 벌인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조성한 ‘나눔 장학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종립 중 · 고등학생들에게 불교를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자리다. 동대부중 · 고, 명성여중 · 고, 진선여중 · 고, 광동중 · 고, 광동여고, 청담중 · 정보통신고, 영석고 등 12개 종립학교에서 총 72명의 학생들과 15명의 교법사, 심학교사, 지도교사가 참석했다.

입제식에서 “사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던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이 좌중을 둘러보다 저린 발을 주무르던 막내 다희(14 · 명성여중 1)에게 말을 건넨다.

“다리를 쭉 폈다가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위에 올리고 앞으로 숙여봐. 아직도 발이 저리니?”

“어? 스님,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다희는 마냥 신기하기만 한 모양이다.

레크리에이션과 강의가 준비된 ‘강화월드’로 장소를 옮기기 위해 어둑해진 산길을 내려가던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좋은 벗을 많이 사귀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좋은 벗 ‘선우’입니다. 지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김범준 대원정사 상임법사의 힘찬 불교 강의가 친구들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오후 8시, 아이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성훈 선재 이벤트 실장이 무대로 올랐다. 이성훈 실장은 학교별로 모여 앉았던 자리를 뒤섞어 버렸다. 그러나 어색함을 바꾸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첫 게임은 먼저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 ‘빙고’를 외치는 게임.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다음은 풍선돌리기. 음악이 나오는 동안 풍선을 돌리다가 멈추는 순간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하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벌칙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당당해졌다. 일부러 벌칙을 받는 경우도 생겨났다. 실력을 뽐내고 싶은 모양이다. 레크리에이션은 당초 1시간 30분의 예정시간을 넘어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이튿날인 11월 28일 강화월드의 대강당에서 제1회 ‘나눔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서울 · 경기지역 12개 종립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72명의 학생에게 2700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는 시간이다. 장학금은 불교계 곳곳에 배포된 7천여 개의 ‘나눔의 저금통’을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마련됐다.

장학금 전달자로 나선 현대불교신문사 위영란 편집국 부국장은 “나눔의 장학금을 받는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량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교법사단 김형중단장(동대부고)은 “이번 행사는 종립학교에 다니면서도 피상적으로 불교를 접했던 학생들에게 불교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보시의 가르침을 피부로 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조계종 종립학교가 진각종 진선여중 · 고, 의정부 영석고와 함께 참가한 첫행사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민선현(광동여고 2)양은 “많은 불자들이 준 나눔의 마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조그만 것도 함께 나누면서 살래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했다.

김원우 · 고영배 · 박봉영 · 김은경 기자

“김장김치 나눠드려요”

조계사 ·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 보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정신은 부처님의 마음이자, 우리의 마음입니다.”

12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장김치를 담는 200여명의 봉사자들로 발 딛을 틈이 없었다. 바로 조계사 총무국장 지월 스님을 비롯해 사중스님들이 조계사 신도회원들과 함께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벌이는 현장. 새벽 6시부터 시작된 김장은 점심 무렵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장갑과 앞치마, 두건으로 무장한 봉사자들의 얼굴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밝기만 했다.

“며칠 전부터 배추를 다듬고 절이는 작업에 들어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 김치로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양식을 마련한다 생각하니 힘이 불끈 솟아오르네요.” (이연숙 · 신도회장)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의 후원과 신도들의 자원봉사로 의미가 더욱 깊었다.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종로지점에서 배추 1000포기와 10kg 쌀 150포기를 후원하고, 불자직원들을 중심으로 20명의 직원들이 이날 김장을 도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1000포기는 쌀과 함께 개별 포장돼 종로구청에 위탁,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쪽방생활자들에게 12월 10일 전달될 계획이다. (02)732-2115

이 같은 나눔의 손길은 조계사뿐만이 아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신길종합복지관, 한솔종합복지관, 강릉종합복지관, 서울노인종합복지관, 경주장애인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단체들은 각각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지체장애인 등의 겨울나기를 위해 다양한 나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조계사 사중스님들과 신도들이 2일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김은경 기자

‘나눔의 손잡기’ 사회복지언론인상 수상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 선정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이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총)는 11월 27,28일 경주 하일라 콘도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 화명복지관 관장 유정 스님, 부산시 사회복지과 석희윤과장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복지사업의 발전과 대국민 홍보에 기여한 언론사에 시상하는 ‘2004 사회복지언론인상’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 캠페인으로 자비의 실천을 이끌어낸 현대불교신문사의 나눔의 손잡기’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열린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제 6차 연수회에는 개금복지관, 화명종합복지관, 용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2개 기관에서 불교 복지에 종사하는 200여명이 모여 복지발전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 혜총 스님이 현대불교 서정만 이사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연수회는 석희윤 부산시 사회복지과장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부산시의 노인복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 참가자 전원이 참가하는 레크리에이션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됐다. 천미희 기자

▌도와주세요

골수이형증 앓는 새봄이



골수이형증(골수조혈모세포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인 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여고생 이새봄(16 · 사진). 급성백혈병으로 진전되는 혈액질환을 앓으면서 학교도 휴학했다. 집중적인 관찰치료가 필요한 새봄이는 현재 한양대 병원 무균실에 누워있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 동생과 15평 임대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새봄이가 아프기 전까지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이었다. 올해 8월 새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난은, 가족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봄이 아빠의 자영업의 실패로 부채를 진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병원비 1500만원도 사채를 빌려 해결했기 때문이다.

골수이식수술을 하면 새봄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막노동하는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02) 734-8050 생명나눔실천본부 김원우 기자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 · 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살림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손잡기 성금

이현이 –5만원
이제권 –5만원
원혜경 –2만원
광명불교학생회 – 33만7천840원

총 누적금액 28,303,500원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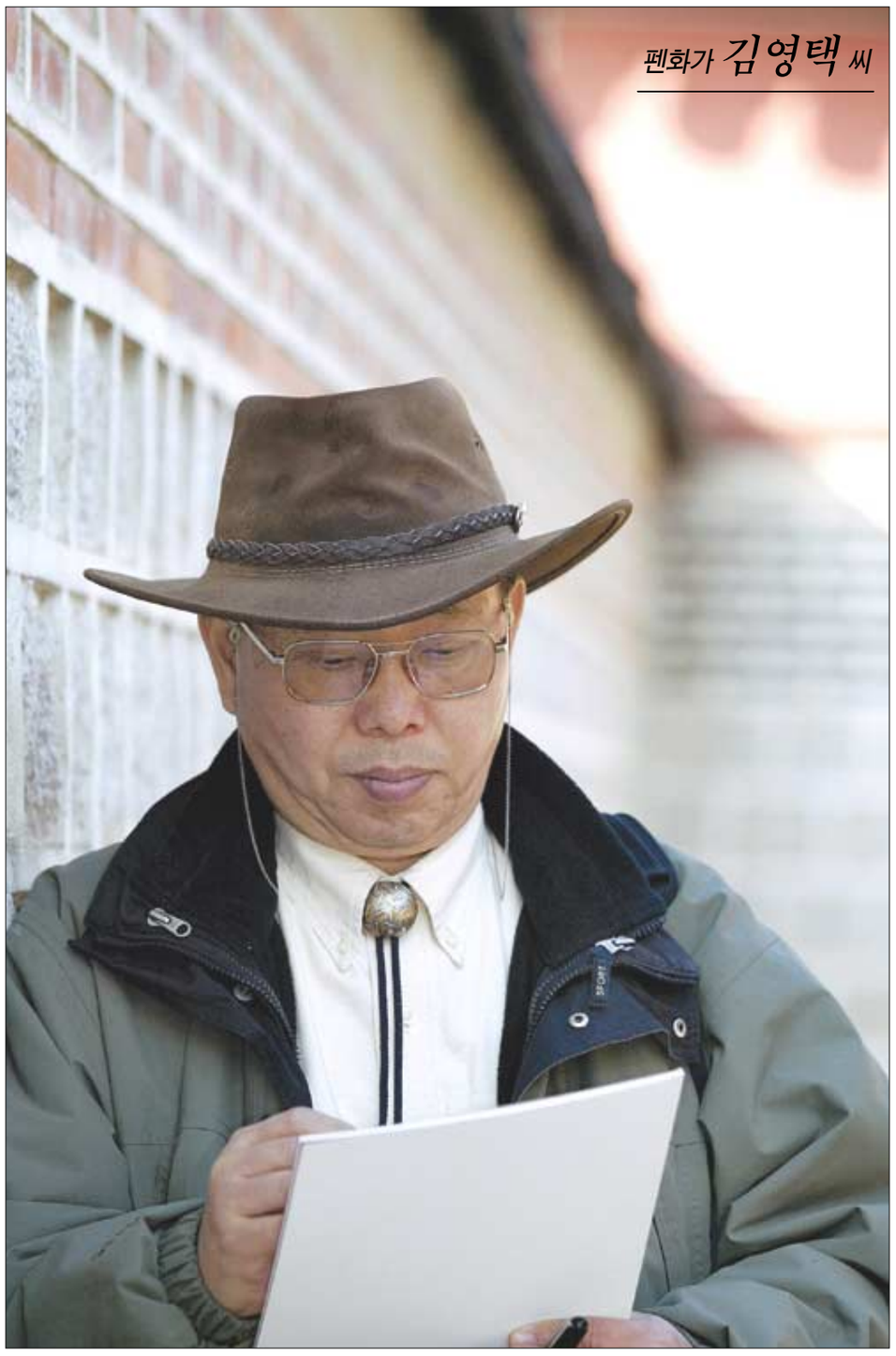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산문밖의 선

탁발승 처럼 떠돌며 사경하듯 그림 수행



내 자신을 끊임없이 버리는 '무아의 경지' 만이 사물의 진면목을 화판에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펜화가 김영택 씨.

디자이너에서 문화재 펜화가로 10년째
펜 굵기로 원근감 표현…한국화 새기법 평
"무색무취의 경지만이 진면목 옮길수있죠"

"내 자신이 무색무취의 경지에 있을 때만이 진정 다른 사물의 본래 모습을 화판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고정관념이나 뚜렷한 색채를 마음 속에 지니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 색채로 밖에는 사물을 표현할 수 없지요. 마음먹는 다고 '나' 라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기 위해 펜을 들기 전 명상을 합니다."

탁발승처럼 전국을 돌며 사찰 건축은 물론 정자, 석탑, 나무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펜화로 옮기는 김영택씨(60).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수행 방편으로 사경(寫經) 하듯이 그는 온 마음을 곧추세워 펜 끝에 자신을 몰입한다. 자신이 그리는 그 대상물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10여년동안 김영택씨는 통도사, 쌍봉사, 봉암사 일주문, 합천 영암사지, 장성 백양사 범종각 등 50여 사찰의 불교 전통 건축물을 펜화로 옮겼다.

그는 "펜화는 사진과 달리 건축물 주변에 설치된 인위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 대상이 주는 감동을 제대로 효과있게 전할 수 있다"며 "펜화에서 가장 표현하기 힘든게 원근감인데 그것은 펜의 굵기로 조정 한다"고 펜화의 특성을 설명한다.

김씨의 그림은 특히 먹물펜의 굵고 가는 선과 망점을 연상시키는 끊는 선 처리로 대상을 세밀하게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 세밀하기에 얼핏 보면 그의 그림에는 삼베의 성성한 느낌이 전해진다. 한뜸 한뜸 바느질 하듯 그려 나간 나무와 숲에서는 자연의 기(氣)를 그대로 화폭에 담아낸 것 같다.

사진이 놓칠 수 있는 대상의 기운까지 응축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펜화를 두고 화단에서는 한국 산수화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칭찬한다.

펜화라는 신 장르를 개척한 그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잘나가던' 광고 디자이너 였다. 홍익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광고디자인 회사를 차린 그는 1993년 '디자인 대사'란 칭호를 받으며, 세계 48명 디자이너중의 하나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때 우연히 방문한 파리에서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았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캘린더 엽서 등 기념품 가게의 상품 절반 정도가 펜화인 것을 발견하고 펜화를 통해 우리 문화재를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습니다."

어찌보면 디자이너로서 최정상에 있었지만 강렬한 욕구로 다가오는 펜화에 대한 열정앞에선 명성도 무의미했다. 펜화를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50이었다.

그 때부터 줄곧 10여년 동안 주말이면 매주 주말, 화구를 꾸려 심야버스를 타고 사찰과 문화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 나섰다. 특별히 어디를 먼저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라 발길 닿는대로 인연의 끈대로 움직였다. 역력히 그의 모습은 '그림 수행'을 하며 떠돌아 다니는 탁발 화가였다. 하루 18시간을 그림에 몰두하며 씨름했다.

현재까지 130점을 완성했지만 고즈넉하고 정숙한 분위기 탓인지 그래도 그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펜을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사찰을 꼽는다. 이제는 하도 돌아다녀 절집이 자기집보다 더 편하다고 한다. 그중 불보종찰 통도사에서는 1년이상을 산내암자에 기거하며 대웅전과 불이문 등 15개의 전각을 그렸다.

뿐만 아니다. 그의 펜 끝에서 섬세하게 다시 태어난 우리 절집과 정자, 서원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채 그 자체로 화판위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흑과 백, 곡선과 직선, 길고 짧은 선의 굵기로 자연과 감정이 고스란히 그의 그림속에 녹아 있다.

처음에는 사찰과 우리 문화재가 좋아 그저 스케치 정도에 그쳤는데 그리면 그릴 수록 주변과의 조화가 눈에 들어 왔다. 그 정점이 바로 경북 문경 봉암사 일주문이다. 계곡물과 바위, 나무들을 배경으로 오롯이 서 있는 일주문은 소박하면서도 품위가 느껴진다.

청송 방호정, 영동 강선대, 담양 소쇄원 등의 작품은 정자 건축의 아름다움과 함께 주변 경관을 절묘하게 묘사했다.


김영택 씨의 작품 '문경 봉암사 일주문'.

이렇듯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과 자연과의 절묘한 조화에 매료돼 기록화로 남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우리 건축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흔쾌히 '무아(無我)의 미'라고 대답한다.

"우리나라의 백자나 청자에 작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100% 가짜입니다. 그 시대의 도공들은 작가가 아닌 생활인으로서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건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건축가들은 훨저한 장인 정신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우리나라 고건축가들은 훨저히 내가 배제된 '무아의 미'를 강조했습니다."

그 '무아의 미'를 그대로 담으려 노력하다보니 그의 그림을 마주대하면 마음이 차분해 지고 '선(禪)'을 떠올리게 하는 편안함이 전해진다. 가는 펜으로도 먹의 농담을 살아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20년은 더 그릴 생각입니다. 1년동안 20여점을 그린다면 20년이면 500여점 정도는 더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창작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그는 또 오늘 화구를 급히 꾸려 우리 문화재를 친견(?)하러 길을 나선다.

현재 지방 순회전중인 김영택씨의 그림을 만나려면 12월 10일까지는 서울 기업은행 본점, 19일까지는 부산 현대백화점 갤러리를 찾으면 된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5>



관상염불

칭명염불(稱名念佛)은 공(空)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치를 따라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배가 행합니다. 그러나 하배라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염불하면 염불삼매를 얻고 그 가운데서 부처의 몸(佛身) 혹은 32상(相) 80수형호(隨形好: 80종호), 혹은 육도중생의 모습을 봅니다.

염불삼매 가운데서 보는 것은 비록 육도의 차별된 모습(分際相)이지만 모두 응신 혹은 화신입니다. 응신과 화신을 함께 말하여 응화신(應化身)이라 부릅니다. 응화신이 출현하는 현상은 모두 염불하는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상염불(觀相念佛)은 지관(止觀)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법이며, 고요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정선문(定善門)입니다. 관상염불은 반드시 공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관(空觀)이 확립되고 순리발심(順理發心)하여야 지관으로 보신불의 경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염불은보신불의 경계를 깊이 관찰함으로써 관불삼매(觀佛三昧)를 성취하고 법신(法身)의 경계를 감득하여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를 증득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러한 때문에 관상염불을 염불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상'의 관이란 생각을 쉬고 마음을 모아 일정한 경계를 응시하여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相)이란 관할 법입니다. 관상염불에서 관할 법은 "아미타"입니다. 아미타는 정토의 경계(相)인 의보(依報)와 정보(正報)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보는 자연의 청정광명이며, 정보는 생명의 청정광명입니다. 의보를 관함은 자연의 별상과 총상을 관찰하는 것이요, 정보를 관함은 화신(化身: 응신)과 보신(報身)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공에 대한 이해가 투철하여 이치를 알고 발심한 상배와 중배, 즉 십해(十解) 초발심주 이상의 수행자는 분제상을 여읜 보신불(報身佛)의 경계를 관찰합니다. 관행을 심화하여 관불삼매를 성취하면 그 가운데서 무량한 상호, 무량한 덕상, 무량한 광명을 봅니다.

원효가 말하는 관상염불은 정보 가운데서 보신불의 경계를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연의 청정광명보다 부처의 몸을 중심으로 생명의 청정광명을 관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이해관계가 깊은 생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문에 무엇보다 남녀, 육도중생 등 생명을 마주할 때에 차별상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으로 관찰하도록 합니다.

원효가 관상염불에서 밝힌 중요하고도 명심해야 할 점은 선(禪)이란 지관이며, 이 문에 들어서는 조건은 반드시 공을 투철히 이해하고 발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상염불(염불선)은 순리발심(順理發心)한 수행자라야 가능합니다.

원효는 순리발심에 대하여 "이치를 따라 발심한다는 것은 일체의 법이 모두 환(幻)과 같고 꿈과 같아서 유(有)도 아니고 무(無)도 아니므로 말을 떠나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계임을 믿고 알아, 이 신해(信解)에 의지하여 광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원효의 관상염불은 간단명료하며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독창적인 염불선이요, 순수한 한국불교입니다.

■ 양산 정토원 원장

지관에 의지해 깨달음 성취하는 법
空 깊이 이해하고 발심해야 가능해

"염불소리, 한 옥타브 올려라"

자명 스님이 말하는 高聲 염불 수행법



자명 스님

"왜 고성(高聲)염불입니까?"

"나지막한 소리로 염불하면, 어디 염불이 제대로 됩니까. 높은 소리로 해야지요."

"높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높은 소리입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톤의 소리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 됩니까?"

"고성은 대성(大聲)도 괴성(怪聲)도 아닙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왜 염불소리를 높여야 합니까?"



서울 마하보리사 신도들이 11월 30일 2004년 동안거 입재를 마치고 '50일 고성염불기도'를 하고 있다.

1979년, 서울대 무기재료공학과를 돌연 그만두고 불광사 광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서울 마하보리사 주지 자명 스님. 그간 지리산 벽송사 등의 선방에서 참선정진하다 서울대 · 이화여대 · 포항공대 불교학생회를 지도하며 인터넷 포교활동(www.mahaborisa.com)을 해온 스님은 10년 넘게 '고성염불수행법'을 출 · 재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고성염불이 바쁜 현대인들이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고 믿고 있다. 고성염불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숨겨져 있던 마음속 응어리진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물론, 번뇌 망상에 막힌 본래불성(本來佛性)이 높은 소리를 통해 뚫리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높게 외는 염불소리'에서 '부처의 소리'를 보게 됐다는 자명 스님. 11월 30일, "고성염불을 통해 자성미타(自性彌陀:자성이 곧 아미타불)를 확인했다"는 스님을 서울 마하보리사에서 만났다. (02)889-2133

소리 자체가 수행…묵은 감정 빠져나간후 진리 참구
목탁치며 고성으로 관세음보살 부르면 막힌것 뚫려

▲고성염불수행법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고성염불은 소리를 내고 들으면서 염불하는 수행법입니다. 자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주는 행법이지요. 자기가 지은 스트레스, 욕구, 희망사항 등으로 자기 생각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들을 뚫어주는 것이 고성염불입니다.

▲고성염불의 특징은?

-높은 소리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염불소리를 한 옥타브 올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도 단순하고 쉬운 거라서 특별히 특징이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높은 소리'로 염불하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소리를 높이면 정신이 맑아지고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불은 소리의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고성염불과 다른 염불수행법과의 차이는?

-염불수행법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정토삼부경>이나 아미타불을 쓰고 그리는 '사경(寫經)염불', 부처님의 공덕이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관상(觀想)염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생각하는 '법신(法身)염불', 가장 대중적인 방법인 '칭명염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염불수행법은 마음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반면 고성염불은 오직 소리의 수행법입니다. 소리 자체가 수행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묵은 감정을 빠져나가게 한 뒤, '진리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성염불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새벽예불에 올리는 종성문에는 고성염불의 10가지 공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면이 없어지고(能排睡眠) △천마가 두려워하며(天魔驚怖) △염불소리가 주위에 퍼지고(聲遍十方) △삼악도의 고통이 쉬며(三途息苦) △잡다한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며(外聲不入) △염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念心不散)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며(勇猛精進) △제불이 환희하고(諸佛歡喜) △삼매력이 깊어지고(三昧現前) △정토에 왕생(往生淨土)하는 등 바로 고성염불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염불의 구체적 행법은?

-관세음보살 다섯 글자를 아주 높은 톤의 음으로 염불하면 됩니다. 자신이 직접 일정한 리듬을 마쳐 목탁을 쳐가며 시간을 정해놓고 고성으로 반복합니다. 평상시의 소리보다 높여 염불하다보면, 막혀 있던 것이 뚫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소리의 한계가 없어져 자기만의 염불소리를 찾게 되는 순간이지요. 그렇게 되면, 유리창 깨지는 소리도 거부감 안 들고 좋아집니다. 스스로 고성염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의할 점은?

-수행에서 가장 경계할 큰 병이 고요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즐기면 안 됩니다. 염불 소리를 작게 하고 벽만 보고 참선만 한다면, 백발백중 고요한데 머물러 자기 자신을 보기는커녕 그 고요함에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고성염불은 혼자서 하면 병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고성이 안 되고 대성(大聲)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지 무조건 크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없으면 딴 곳으로 빠집니다. 고성염불의 효과가 너무 쉽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마치 눈감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길을 제대로 알려줘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지극 정성 불러야 합니다.

김철우 기자

큰스님 초청 '법화경' 법문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12월 31일까지 법왕사 대웅전에서 '33인 고승 초청 법화경 설법회'를 봉행한다.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봉행되는 이번 법회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 · 동화사 강주 해월 · 백양사 청량원 주석 암도 스님 등이 <법화경>에 대한 법문을 한다. (053) 766-3747

'능엄경 오위수행품' 강좌

서울 금강선원(원장 혜거)은 12월 7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9시 30분에 '능엄경 오위수행품' 강좌를 개최한다.

원장 혜거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능엄주력의 방법 등 능엄경의 전반적인 수행법이 다뤄진다. (02)445-8484

어르신을 모시는 사회
거북마을

거북마을은 한국불교태고종 약수암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노인요양시설로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
-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르신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 3리 347-1
- 홈페이지 : www.youngtop.or.kr
- 전 화 : 031)952-4801, 953-4801
  fax 031)953-4802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지수 대진 합장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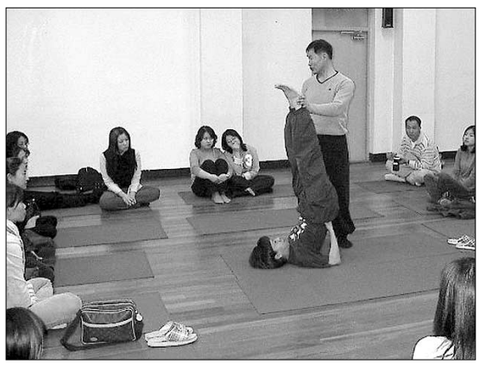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육체도 정신수행의 수단이다”



요가에서는 숨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쁘라나야마(호흡법) 수련 현장.



요가의 아사나는 큰지구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사진은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 정강주 명예회장의 아사나 지도.

한국동서정신과학회 학술대회서 ‘요가와 심신관계’ 밝힌 논문 눈길

대학생 27명 3개월 연구결과 근지구력 · 유연성↑ 스트레스↓

요가 수행은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최근 여러 수행법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요가와 심신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특히 요가의 경우 정적 명상의 과정을 포함하면서도 아사나(동작) 등으로 몸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요가수행과 신체 건강과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는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김향미(춘해대 간호학과) 교수, 이형록(춘해대 요가학과) 교수가 11월 27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동서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학생과 요가’에 관련한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향미 교수는 ‘일부 대학생의 근골격계에 미치는 요가수행의 효과’를 발표하며 요가 · 명상 등의 보완대체요법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울산 소재 춘해대학의 요가과 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한 연구에서 “요가수행이 대학생의 근지구력, 유연성, 건강상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요가 수련의 경우 쪽 뻗는 스트레칭과 멈춤 자세 등에서 신경과 근육의 활동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뼈를 강하게 하는 동시에 근육들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되풀이해서 힘을 내거나 오랫동안 근육수축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능력’, 즉 근지구력의 향상을 비롯해 유연성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생들로부터 요가수행 이후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해졌다는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요가 수행이 심적인 평안에도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형록 교수는 요가와 심리 상태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요가의 수행법이 일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요가의 아사나, 쁘라나야마(호흡법), 디야나(명상)가 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연구대상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이 교수는 “요가수행을 거친 학생들이 신체상, 심리 · 감정상의 스트레스 척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스트레스는 근육의 경직을 가져와 생체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다”며 “아사나를 통해 몸 속 에너지 흐름을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감정 조절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육체가 정신수행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또한 “마음의 상태는 숨을 쉬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쁘라나야마로 숨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쁘라나야마는 호흡(쁘라나)을 조절 · 통제(야마)하는 것으로, 요가수행자들은 이를 통해 스트레스 제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음작용의 지멸에 다가설 수 있다. 디야나 역시 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다.

강신재 기자

요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 모음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결과
국외	1960	Benson	요가가 약물 남용자 치유에 도움을 준다
	1984	Nathaniels	요가는 근육강도 증진, 자세조정, 긴장완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온다
	1993	Tells	라자요가는 자율신경계와 호흡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1993	Wood	요가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
	1996	Panjwani	요가는 간질환자의 발작 빈도를 감소시킨다
	1997	Schmudt	요가는 콜레스테롤, 혈압 등의 수치를 낮춘다
	1998	Naga	요가는 약물을 대신해서 우울증 환자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1998	Wagner	하타요가는 알코올 중독 환자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2000	Kamei	요가는 뇌의 알파파 증가와 혈중 코티졸의 감소를 유도한다
국내	1993	김병채	요가는 생리 · 심리 · 사회 · 영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1996	이경혜	요가는 만성요통 환자의 증세를 완화시킨다
	1998	김기주	실천요가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호흡과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2001	김영희	요가는 노인의 근관절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
	2004	문희	요가는 임산부 피로와 불안 및 분만 통증을 감소시킨다

인터뷰

‘하타요가프라디피카’ 강좌 연 이강언 원장



“경전의 고증없이는 정확한 수련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타요가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하타요가프라디피카’ 강좌를 시작하는 이강언(요가뿌탑) 원장은 정통 하타요가 수행법은 경전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전에 근거한 수행법의 연구와 검토만이 원칙없이 변형된 요가의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통 요가법 경전서 찾아야”

“다이어트 요가 등 임의대로 변형된 요가가 늘고 있습니다. 분별의 잣대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하타요가프라디피카’는 크게 자세법 아사나, 호흡조절법 쁘라나야마, 정화법 사트까르마로 구성돼 있다. 실질적인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서에 가까워 요가 수련자들이라면 반드시 접해봐야 할 책이 ‘하타요가프라디피카’다. 그는 강좌를 통해 하타요가의 기본이자 핵심인 아사나 부분을 완전히 고증함으로써 아사나 수련의 방향을 제시할 생각이다.

이강언 원장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과 요가치료 전공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인도 히말라야 인스티튜트, 비하르 요가대학, 아엥가 요가 학교 등을 두루 거쳤다. 8주 과정의 강좌는 12월 첫째주 금요일(오후 2시~5시)에 시작된다. (02)335-3306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⑱

돈수(頓修)와 점수(漸修)-3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이른바 돈점논쟁이 한창 뜨겁게 벌어졌었다. 그때는 개념정리도 잘 안 된 상태였고 문중(門中)과 대찰(大刹) 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논의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좀 겉돌다가 그만 수그러들고 말았다.

하지만 돈점문제와 나아가 깨달음과 닦음의 문제는 그동안 학계와 불교계 일각에서 끊임없이 천착되어 왔다. 불교의, 특히 선종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그처럼 본격적으로 진지하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예는 근래에는 한국불교에서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돈점논쟁 일각에는 사뭇 분열적이고 이른바 제로섬 게임 같은 분위기가 흐른다는 점이다. 애초에 성철(性徹)스님이 돈오돈수론을 역설할 때, 지눌(知訥)스님의 돈오점수론은 선종의 이단사설(異端邪說)이라고 강하게 매도한 데에서 그런 분위기가 야기되었다. 자연히 성철스님이 옳은가 아니면 지눌스님이 옳은가 판가름하려는 구도, 어느 한쪽이 옳으면 다른 한쪽은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관심과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꼭 그런 구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은 절대로 틀렸다고 해야 한다면 지눌스님과 성철스님 중에 한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두 분 모두 한국불교사의 귀중한 자산이다.

특히 선수행자들에게는 돈오돈수가 옳은가 돈오점수가 옳은가 하는 것을 두고 양단간에 결판을 지어야 할 궁극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돈오돈수, 돈오점수라 하여 마치 서로 대립하는 개념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돈오돈수론의 돈오와 돈오점수론의 돈오는 다른 개념이며, 돈수와 점수가 반대말인 것도 아니다.

지눌스님과 성철 스님은 각자의 의도에 따라 나름의 뜻으로 그 개념들을 사용하였다. 그 각자의 의도란 곧 당대 수행자들의 문제에 대한 처방이다. 달리 말하자면 수행방편의 처방이다.

방편설(方便說)은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식으로, 절대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대기방편설(待機方便說)이라고 하듯이, 설법 대상의 근기(根機)에 따라 알맞은 방법과 내용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방편이다. 근기라 하면 대개 개인의 자질, 소양, 재능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 시절인연까지도 근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근기는 한 개인에서조차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며, 따라서 방편도 결코 일정할 수가 없다. 다만 선교방편(善巧方便)이라 하여 솜씨 좋고 효과 좋은 방편인지 아닌지만 얘기할 수 있다. 더욱이 솜씨 좋다는 것, 효과 좋다는 것도 늘 일정하지 않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는 수행방편 방편설, 옳다 그르다 절대판정 못해

선종에서는 특히 그 점을 매우 민감하게 중시한다. 뗏목의 비유, 달과 손가락의 비유, 또 목불(木佛)을 쪼개 땔감으로 썼다는 일화가 말하듯이, 방편을 절대시하는 것을 아주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본다. 심지어 성불이라는 불교의 핵심 사안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요의(了義)가 아니라 방편설로 본다. 전에 어느 기독교 신학 학회에 참석했을 때, 한 신학자가 하는 말을 듣고 내심 깜짝 놀랐었다.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장애는 유일신관이라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기독교가 제대로 된다고 말했던 것이다. 유일신 개념조차 방편이라고 볼 정도라면 가히 선의 정신에 필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법사인의 밤’ 대동축제 안내
한국불교법사대학 총동문 모임
귀의 삼보 하옵고,
구법정진과 포교불사 도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모교 발전과 동문 총화를 위해 구법 동학인의 위의로서 격려해 주시는 동문 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의 법연을 되새기며 동문간에 따뜻한 우정을 다져보고자 한자리에 만나뵈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동문 법사님들을 초청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어 법사인의 모습으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기 2548년 12월
초청인: 법사위원회 회장 일진 총동문회 회장 운제 법림회 회장 향림 합장
일 시 : 불기 2548년 12월 15일(음 11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일 정 : 공양 및 연회(호텔 부페) – 오후 5시 30분 ~ 9시
– 밤 9시 이후 (별도 행사)
장 소 : 베스트웨스턴 호텔동대문 2층 부페(구. 이스턴호텔)
교통편 : 전철 1호선 동대문역 6번 출구, 4호선 동대문역 7번 출구 연결
연락처 : 02)720-1836, 733-1959
● 주 최 :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위원회 · 총동문회 · 법림회
● 후 원 : (사)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사) 한국불교대승법사종 · 법사불교신문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후식으로 망고스틴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3) 소승 아비달마의 지혜, 오온(五蘊)

우리는 지금 잘못 쓰여진 문장들을 읽고 있다

라쇼오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앞의 살인 사건 현장의 세 주인공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관심'에 따라 사태를 왜곡하고, 사람을 의심하면서 그것을 객관이며 진실이라고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왜곡과 의심의 뿌리는 깊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환망(幻妄)의 오염을 피할 수 없기에, 무시이래의 근본무명(根本無明)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계에 개입하는 자아 활동을 줄여야

이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하,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간의 근본 진실과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반 너머 캐치한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모든 것을 내 식으로 판단해왔다. 그 바탕에는 나의 존재를 보존 확장시키려는 무의식적 동기가 깊이 작용한 듯하다. 이제부터 나도 모르게 밴 나의 편견과 습관, 관심과 이해관계 등의 개입을 반성하고, 사태를 공적 지평에서, 전체의 관점에서 읽는 훈련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붓다의 제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합니다. 세계에 개입하는 자아의 활동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깥의 영향력을 줄이고, 내적 자유의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통적으로 팔정도(八正道)로 알려져 있고, 또는 이를 계정혜(戒定慧)의 삼학(三學)으로 정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각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합니다. 불교의 '지혜'는 가령 노장이나 유교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각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경우 계율이나 선정이 지혜의 바탕이기는 하나, 지혜가 없이는 바라밀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소승의 아비달마, 그리고 대승의 반야중관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연계가 있습니다. 콘즈는 그래서 아비달마를 '옛 지혜학파', 반야중관을 '새로운 지혜학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비달마의 오래된 지혜

소승 아비달마의 지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비달마는 "나의 것,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소유'의 환상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속한다'가 객관 세계의 자연스런 속성이라고 했습니다만, 불교는 이런 말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닭이나 소는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국가를 지배하는 군주가 있다고 해서, 우주를 지배하는 특정한 인격이 꼭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스피노자는 만일 돼지들이 신을 생각한다면 그 신은 아마 돼지를 닮아 있을 것이라고 시니컬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는 세계 자체에 속한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의한 강제입니다! 아비달마는 그래서 '나'로 시작되거나, '나'를 포함하는 모든 문장들을 잘못 쓰여진 것으로 판정합니다. 그것은 오류투성이의 작문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문장을 '나'를 뺀, 순수 객관적 서술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리하여 나(我)의 개입이나 오염이 배제된, 순수 객관적 사태들, 즉 제법(諸法)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령 "나는 오늘 그토록 사랑하는 그녀를 떠나보냈다"는 문장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아비달마는 이것을 매우 부정확하고, 들뜬 문장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고쳐줍니다.

1) "두 '물체(色)'가 있다." 그리고 2) "사랑한다는 감정과 슬프고 아쉬운 감정(受)이 있다." 3) "눈물을 흘리는 한 물체가 다른 손 흔드는 물체를 지각(想)한다." 4)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충동(行)'이 있다." 5) "이 사건을 '의식(識)'하는 과정이 있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적어나가는 기술

이렇게 아비달마는 자아에 의해 오염된 인식을 정화하여 객관적 사실만으로 분해 정리해 나갑니다. 앞의 글에서는 그 객관적 사실 가운데 '다섯 무더기', 즉 오온(五蘊)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비달마는 모든 주관적 판단과 상념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해나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건 흡사 '나'를 '타자(他者)'처럼 말하고 적는 기술(技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웃는 사람도 있고, 참 드라이하다고 느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봤자 아픈 상처가 어디 가냐고 비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각자 그런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상처는 문득, 시간이 흘러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떠나보낼 때는 눈물이 강을 이루다가도, 곧 죽을 것 같다가도, 시간이 가면, 그 무모한 정열이 우스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비달마의 분석은 적어도 그 치유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의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훈련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사태가 생김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해방을 얻습니다. 아비달마의 분석은 무아(無我)를 각인시키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지혜의 방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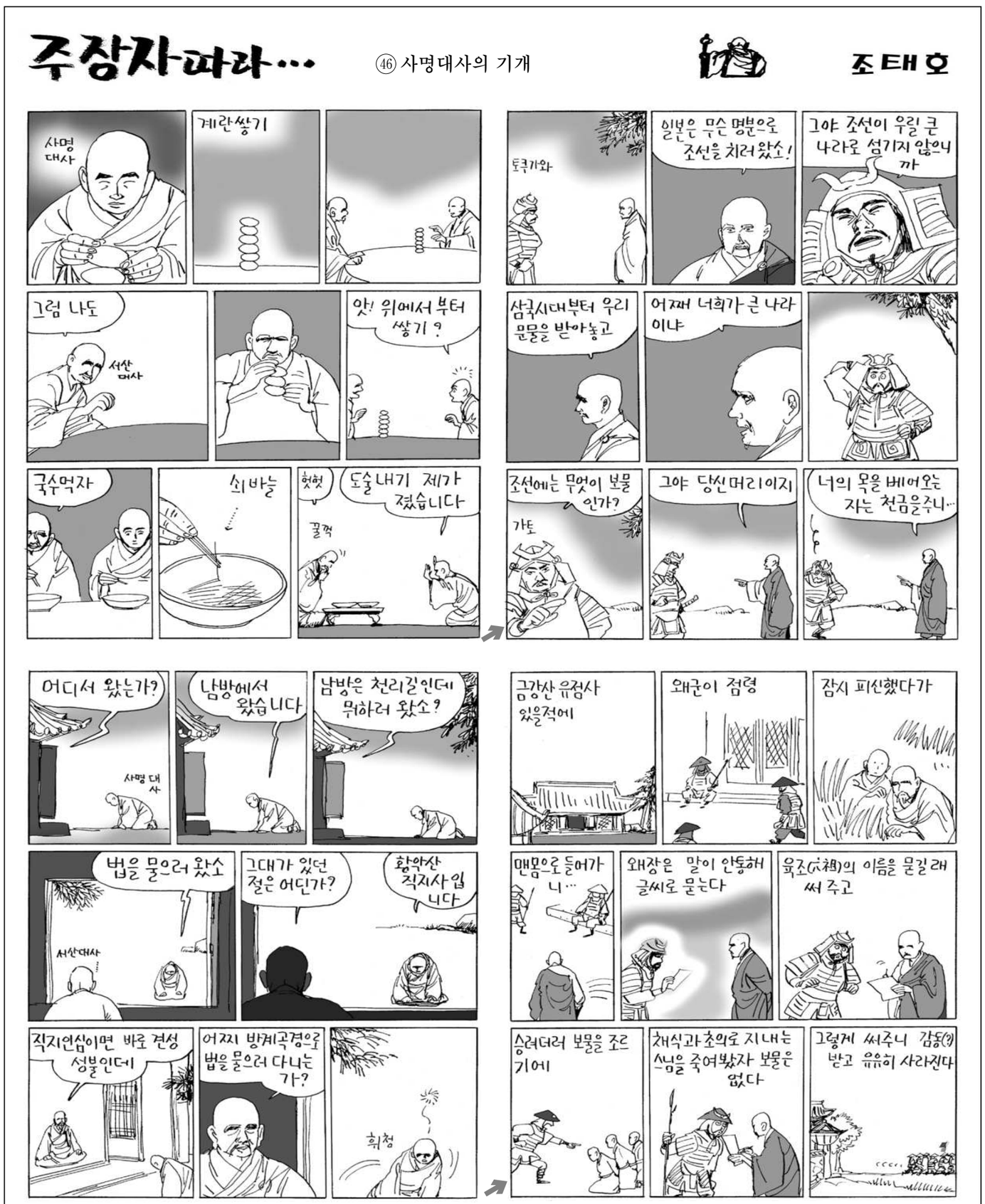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자기 밖에 두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물의 점착성으로부터, 그리고 자아의 과도한 준동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내적 평화와 유대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내 손을 떠나 있거나, 사소한 문제들이기 십상이지요. 문제의 7할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나머지 2할은 내 손을 떠나 있고, 직접 이럭저럭 할 수 있는 일은 채 1할이 안된다지 않습니까. 거기 집중해서 할 바를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잘 안 된다고요. 실제 고승들은 어떤 일의 충격이 잔류하는 기간이 아주 짧고 후유증은 거의 증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훈련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처칠의 독백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 자아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빤히 보이는 적절한 길을 놓치고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불행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어디 한 두 번입니까. 특히나 정치를 맡은 사람들, 권력이 무거운 사람들의 결정에 있어 이 같은 '자기 비우기'는 결정적인 덕목입니다. 처칠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아일랜드와의 조약을 마무리한 다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적과의 투쟁은 끝이 났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자신과의 투쟁뿐이다. 그러나 자신과의 투쟁만큼 어려운 싸움도 없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역사는 때때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눈앞에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나아 보이는 해결책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그토록 느린 속도로 수많은 좌절을 겪어 가면서 한걸음 한걸음 힘들게 전진해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에 최선이라고 믿는 바를 위해서는 자신이 신봉하던 원칙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습니다. 이 충고를 남 위에 선자, 특히 정치하는 인간들은 가슴 깊이, 언제나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명대사(1544~1610): 조선 중기 스님. 법명은 유정. 경남 밀양 출생. 직지사로 출가. 금강산서 휴정 스님에게 배우고 임진왜란때 승병장으로 활동. 해인사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누가 묻고 누가 답하나요?

문 선(禪)이란 나의 부재(不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묻고 누가 있어 대답할 수 있단 말인지요? 네티즌 선객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ID 주시자)

답1 : 부재는 또한 부재가 아닌 즉, 왜 묻고 대답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없음은 또한 내가 없음이 아닌 즉, 왜 묻고 대답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묻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의 요지를 빌리면, 부재는 부재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재이며 내가 없음은 내가 없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내가 없음이고, 소멸은 소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소멸입니다.

즉 <임제록>에 나오는 '개시공명이무실유(皆是空名而無實有 ; 모두 빈이름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곧 실상이므로 일체의 표현명구를 떠나서 사실 그 자체를 직관함이 중요할 듯싶습니다. (토졸용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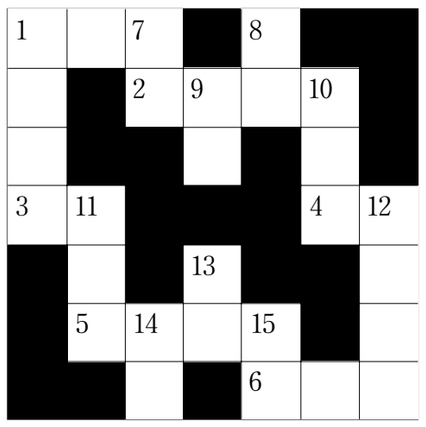
답2 : 내가 없다는 한 생각만 안 지으면 나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생각을 지으니까 '내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나도 생기고 밥 먹고 똥 싸러 뒷간에 가는 놈도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없다면 밥 먹고 똥 싸러 갈일도 없지 않겠지요.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참구를 해 보아도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밥도 먹을 줄 알고 그것을 삭혀서 변을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낼 줄도 아는 그것이 있으니 내가 없다는 말만 하면, 그 말하는 놈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소멸됐는데, 무슨 허깨비와 시름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놓아두고 환상 속에서 해매이면 안 됩니다. (풍경)

답 3 : '내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선종에서 줄기차게 걸어온 주제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은 바로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바라보는 관점, 즉 '내가 있다'는 것과 '내가 없다'는 분별심이겠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我)의 유무는 결국 분별심의 벽이 허물러진 주객의 융화적 바라보기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학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창덕궁의 정문으로 보물 제383호 2. 민간에서 수집한 이야기에 창의성과 윤색을 더한 산문문학으로, 뒤에 소설 발달의 모태가 됨 3. 모든 불보살의 깨달음 내용이나 활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손 모양 4. 일정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임 5. 거시경제의 상대적 의미 6. 빗물에 의해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을 일컫는 말.

세로 1. 돈오했다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어야 하고, 더 이상 닦을 것이 없을 때라야 비로소 돈오라 이를 수 있다는 성철 스님의 주장 7. 이름을 적어서 대문 옆에 붙이는 작은 패 8. 손가락 끝마디 안쪽에 있는 살갗의 무늬 9. 관가 노비 10.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 ○○회 11. 찹쌀을 쪄서 떡메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묻힌 떡 12.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 13. 저승의 길 어귀에 있는 거울로, 죽은 이의 착한 일, 악한 일이 나타난다 함 14. 물체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15. 충북 북동부 도시로, 영월 · 단양 등과 접해있음.

“개인의 한 길이 역사 이룬다”

인 터 뷰 ‘오늘이 역사다’ 낸 정옥자 서울대 교수

‘개인과 역사’,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철저히 배제하는 역사기술에 있어서 말이다. 하지만 정옥자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 62)가 펴낸 <오늘이 역사다>는 이런 통념을 처음부터 깬다. 이 책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가 피난길 청평호수에서 세여동생과 물에 몸을 던지는 광경을 바라봐야 했던 정 교수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자전적인 문체로 담았다.

정 교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역사는 개개인 삶의 경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이 책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빼앗긴 가족, 여성이란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온 사연 등 개인사가 그대로 ‘오늘의 역사’로 이어진다.

11월 26일, 서울대 인문대 7동 그의 연구실에서 정교수를 만났다.



“개인 삶은 역사연구의 자양분 정조에게 인간적 학문적 동질감 느껴”

정옥자 교수는 1942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사학과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10년 만의 공백을 깨고, ‘아줌마 대학원생’이 됐다. 99년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규장각 관장에 임명돼 연임을 했다. 또 2004년에는 4회 비추미 여성대상 교육 • 연구개발 부문 별리상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후기 문화운동사>, 에세이집으로는 <역사에서 희망읽기> 등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개인사를 다룬 점입니다. 과연 개인사와 역사의 소통이 가능할까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토지>의 서희처럼 살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서희는 토지를 찾는 것으로 명예를 되찾았지만, 난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회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생에서 삶의 많은 경험들이 내 학문에 온전히 살아남았다고 자부합니다. 내 문제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요. 내 삶의 고난이 역사연구에 큰 도움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개인사를 포함한 것은 개인의 역사를 뛰어넘어 한 역사가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삶은 역사연구에 자양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역사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간 꾸준히 역사에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에 담았습니까?

–“지금은 투쟁의 시대입니다. 한 마디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대립적인 세계관, 투쟁의 인간관계를 극복하는 방향 등을 항상 서구에서만 찾을 수 있다 믿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국학을 하는 학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사실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즉 현재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법들을 우리 전통에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전통의 대한 깊은 이해와 재조명, 그것들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통문화와 오늘날을 접맥시켜서 우리 전통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역사다’란 책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아마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개념을 대중적으로 풀어 쓴 것 같은데, 교수님의 학문적 화두가 되겠네요?

–“우선, 법고창신은 오늘의 문제 해결을 역사에서 실마리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이지요. 18세기 연암 박지원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법고창신의 개념을 교육의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한물간 서구교육 제도의 ‘재탕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전통에서 교육 아이템을 찾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정조에게서 학문적 · 인간적 동질감을 확인했는데,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려서 부친과 여동생들을 한국전쟁 중에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큰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나에게 용기라는 것을 불어 일으켜주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했던 힘이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정조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학자군주로 평생을 공부했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도세자를 떠나보내면서도 학문으로 그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정조에게서 인간적 · 학문적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요즘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총성 없는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이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맹목적인 민족이기주의 발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한국의 극우 민족주의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애국심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잃고 중국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동북공정에 맞서 옛 땅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까지 펼치고 있으니, 지금은 양국이 극단으로 치닿고 있는 형국입니다. 필설로 하는 논리싸움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진 역사관은 ‘평화사관’입니다. 얼마나 평화시대를 구축했는지 마음의 안정을 얻고 평화로웠는지가 이 사관의 인식 틀입니다. 모든 관계를 투쟁관계로 해석한 식민지사관 또는 제국주의적 사관을 탈피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년이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쉬운 글쓰기를 통해 일반 대중과 가깝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역사소설도 써볼 생각입니다.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하지요. 정조가 ‘일모도원(日慕道遠)’라 말했습니다. ‘해는 저무는 데 갈 길이 멀다’는 뜻처럼 부지런히 학문에 정진할 생각입니다.” 현암사/8천원

글=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전문가 서평



자유로서의 발전
센 아미타아 지음 | 1만8천원 | 세종연구원 펴냄

불자로서 인간 본질에 대한 의문은 늘 필자의 머리 속을 맴돌았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본질은 무엇인가와 같은 보다 세부적인 의문들은 수반됐다. 때론 깜냥의 이해를 대단한 깨달음인양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행복을 수치화한다는 그 기발한 벤담의 발상을 접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인간은 수치화하기 힘든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늘 과학적 분석에는 그 대상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센은 달랐다. 필자가 소개하려는 책,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유가 베어 나오는 책이다.

센은 이 책에서 미국의 흑인 소득은 인도 케랄라 주 사람들보다 몇 배가 높은데도, 수명은 케랄라 주 사람들이 높다는 매력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삶에서 돈 자체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인도 벵갈 출신인 저자는 이처럼 기존의 ‘효용’, ‘결과’ 등의 용어로 얼룩진 경제분석이 아닌 ‘자유’라는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불교적인 사유방식의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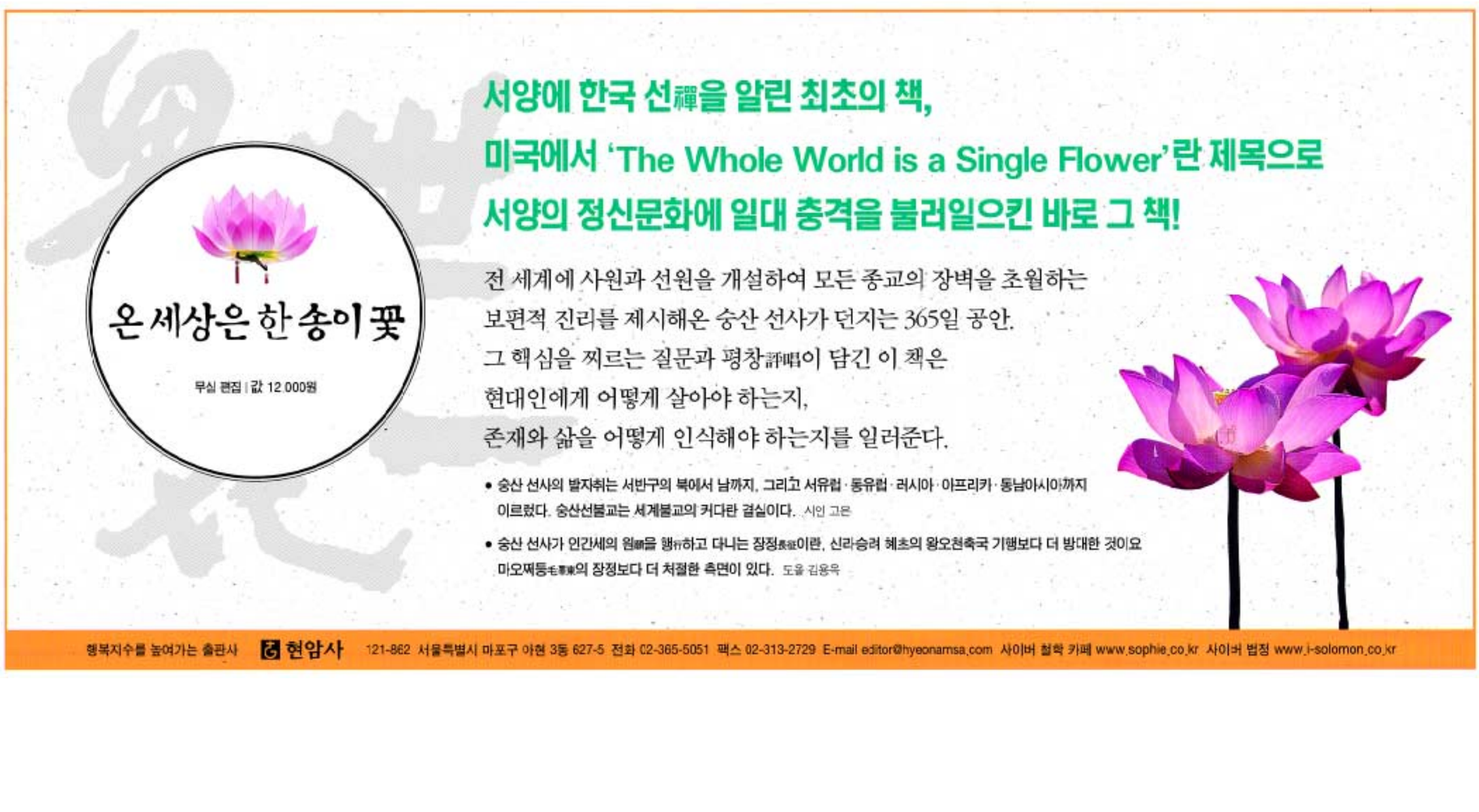
가치가 바로 ‘목적’임을 실증해 나간다. 이 책은 정치철학적 논의의 지형을 파악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노벨상 위원회는 ‘어떻게 그가 경제문제의 윤리적 차원을 회복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를 열어 주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고 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교평론>이 최근 현대사회의 문제들, 특히 자본주의의 병폐와 관련한 불교적 대안에 대해 다룬 것을 읽은 기억이 있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룰즈를 잔뜩 인용한 뒤에 <아함경> 몇 구절 인용하고, “자 이렇듯 불교와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대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사회에 관한 고민과 사유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베어 나오는 것이 진정한 불교적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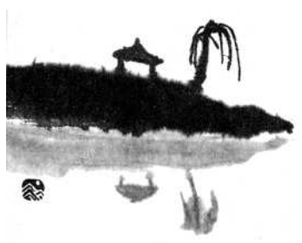
센의 책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점을 던진다. 그가 불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의 사유 방식이 바로 시사점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토대로 하는 그의 분석이 갖는 가치는 바로 그 사유방식에 있다.

우리는 사회적, 정치경제학적 문제와 논의들은 논의대로 별개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별개라는 분리적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봐야 한다. 또한 ‘이러이러한 서구의 대가와 불교가 이러한 점에서 비슷하다’라는 식의 대안 찾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센의 책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현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담겨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대문제에 불교를 맥락 없이 덧칠하거나 무조건 불교를 포교하면 된다는 식의 기독교적 물량주의식 접근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사유 자체를 불교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센은 그 사유방식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정훈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강사)



무주공산의 빈달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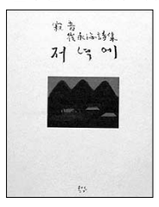
"찬 달이 만산 가득히 떠올라 오면/ 나는 가리라/ 이 육신 다 벗고/ 흐르는 계곡 물소리에 실려/ 둥둥 떠나 가리라/ 서방정토에 눈이 오는가 비가 오는가/ 바람이 부는가"('저문날의 목판화' 일부)

산사의 고요함을 나타내는데 시만큼 적절한 표현수단이 있을까. 경북 봉화에 위치한 '일소암(一笑庵)'에 기거하고 있는 시인 적음 스님이 산사에서 느낀 감상을 담은 시집 <저녁에>를 펴냈다. 직접 붓으로 쓴 시 30여 편에 신동여 씨의 수묵화가 더해졌다.

스님은 "가지가 휘도록 조롱조롱 열린 감"을 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일소암에서 "집 뒤 산자락에서 옮겨다 심은 앞뜰의 산죽이 저도 깨어나 으스스 몸을 떠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자연의 변화에 대해 그 어떤 가치 판단이나 주관의 개입도 없이 조용히 바라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시로 옮겼다.

"숲에 가려서 달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다/ 한참이나 움직이지 않고 서서/ 달을 보았다"('저녁에' 中)

표성흠 시인은 발문에서 "적음 스님은 인생살이의 고달픔과 욕심을 벗어 던지고 바람처럼 떠도는 그야말로 운수납자(雲水衲子) 그 자체"라며 "달과 하나가 된 시인이 무기교(無技巧)의 기교로 쓴 시를 통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저녁에
적음 스님 시집 | 홍익21 | 1만원

마음 밝을 때 행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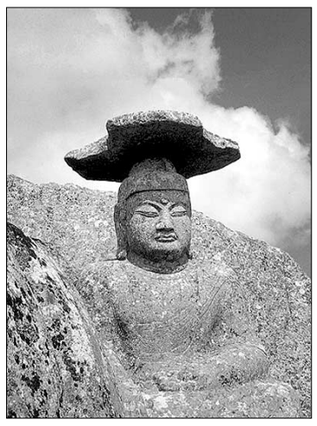
"쾌활하게 살자. 크게 웃고 살자. 우울해지면 웃음을 터뜨리자. 마음이 밝을 때 건강과 행운이 오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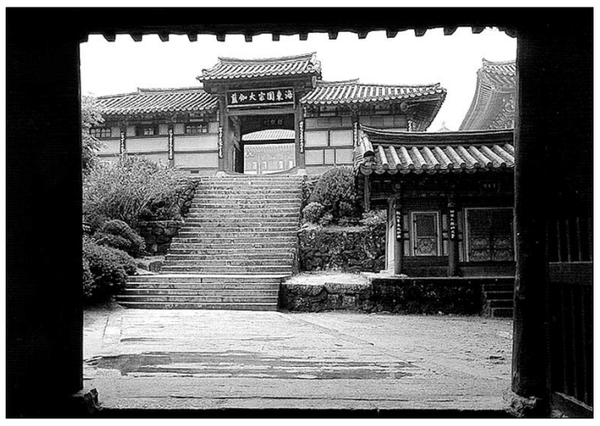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는 도심포교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광덕 스님(前 불광사 법주)의 글에서 간단히 읽을 수 있는 명상언어를 가려 담은 책이다. '밝게 웃는 데서 성취가 온다' '용모는 투명한 포장지다' 등의 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스님은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가 나약하고 비루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창조력을 지닌 불성의 구현자이므로 생동감 넘치는 삶을 일구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엮은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은 "광덕 스님께서는 생명은 반드시 밝은 데서 성장하고,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빛의 생명임을 누누이 강조했다"며 "스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밝아지고 빛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생명은 밝은 데서 성장한다
광덕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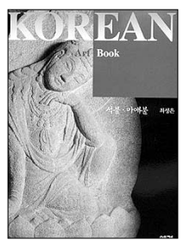


불교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진은 '갓바위 부처님'으로 불리는 팔공산 관봉 석조약사불좌상(왼쪽)과 합천 해인사 봉화문에서 해탈문으로 향하는 길의 모습.

아는 만큼 보이는 아름다움

풍부한 사진과 깊이있는 해설 담은 '휴대용 성보사전'





불교건축 김봉렬 지음 | 솔 | 2만5천원
석불 · 마애불 최성은 지음 | 예경 | 1만8천원

석굴암 벽면의 불상은 어떤 순서로 모셔져 있는 걸까? 부석사 석단은 정토신앙을 따른 것일까 아니면 화엄신앙에 따라 조성된 것일까?

사찰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불교문화유산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지만 정작 그 속에 담긴 뜻과 아름다움을 찾아내 감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출간된 <불교건축>과 <석불 · 마애불>은 풍부한 사진과 설명으로 불교문화유산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대용 성보사전'이다. 책을 펴들고 장엄한 불교미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부처님 생전에는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나 사원이 됐지만, 수행자가 늘고 승단이 조직되자 일정한 신앙의 장소가 필요해졌다. 이처럼 불자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불교건축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돼 왔다.

<불교건축>은 도서출판 솔이 펴내는 '한국美의 재발견' 시리즈 중 열 한 번 째 책으로, 사찰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불교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축평론가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가 집필을 맡았다.

책은 불교건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각 사찰별 건축물이 갖는 특징을 소개하는 순으로 구성돼있다. 시대와 지형, 건축을 맡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교건축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개별 건축물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1장 '불교건축의 재발견'에서는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건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떻게 성립 · 전개되어 왔으며, 건축물이 갖는 교리적 · 기능적인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2장 '한국 불교건축의 이해'에서는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흐름을 한눈에 꿸 수 있도록 주요 사찰 스물 네 곳을 차례로 소개한다. 지은이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극락세계는 바닥이 빛나는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경전말씀에 따라 부석사 무량수전 바닥에는 유약을 바른 청유리 전돌이 깔려있고, 순천 선암사는 모양이 불규칙한 연못을 배치함으로써 사찰의 영역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 전체가 하나의 '노천 전시장'을 이루고 있는 경주 남산에서는 시선을 돌리는 곳곳마다 정성스레 조각된 석불이나 마애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시간의 풍화 속에서 훼손되거나 도난당하는 목불이나 금동불과 달리 대부분의 석불과 마애불은 지금껏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높다.

<석불 · 마애불>은 이처럼 '돌 속에서 나툰 부처님'인 석불과 마애불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이다. 불상전문가이자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기도 한 최성은 교수(덕성여대 미술사학과)가 우리 산천 곳곳에 새겨진 석불을 찾아 나섰다. 불교가 전래되던 시기의 초기 불상양식을 반영하는 삼국시대 석불부터 민간신앙적 냄새가 물씬 나는 조선시대 후기 마애불까지, 긴 세월동안 우리나라 돌조각 작품을 대표해온 석불과 마애불을 보여준다.

최 교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불교신앙의 영향을 받아 그 제작양식과 분포에서 다양함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석불과 마애불은 동아시아 석재조각의 한 정점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한국의 사찰
대한불교진흥원 펴냄
전2권 | 각권 1만8천원

사찰 · 불교문화재 답사안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거나 답사를 갈 때면 늘 "한눈에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책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불자들을 위해 전국의 주요 사찰과 지역별 불교문화재를 조사 · 정리한 답사안내서 <한국의 사찰> 상 · 하권을 펴냈다.

김형우(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씨와 신대현(사찰문화연구운 상임연구원) ·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씨가 3년여 간에 걸쳐 전국의 사찰과 절터 100여 곳을 현지 조사하고 그 자료를 정리한 이 책에는 사찰의 위치와 역사, 현황, 사찰소장 주요문화재에 대한 설명이 가득 담겨 있다.

상권에서는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전라도 지역의 사찰을, 하권에서는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사찰을 소개한다. 사진과 가람배치도, 약도 등을 함께 담아 여행이나 답사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수령 기자

새로나온 책



■ **<불교의 알음알이>**(우봉 스님 지음, 다다아트, 1만2천원)=기본적인 불교교리 이해와 불자들의 신행을 돕기 위한 불교 입문서. 2002년에 발간된 초판에 이은 개정판으로, 우봉 스님이 방대한 불교 관련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엮었다. '입문편'에서는 불교 기본 교리를, '신행편'에서는 수행법과 불교의식, 불교미술 등에 관해 설명한다. 부록에는 법회 순서와 법회에 필요한 찬불가, 반야심경, 발원문, 사홍서원 등을 담았다.



■ **<사람이 그립다>**(승헌 스님 지음, 수수꽃다리, 9천원)="마음을 비울수록 빛깔은 더욱 붉게 빛나고,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은 물빛처럼 투명해진다는 것을 믿는다." <고요는 휘어져본 적이 없다>를 펴낸 시인 승헌 스님(혜진선원장)이 전하는 수행 에세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사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만난 불자들의 사연과 수행과 문학의 길에서 느낀 고민 등을 풀어 놓았다.



■ **<마흔 여덟에 식칼을 든 남자>**(오시환 지음, 새로운사람들, 9천5백원)=20여년 동안 광고인으로 살아온 지은이가 마흔 여덟의 나이에 '식칼'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섰다. 미국 플로리다와 뉴욕의 일식집에서 요리를 배우며 써내려간 일기를 통해 '맛의 선지식(禪知識)'을 찾아 나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지은이는 현재 서울 계동에서 바다요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2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3	물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	학고재
4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영가천도	우룡 스님	효림
6	이판사판 화엄경	성법 스님	정신세계원
7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솔
8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도법 스님	아름다운인연
9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철	불교시대사
10	서장	전재강	운주사

도서 안내 : (02)737-0695





1. 히말라야 있거나 혹은 없거나—히말라야의 나침반
글, 사진 임현담 | 368쪽 | 올컬러 | 값 15,000원
이 책은 히말라야 감상법을 담은 총론이다. 우리가 거대한 설산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에 의지하여 갈 길을 찾듯, 히말라야 순례객들에게 이 책은 나침반이자 예의범절의 교과서다.

2. 시킴 히말라야—히말라야의 진주
글, 사진 임현담 | 411쪽 | 올컬러 | 값 15,000원
히말라야의 진주라고 칭송되는 캉첸중가의 시킴은 우리 오대산의 할아버지 산이다. 한국 강원도의 오대산, 중국 산서성의 오대산, 그 시작이 바로 시킴의 캉첸중가이다. 저자가 자료를 찾고 직접 답사하여 글과 사진으로 밝혀낸 기록을 최초로 공개한다.

3. 가르왈 히말라야(근간) 이하 점차적으로 간행 예정임
4. 네팔 히말라야(상) 5. 네팔 히말라야(하) 6. 아삼 히말라야 7. 부탄 히말라야
8. 편잡 히말라야(상) 9. 편잡 히말라야(하) 10. 티베트 히말라야

정 종이거울
전화 · 031-676-8700/팩시밀리 · 031-676-8704
E-mail · cigw0923@hanmail.net/http://jg-books.co.kr

■ 동국미술인회 도쿄 한국문화원서 창립 10주년 기념전 성료



송근영 씨가 자신의 작품인 '관세음보살입상'을 전시회 참석 내빈들에게 소개하고 있다.(왼쪽부터 송근영 씨 · 유진환 한국문화원장 · 이시가미 교수 · 야아나까 지회장 · 박현수 회장).

숨쉬는듯한 불 · 보살님 "놀랍네요"

전통불교미술 日서 첫 단체전시 … 학자들 관심 · 언론 취재열기 '후끈'



정교함 때문에 일본 고미술상의 시선을 집중시킨 '목조 수월관음보살상 불감'(김광현 作).

"한국불교미술의 섬세함은 가히 혀를 두를 정도다. 특히 정교한 목조 불감은 일본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진귀한 미술품이다"

"전통적이면서도 작가의 현대적인 감각이 녹아 있어 보는 즐거움이 크다"

'욘사마' 배용준에 열광한 일본인들이 이번에는 한국 불교미술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박현수)는 11월 25일 저녁 7시 일본 도쿄(東京) 한국문화원 8층 전시실에서 창립 10주년 '동국불교미술인전' 개막식을 봉행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중있는 불교미술인들로 구성된 동국불교미술인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조각, 회화, 단청, 사진, 공예 등 한국 불교 미술의 모든 장르를 일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종합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수 회장을 비롯해 김용섭, 김동환, 송근영, 김광현 씨 등 동국미술인회 회원 20명과 유진환 주일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문화원장, 이시가미(石上善應) 일본 대정대 명예교수 겸 한국 동국대 석좌교수, 야마나까료음(山中龍雲) 국제예술문화교류협회 일본지회장, 무라마쯔 히로코(村松弓子) 동경화랑 대표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유진환 한국문화원 원장도 축사를 통해 "한국문화원 창립 25주년을 맞아 일본인들에게 우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 놓았다.

회화 · 조각 · 공예 등 다양한 장르 선보여
전통과 현대적 감각 적절한 조화에 매료

이번 전시 작품을 둘러 본 이시가미(76) 교수는 "현재 일본에서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조화됐으며, 회화의 색감자체도 일본 불교미술은 점잖고 단순한데 비해 한국 불화는 다양한 색깔에 화려하고 밝게 표현돼 불보살들이 살아 있는 듯한 생동감을 느낀다"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용섭 씨의 '일광삼존불상', 송근영 씨의 '관세음보살 입상', 김동환씨의 '청동 달마상', 윤수천씨의 '관세음보살상', 이재순씨의 '구도의 길' 등 조각상과 전연호 씨의 '화엄경 변상도', 이철승씨의 '아미타삼존도' 등 60여점이 선보였다.

특히 천의를 걸친 수월관음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표현한 김의식씨의 '수월관음도'와 아미타삼존상을 정교하게 음각한 김정걸씨의 '목조 아미타삼존상 불감', 퀜화와 같이 세밀하게 금니로 그린 전연호씨의 '화엄경 변상도' 등은 한국 불교미술의 현주소를 가늠케 하는 수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을 꼼꼼하게 둘러본 야마나까 지회장도 "일본 불교미술은 단순히 전통에 대한 보존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이번 전시작품 중 '수월관음도'와 '기룡관음도' 같은 것들은 전통에 충실하면서 현대적인 기법을 가미해 인상 깊었다"고 즐거워 하며 작품 앞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관심은 전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뜨거웠다. 일본의 중외일보와 동양경제일보에는 이미 비중있게 기사화 됐으며, 한국계 케이블 TV인 KNTV는 개막식 현장의 모습을 취재해 뉴스시간에 생생히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전시장을 뒤늦게 방문한 불교미술 수집가인 나카오(40)씨도 김광현 씨의 '수월관음불감'을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며 "Good, beautiful!"을 연발했다.

나카오 씨는 "불감은 현재 일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한국불교미술만의 독특한 조각품"이라며 구입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이번 전시회는 11월 28일 폐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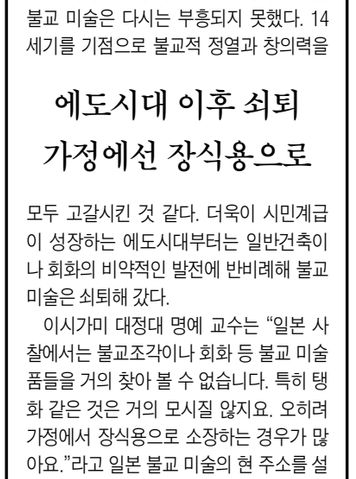
글 · 사진/도쿄=김주일 기자



정경용 씨의 '비천상'.



전연호 씨의 '화엄경 변상도'.



가마쿠라시대에 제작된 일본불화 '아미타도'.

▲일본 불교미술은?

일본의 불교미술은 가마쿠라 시대(1185~1336)를 분기점으로 서서히 활기를 잃었다. 이후의 무로마찌 시대나 모모야마 시대(14세기)부터는 보다 세속적인 일반 미술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불교건축이나 조각도 쇠퇴했다. 겨우 선종화만이 수목화와 함께 발전하게 됐지만 아스카 이래 가마쿠라 시대까지의 활발했던 불교 미술은 다시는 부흥되지 못했다. 14세기를 기점으로 불교적 정열과 창의력을

에도시대 이후 쇠퇴
가정에선 장식용으로

모두 고갈시킨 것 같다. 더욱이 시민계급이 성장하는 에도시대부터는 일반건축이나 회화의 비약적인 발전에 반비례해 불교미술은 쇠퇴해 갔다.

이시가미 대정대 명예 교수는 "일본 사찰에서는 불교조각이나 회화 등 불교 미술품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탱화 같은 것은 거의 모시질 않지요. 오히려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소장하는 경우가 많아요."라고 일본 불교 미술의 현 주소를 설명했다. 또한 이시가미 교수는 불상이나 조각품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훨씬 더 정교하며 일본의 불화나 탱화는 수묵화 계통의 단조로운 채색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김동환 씨의 '달마상'.

인 터 뷰

▲동국불교미술인회 박현수 회장

"다양한 우리 불교미술 진수 보여준 계기"

"이번 전시회는 한국불교미술의 다양한 장르인 회화 조각 공예 단청 등을 망라한 것으로 이런 종합적인 전시는 한국불교미술계에서 초유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종합전을 개최한 박현수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장(오른쪽 사진)은 개최 취지를 이렇게 말했다.

"개인전 형식으로 한국 불교 미술을 해외에 알리는 일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르에 국한되다보니 불교미술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폭 넓게 우리 불교미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점에서 박 회장은 이번 전시가 한국불교미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한일 양국간의 불교미술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불교미술단체와 정기 교류전을 추진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일본에는 불교미술단체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박 회장은 앞으로 직접 관객앞에서 시연 하는 퍼포먼스 형식의 순회전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0>



김 선생님, 술이나 한잔

이런, 벌써 12월에 들어섰네요.

김 선생님, 조만간 한번 우리 뭉칩시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뒤풀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좀 모으세요. 마침 제가 분위기 좋은 술집도 알아놨거든요. 술 한 잔 나누면서 1년 동안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힘들었던 일, 보람 있던 일들 이야기나 하자구요.

네? 불자가 무슨 술이냐구요?

허참…, 그렇게 말씀하시니 영 겸연쩍습니다.

자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김 선생님 핀잔처럼 부처님도 재가인들 술 마시는 것을 정말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여섯 가지 걱정근심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 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면 아무도 함께 그와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요, 아직 얻지 못한 재물은 얻을 수 없고, 본래 있던 재물은 자꾸 없어진다."(중아함경 제33권)

아닌 게 아니라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사고들 중 상당수가 술이 원인이 되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 병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저 아무 것도 아닌 것이건만 어째 사람들 몸속으로만 들어가면 꼭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5계 가운데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의 네 가지 금지조항들은 그 자체가 이미 죄악이어서 성계(性戒)라 부른 반면 음주 항목만큼은 차계(遮戒)라고 하시면서 술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나 죄악의 원인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법원주림>에도 보면 "술 마시는 것이 죄악은 아니나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악의 원인을 짓는 일이 된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반드시 동산과 담장을 세워야 하는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선정(禪定)과 모든 착한 법을 막아 버리니, 술 마시는 일이란 마치 동산도 담장도 없는 과일나무와 같다(제93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신통이 뛰어난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래(善來). 그는 워낙 신통력이 뛰어나 한 마을을 위협하던 무시무시한 용왕을 무릎 꿇리고 삼귀의와 오계를 지니게 하였습니다. 선래 장로의 무용담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그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님,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뭐든 말씀하십시오. 다 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 항상 말썽을 부리던 육군비구들이 이렇게 참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출가한 사람은 비둘기 깃털 술을 얻기 어려운데 이 분은 지금 그것을 마시고 싶어하오. 만일 그 술을 이 장로님에게 바치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비둘기 깃털 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다투어 선래 장로를 제 집으로 모시고 가서는 극진하게 술을 대접하였지요. 성의를 뿌리칠 수도 없었고 귀하기도 한 술이었던지라 주는 대로 마신 선래 장로는 술에 잔뜩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나오려다 의식을 잃고 문가에 큰 대자로 쓰러지더니 급기야 잠꼬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처님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구들이여, 이 장로를 부축해서 가자."

비구들이 장로를 부축해서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부처님 발아래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장로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몸을 뒤척이다가 두 발이 부처님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아, 선래 장로가 평소 내게 가졌던 예의가 지금도 있는가?" "지금은 없습니다."

"저 무서운 용을 항복시킨 자가 누구였던가?"

"선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면 물 속에 사는 도마뱀이라도 항복받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신 뒤에 의식을 잃게 하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본생경> 제1편 음주품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 우리는 송년회에서 술잔을 비우기 전에 꼭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술을 마신 뒤에 부처님과 마주친다면…, 부처님의 그 명징한 눈빛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술잔을 비우자."

이렇게 말입니다. 아셨지요? 모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연말 연시 술자리 약속이 많으시겠죠?
부처님앞에 부끄럽지 않을만큼만 드세요

'다음' 위해 지금 잘 살자

지상 백고좌

혜오 스님

(표충사 서래각 선원장)



"참선은 무엇이고, 도는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난 9월의 어느 일요일, 표충사 서래각(西來閣) 선원장 혜오(慧悟)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 기자를 향해 던진 일갈이었다.

'지역불교현장을 가다'라는 기획취재를 위해 지역 불교 현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질문을 하려던 본 기자는 일순간 머쓱해져 버렸던 기억이 있다.

그 어떤 질문보다 선이 무엇이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귀중히 여기며 또 그런 질문을 해오는 수행자 만나기를 내심 고대하고 있다는 스님의 의중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리고 11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스님 앞에 다시 앉았다. '선이 무엇인지'를 여쭙기 위해서였다.

"차부터 한잔 하지." 급한 마음에 질문부터 하려는 나에게 스님은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만큼은 질문도 잊은 채, 차를 마시는 나와 스님이 있을 뿐이었다. 몇 잔의 차를 연거푸 마셨다.

생멸하는 마음 한곳에 모으는게 화두

"불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자라고 하면서도 불교를 너무 몰라요. 참선은 왜 하는지, 불법의 대의는 무엇인지 그 이치를 알아야 발심을 하고 신심이 깊어져 공부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부처가 뭐냐? 했을 때, '똥 막대기다' '뜰 앞 잣나무다' 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대로 의심을 해서 들어갔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지마라' 그래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해.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본인이 터득하고 나면 참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님은 불법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했다. '불(佛)'이란 청정하고 깨끗한 것이며, 누구라도 그 깨끗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다겁생을 통해 지어진 업력 때문에 묻혀 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法)'이란 청정한 데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데 이 빛도 다겁생 동안 지어진 업력에 가리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道)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광명이 어느 곳을 가도 걸림없이 골고루 비춰줬을 때를 말한다고 했다.

"그럼 참선은 무엇일까? 참선은 자기의 부처를 자기가 찾아 나가는 것을 말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일으키는 자력이라 해 대승법이라고 하지. 그러면 왜 참선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원각경>에도 <기신론>에도 나오는데, 우리 마음은 일초동안에 칠백 번을 생멸한다고 했거든. 그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참선이야. 마음이 움직이면 고요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거든.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데 어떻게 자기 청정한 마음이 나타나겠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칠백 번 생멸하는 마음을 붙들어 매 가지고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야. 생멸하는 마음을 한곳에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화두고. 어떠한 생멸의 법칙도 화두에 다다르면 화두로 융화가 돼 버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화두로 융화가 돼야 비로소 참선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대승의 경지에 올랐다 할 수 있지."

찻잔을 보고 찻잔이라고 하고 보온병을 보고 보온병이라고 하는, 너무나 빨라 포착할 수 없는 그 작용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해져서 모든 것이 화두로 융화될 때 비로소 참선을 하는 것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찻잔을 들어 보이며) 부처님이 이 그릇을 볼 때와 중생이 이 그릇을 볼 때 무엇이 다를까? 부처님도 아파서 병들어 돌아가셨고, 중생도 병들고 아파하고, 부처님도 배고프면 밥 드시고, 일반 사람이 보면 똑 같은 거라. 무엇이 다르냐 하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간편하게 설명하면 직견(直見)과 곡견(曲見)의 차이 때문에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직견은 바로 딱 보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곡견은 한번 본 것을 마음속에서 굴림을 당해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의 사물에 대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곡견에 의해 맺게 됩니다.



만약 금덩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부처님은 '금이구나' 하면 끝이라. 그런데 중생은 금을 보면 저걸 내가 가졌으면, 팔아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장가도 갔으면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곡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림을 당해서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을 내가 받게 되는 거라. 부처님의 세계나 도를 깨친 도인의 세계는 일체가 직견인 것이고 중생의 세계는 일체 곡견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곡견을 직견으로 바꾸는 것은 생각으로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참선하면 됩니다. 육교에서 팔이나 다리 하나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구나' 하고 한생각 일으키고 천원을 주면 벌써 씨앗을 심게 돼 업이 됩니다. 그 업은 그 사람에게 어느 때인가 천원을 받아야 해결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업을 짓지 않고 한량없는 보시를 할 수 있겠느냐?

일체사물을 바로 보는 이가 부처

<선문촬요>에 보면 '마음을 버리고 아끼는 것이 없어야 한량없이 큰 보시다' 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 누워있는 걸 보면, '아 누워있구나' 하는 직견을 하고 화두를 챙기며 천원을 주게 되면 나는 화두 챙겨서 좋고, 그 사람은 돈을 받아서 좋은 거라. 그러면 하나도 인연이 안 지어지는 것이거든.

부처님은 살인을 여러 수십만 명을 해도 살인이 아니고, 중생은 손가락만 다쳐도 살인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생멸했다. 칠백 번까지는 아닐지라도 몇 십 가지 생각은 족히 됐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몸을 조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원효대사 <기신론소>에 나오는데 사사대 즉, 일하는 몸과 추사대, 즉 생각하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면 사사대는 소멸됩니다. 우리 몸이 사사대 뿐이어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린다면 공부할 게 뭐 있으며 부처님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겠지만 우리는 추사대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추사대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꿈에서 차도 타고 친구도 만나고 있다면 방에서 자는 것은 또 뭡니까? 친구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은 추사대라 하고 방에 자는 몸을 사사대라 합니다.

일하는 몸은 죽으면 소멸되지만, 생각의 몸은 선업을 지으면 선업 지은대로 악업을 지으면 악업 지은대로 지옥, 아수라, 축생 등 육도 윤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회의 원인이 되는 생각하는 몸을 없애는 길이 바로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것입니다. 추사대 몸마저 없어졌다면 남는 것은 깨끗한 불성만 남아요. 그것을 우리가 말해서 태양이라 하고 마음이라 하는데 그 마음만 내면 안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가고, 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량과 미움, 시비, 생사 등 세상만사의 작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참선에 있다고 강조하시는 혜오 스님.

미움과 사랑, 시비, 생사 등 세상만사의 작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참선에 있음을 설파하는 스님의 법문은 희망의 메시지였다. '참선 정진하라. 그러면 결국 추사대의 몸마저 소멸되고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어 스님은 "요즘 깨달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옛말에 우기는 사람이 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무심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하면 결코 견성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심은 일체 삼라만상, 우주 전체가 화두로 화했을 때를 말하며 누구든지 무심의 경지를 지나야 일행삼매(一行三昧), 일상삼매(一相三昧)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때서야 어떠한 일체 모든 행동을 하더라도 화두 드는 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며 배고프면 밥 먹고, 피로하면 쉬는 평등법에 이른다는 설명이었다.

스님의 일화를 들려주며 '내가 깨달았다' 거나 '공부가 됐다' 는 아상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했다.

재가자의 공부에도 각별한 믿음을 내비쳤다.

"표충사에도 대흥선원이라고 시민선방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생활을 다 팽개치고 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맞아요. 모든 것을 체험해서 일으키는 도가 제일 숙성하다 했어요. 세상살이 하면서 도를 깨달으면 스님들보다 백배 이상의 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참선을 하고 싶으면

생활속에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

좋은 스승을 정해놓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법문 듣고, 참선하는 법도 배우고, 집에서 시간나면 참선하세요. 물을 게 있으면 절에 와서 묻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하면 도를 깨치게 돼 있어요."

불경기를 맞아 세상살이가 어려워 아우성이라고 여쭙자 "세상살이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어서 받는 것이지 누가 갖다 준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는 반문이 돌아왔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못산다고 팔팔 뛰지만 말고 지금 못사는 것은 이전에 지어놓은 업이니 다음에 받을 것을 생각해서 지금 옳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옳고 바르게만 지으면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못되는 것만 팔팔 뛰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금 옳고 바르게만 행하면 현실의 어려움이 역전돼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처한 곳에서 옳게 행하면서 하루에 십분이라도 참선 정진을 이어가는 불자들이 되십시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평생 수좌로 정진… 4백년만에 표충사 선원 개설

혜오 스님은 혜오 스님은 2001년 표충사 주지로 부임하자마자 주지실을 내놓고 그곳에 선원을 개설했다. 임진왜란 이후 4백여 년 만에 서래각 선원이 다시 열린 것이다. 서래각이 현대 한국불교의 선불장이 되길 바라는 서원이 담긴 이 불사는 평생을 선원 수좌로 정진해온 스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명이 방부를 들이는 서래각 선원은 다른 선원과 달리 11명은 선원에 살고 9명은 선방과 후원을 오가며 총무, 원주 등의 소임을 보며 정진한다. 법철 스님의 인도로 1964년 향곡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은 후 4년 여 동안 스님을 모시며 "참선해서 도인돼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봉암사 9년 정진 동안 수좌들의 청에 못 이겨 주지 소임을 살기도 했던 스님은 동화사 금당선원, 해인사, 수원 용주사 초대선원, 오대산 상원사, 인천 용화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92년 선학원 선원장, 85년 통도사 보광선원 선원장을 역임했고, 묘관음사 주지 등을 거쳐 현재 표충사 주지와 서래각 선원장을 겸하고 있다.

선교(禪敎)에 두루 밝은 스님은 불경이나 조사어록 번역을 해왔는데 12월 <나옹 스님 어록> 출판을 앞두고 있다.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승범 스님 (下)

승범 스님은 어린 나이에 조계산 물을 먹었다. 3대에 걸쳐서 스님을 배출한 집안의 사람으로서는 그리 빠른 것도 아니지만 중학교를 마치던 나이에 출가를 한 것이다. 아버지도 스님으로서 일세를 허튼 곳에 빠지지 않고 살다 가신 분이지만 그 시절 다른 많은 스님들이 그러했듯이 승범에게 그리 맑은 인상으로 남아 있지 못하다.

스님의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그리 많은 편도 아니지만 밝지 못한 분위기가 있는 데다, 스님들은 가족을 거느리면 당연히 져야 할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당시의 스님들은 삼보정재는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다소 궁색한 논리로 빠져나가며(?) 가족들에게 궁핍을 강요했다.

승범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혹독한 가난의 시련을 겪었다. 누구는 '찢어지는 가난의 시련이 없었다면 어찌 봄날의 배부른 뒤 배치는 평화로움을 알겠는가' 라고 공부하는 소견을 읊기도 했지만 그 시절의 가난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른다.



그림 · 문병성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 뭔 뜻인지나 아시오?" "아, 알다마다요."

"알기는 뭘 아라라우?" "나도 안당게 그네"

사실 그 시절엔 봄이나 여름에 들에 난 나물들을 뜯어서 간식이 아닌 주식을 삼을 수밖에 없었는데 봄에 나는 쑥이 가장 잘 먹히는 음식이었다. 그런데 쑥은 섬유소가 많아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가 딱딱하게 굳기 일쑤였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한 번 먹은 뒤 다시 먹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밥 먹은 뒤 배 꺼지면 안 되니까 뛰지도 말라고 하던 시절이어서 뒷간에도 가능한 한 참다가 늦게 가도록 하였다. 그 때 생긴 말이 '오줌은 참으면 병이 되지만 똥은 참으면 약이 된다' 는 말이었다. 그래서 참고 나서 누운 똥이 잘 안 나오면 그것이 항문을 찢고 나와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는 것인데 사람들이 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쓴다고 하였다.

아무튼 승범 스님은 그 시절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아버지가 가신 길인 출가사문의 길로 들어섰다.

"저 사람이 혹독한 가난을 겪어서 그런지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않아. 스승인 나하고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내 뜻을 따를 텐데, 꼭 자기 의견을 원칙이라고 하면서 굽히지를 않아 소임 살면서 나랑 제일 의견차이가 많았지."

은사인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원칙을 지키려 하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가 그의 수행을 돌우는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스스로는 별다른 수행을 해보지 못했노라고 한다.

하지만 승범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의 말로는 소임을 살기는 했지만 안거기간에 선암사 상선원 칠전선원에서 철나기를 할 때와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선암사 초창기의 터전인 비로암에 살 때가 가장 뜻있는 자기 돌아봄의 세월이었을 거라고 입을 모은다.

스스로는 은사스님께서 내려주신 '이 뭣고' 를 늘 참구하고 있지만 아직 소식을 못 보았다고 한다. 육조 스님의 수행가풍을 따르고자 하는 선암사에 상주해서 그런지 존경하는 스님과 가르침을 말해보라고 하자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존경하는 분들이야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지만 혜능 대사의 '본래 한 물건도 없음(本來無一物)' 과 '선도 악도 생각 말라(不思善不思惡)' 는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한다" 고 한다.

원칙에 안맞으면 뜻 안굽혀
禪茶 등 우리것 익히기 열심

그래서 염불과 참선, 간경 등의 달라 보이는 수행문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달리 보여도 결국 그 목표와 결과는 '자기성품 제대로 보기인 견성(見性)' 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살며시 웃는다.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이야기해 보라고 말하자 "아, 있는 그대로야 어디 내뺄을 게 있소?" 한다.

승범 스님은 지허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옛 출가자의 전통가풍을 이어받고 있다. 선 · 조사 및 현재 수행하고 있는 태고종의 스님들이 보수전통의 수행자라는 점을 강조하기에 상좌인 그는 우리 것 익히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참선 수행에서 간경 및 염불 수행까지 수행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에서부터, 칠전선원을 중심으로 내려오는 선다(禪茶)의 법제(法製), 물푸레나무를 태워서 들이는 승복의 먹물 입히기 등 이미 대다수 스님들이 기억 저편에 던져버린 것들을 차곡차곡 익혀 왔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정상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스님의 그것을 다 익히기가 쉽지 않다며 안타까워한다.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약사 여래도량

신년 해맞이 대법회



부처님 가사에 얽힌 전설이 깃든 전남 완도 약산 가사 부락에 자리한 해동사는 약사여래불을 모신 도량으로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영험을 얻고, 암도 치유되는 신비한 기도성취 도량입니다.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해동사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는 무사회향과 을유년 새해 소원 성취발원을 위한 철야정진 기도(1080배), 연비식을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질병치유와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일 시 : 2004년 12월 31일(오후 6시) ~ 2005년 1월 1일

▮동참금 : 1인 1만원(저녁, 떡국 공양)

해동사 주지 일광 합장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가사마을(가사리 해수욕장)

061)555-0879, 011-640-0879

▶ 오시는 길 : 전남 강진-마량 선착장-약산 해동사

원적외선 사찰 난방

원적외선 웰빙 난방으로 구도에 정진하세요 !



특 징

1. 원적외선 복시열로 바닥과 내부의 공기까지도 봄날의 따뜻함을 드립니다.
2. 바닥이나 벽면의 기존시설을 손대지 않고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3. 기름값 대비 50% 가까이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4. 원적외선 난방으로 공기가 탁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5. 전자파가 없고 부분난방이 가능하며, 합선과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6. 유지관리 비용과 A/S도 거의 불필요한 제품입니다.
7. 환경 친화적 소재이며 반영구적 수명인 자체대 난방 시스템입니다.
8. 봄사 신축, 증축, 개축시 난방공사 상담 환영합니다.

설치장소

사찰, 포교원, 수련원, 기도원, 강당, 문화재관리실, 방갈로, 펜션, 오피스텔, 아파트베란다, 기숙사, 고시원, 황토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음식점, 치료 및 입원실, 콘테이너하우스, 숙직실, 목욕방, 전원주택....

시 공 처

통도사 백운암(법당, 요사채), **변산반도 월명암**(법당), **정선 불암사**(요사채), **대구 청계사**(요사채),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수련원), **유교문화원**, **서울 불광사**(다향원), **북한산 삼봉사**(주지실, 요사채, 공양실), **포천 장안사 천도교 서울 종구 수련원**(서울 문화재 36호), **가평 불광사**(요사채)

고정협찬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웰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33층 3304호 H·P 011-719-9716

전화 02)538-8489, 551-3010, 2661-6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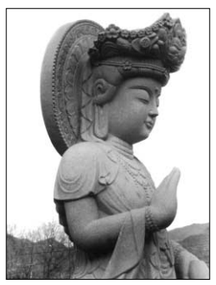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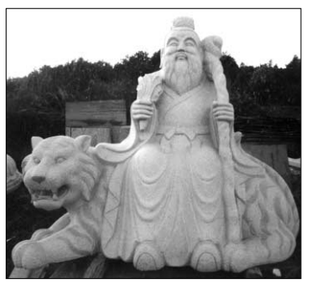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연말 공연가 가족극 '풍성'





역경을 딛고 굳세게 살아가는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몽실언니'(우)와 동양고전 삼국지에 바탕을 둔 마당놀이 '삼국지'(좌)의 한 장면.



마당놀이 '제비가 기가 막혀'는 놀부와 흥부형제를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풍자한다.

주요일정		
작품명	공연일정	연락처
제비가 기가 막혀	12월 19일까지	장충체육관 (02)2234-0637
삼국지	12월 12일까지	상암월드컵 경기장 (02)2128-2002
몽실언니	12월 31일까지	정동극장 (02)751-1500
어머니	12월 14~31일	코엑스아트홀 (02)6000-6790
보이체크	12월 18일까지	예술의전당 (02)580-1300
청춘예찬	2005년 1월 2월까지	대학로 블랙박스씨어터 (02)762-0010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가족 모두가 웃고 즐기며 인생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다양한 공연들이 줄을 잇고 있다. 마당놀이 '삼국지', '제비가 기가 막혀'와 연극 '몽실언니', '어머니' 등이 그것이다.

마당놀이 **'제비가 기가 막혀'**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황금만능주의의 폐단을 제비의 눈으로 풍자한다. 탤런트 김자옥 씨가 놀부의 아내로 출연해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며, 개그맨 김한국, 서현선 씨 등이 호흡을 맞춘다. 마당놀이 **'삼국지'**는 권력을 향한 다양한 인물들의 다툼을 통해 인생무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윤문식(조조), 김성녀(제갈공명), 김종엽(꼭두쇠) 트리오가 변함없는 연기솜씨를 보여준다.

연말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연극공연들의 특징은 '명품 리바이벌'이다. 작품성과 흥행성에서 이미 관객들로부터 인정받아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알맞은 작품들이다.

연극 **'몽실언니'**는 1984년 출간된 권정생 씨의 스테디셀러 동화로, 1990년 TV 드라마로도 제작된 작품이다. 새아버지 집에서 온갖 구박과 설움을 받으면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몽실이의 감동 드라마. 연극 **'어머니'**는 한국의 대표적 여성 연극인 손숙에게 백상예술대상을 선사했던 작품으로 5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러시아 작가 게오르그 뷔히너의 **'보이체크'**는 2003년 러시아 연출가 유리 부드소프의 연출로 시선을 모았던 작품으로, 함영준 씨가 새롭게 연출을 맡는다. 청춘극 **'청춘예찬'**은 방황하는 한 청년의 삶을 통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보여준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겨울 산사엔 특별함이 있다

전국 사찰 12월부터 수련회 열어

겨울수련회 시즌이 돌아왔다.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들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성인들을 위한 '신나는 불교학교' 겨울수련회를 열고 있다. 예불 좌선 산행 독경 등 전통불교식으로 진행되는 코스도 있고, 철새를 관찰하거나 겨울 자연생태계를 살펴보는 환경교실도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스키 캠프, 눈썰매 교실 등 눈길을 끄는 행사도 마련했다. 강유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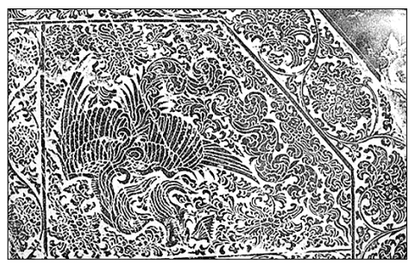
지난해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주최한 겨울수련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다도체험을 하고 있다.

수련회 주요일정			
일정	단체	내용	연락처
12월 9~12일(1차) 12월 16~19일(2차) 12월 23~26일(3차)	해인사	겨울수련회	(055)934-3110
12월 24~28일(1차) 12월 31일~1월 4일(2차)	제주 원명선원	선수련회	(064)755-3322
12월 31일~1월 1일	계룡산 갑사	해맞이 템플스테이	(041)857-8981
12월 31일~1월 1일 12월~2월 수시	경주 골굴사	해맞이 수련회 겨울 수련회	(054)744-1689
12월 31일~1월 1일	김제 금산사	새해맞이 산사체험	063)275-1409
12월 19일	서울 법련사	문화환경교실	(02)733-5367
12월 27일~1월7일	남양주 봉인사	집중수행	(031)574-5585
12월 중순	양양 낙산사	겨울불교학교	(033)672-2447
12월 말	고양 흥국사	겨울불교학교	(02)381-7970
12월 말	천안불교사암련	겨울불교학교	(041)578-0360
1월 2~9일 1월 12~19일	대흥사	한문학당 참선수련회	(061)534-5502
1월 5일~2월 4일	월정사	단기출가	(033)332-6664
1월 5~6일	대구 삼보사	겨울수련회	(053)768-5220
1월 7~9일(1차) 1월 14~16일(2차) 1월 20~23일(3차) 1월 25~29일(4차)	마곡사	겨울수련회	(041)841-6221
1월 9~14일(1차) 1월 23~28일(2차)	지리산생명문화교육원	어린이겨울학교	(063)636-5399
1월 7~8일	청주 관음사	겨울불교학교	(043)256-6254
1월 중순	수원포교당	불교학교	(031)255-2692
1월경	화성 신흥사	수련대회	(031)357-3916
상시운영	부안 내소사	템플스테이	(063)538-7280
상시운영	해남 미황사	템플스테이	(061)533-2706

전시

먹으로 떠낸 금석문

직지성보박물관 탁본展



선봉사 대각국사비 상단부분의 봉황무늬.

"금석문 탁본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돌에 새긴 역사, 먹으로 떠낸 여운' 주제의 금석문 탁본전이 12월 1일부터 26일까지 김천 직지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직지성보박물관장 흥선 스님이 경북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금석문의 자료를 수집해 정리한 것 중 가장 섬세하고 아름다운 작품 70여점을 골라 공개한 것이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의 부도탁본 등은 한국 불교 미술 문양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작품이다. (054) 436-6009

아름다운 우리강산

이한우 화백 연작展



이한우 作, 아름다운 우리강산, 120×160㎝ 유화.

한평생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왔던 한국화단의 원로 이한우 화백의 그림 전시회가 2005년 1월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조선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화백이 오랫동안 애착을 갖고 창작해온 '아름다운 우리강산' 연작 40점이 전시된다. 창작 초기 독특한 질감의 정물화로 한국의 미를 표현해온 이 화백은 80년대 이후 굵고 검은 선획으로 향토미를 찬미한 연작을 제작해왔다.(02)6000-588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6일 12:20 뮤직펀치
7일 09:05 차 한잔의 선율
8일 10: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9일 10:05 BBS 신행상담실
10일 09:05 거룩한 만남 700회 특집
11일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12일 17:10 아름다운 삶, 좋은 만남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6일 08:20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7일 12:00 다큐멘터리 '성철큰스님'
8일 12:00 아미타경 특강법회
9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10일 20:30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11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12일 19:40 역사드라마 '제왕의 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 (12월 11일 저녁 8:05~9:00) 마음의 노래, 즐거운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구수한 입담과 기지로 다시 들을 수 있다. '김 교수의 명심보감'이란 코너에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명상음악산책(12월 10일 저녁 9:50~10:10) 명상음악을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인도와 티벳, 유럽의 명상음악과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 진정한 '나' 안의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클릭! 불교문화상품 —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연꽃 목어조각 목탁

치열한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고급 목탁. 수작업으로 양면에 연꽃과 목어 무늬를 아로새겨 목탁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 한국산 최고급 벚나무를 사용해 공명소리가 아름답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고급 오동나무 케이스에 정성스러운 마음까지 담은 귀한 선물. 3.5치 20만원, 4치 26만원.(02)732-1520



근현대 서예 한눈에

코리아나박물관 소장展 이달말까지



김충현 作, 지란사형, 1981년.

코리아나박물관 소장품 중 서예를 조명하는 기획전이 12월말까지 서울 스페이스C에서 열린다.

1부에선 옛 서체를 재해석해 새로운 현대서예기법을 창안하려고 애쓴 일중 김충현 선생의 작품 26점이 전시되고, 2부에서는 최익현 김윤식 지석영 박영효 오세창 김규진 허백련 황욱 손재형 유희경 등 근현대 서예가 23명의 작품 46점을 선보인다.(02)547-9177

게시판

공부합시다

복지활동과 불국정토 강연 서울 봉은사는 12월 19일 오전 11시 법왕루에서 옥수복지관장 상덕 스님 초청 '불교 자비복지 활동을 통한 불국정토의 실현' 주제의 강연을 개최한다.(02)3218-4839

간경강좌 서울 불광사는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보광당에서 류종민 중대 조각과 교수 초청 '간경' 주제의 불교수행강좌를 연다.(02)420-3200

함께 해요

소아비만예방캠프 강남차병원은 12월 27일~2005년 1월 19일 초등학생 대상의 '소아비만예방캠프'를 연다. 컬럼비아대학 전문영양사가 영어로 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3468-3349

겨울방학맞이 부모교육 부산아동청소년상담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정신역동부모교육(기초 8주 과정)-1월 7일부터 8주간 매주 수(15만원)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정신역동부모교육(심화 10주 과정)-1월 5일부터 10주간 매주 금(18만원) △겨울방학 가족상담캠프-1월 16~17일(6만원) 등을 개설한다. www.counseling.ne.kr, (051)332-5895

사무보조 자원봉사 대한사회복지회가 사무업무를 보조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활동장소는 한서병원 기획홍보실. (02)567-8814

세계 탈 기획전 고성 갈촌탈박물관이 12월 13일까지 세계 6개국 탈 100여 점과 신앙탈 그림문자탈 예능탈 창작탈 등 국내 탈 700여점을 전시한다. (055)672-2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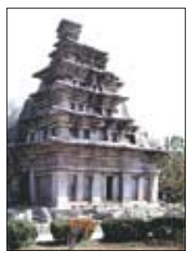
간병인 모집 광진노인보호센터가 간병인을 모집한다.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해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02)458-3050, kwangjin9898@hanmail.net

이웃돕기 일일카페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은 12월 19일 오전 10~오후 4시 '일일카페,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 그리고 작은천사'를 운영한다. 티켓은 1,000원. 이날 티켓판매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일일카페는 △아트풍선 와이어공예 체험카페 △코스플라 △보드게임카페 △영화카페 △껌카페 △노래방카페 △스낵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www.794u.org, (052)223-3466

디지털 사진 공모전 파라미타는 12월 31일까지 청소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는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로. 수상발표는 1월 14일.(02)723-6165

즐겁게 떠나요

문화답사 답사단체 수요여행은 12월 8일 익산 미륵사지(사진), 변산반도 채석강, 금강 철새 도래지 등을 둘러보는 문화답사를 떠난다.(02)774-0044



합격기원 해맞이 기차여행 철도청 청량리역 여행설계팀은 고3 수험생을 위한 대학합격기원 정동진 해맞이 기차여행을 선보인다. 12월 8~9일 무박 2일로 정동진 해맞이-촛대바위-환선굴 등을 돌아본다. 가격은 6,800원. (02)3299-7113

20면 상식 퍼즐 정답

돈	화	문		지		
오		패	관	문	학	
돈			비		예	
수	인				회	동
	절		업			문
	미	시	경	제		서
		력		천	수	답

신행수기

보현행원으로 불국이루리 〈상〉

이경숙 (성남시 수정구)

얼마 전에 당숙부가 돌아가셔서 장지에 다녀왔다. 작년 가을에 쓰러지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손들의 보살핌을 받아왔는데 그만 세상 인연이 다 됐는지 이 세상을 하직하셨다.

장지는 당숙부가 한 평생을 몸담고 사셨던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뒷산이었다. 십수년 전 가을, 햇살이 맑고 샛노란 은행잎이 꽃잎처럼 깔린 길을 걸어갔던 때가 떠올랐다. 구십이 넘게까지 장수하셨던 할머니가 타신 꽃상여의 뒤를 따라가며 할머니는 복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호상이라고 별로 울지도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여인이었던 할머니, 여름에도 솜버선을 신고 흐트러짐이 없었던 할머니의 자태를 볼 수 없었던 것이 섭섭하고 그리웠다. 그 후 은행잎을 보면 할머니의 꽃상여가 떠오르곤 했다.

돌아가신 당숙부는 부지런하셔서 마을 일을 내일처럼 돌보셨다고 동네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하관을 할 때에는 가족들이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왕생극락하시고 아미타 부처님 뵙고 큰 법 깨치어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라고 명복을 빌었다.

나는 요즘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기를 두드리고 광덕 스님의 행사 법어 녹취록을 들으며 교정하고 있다. 녹취할 때 빠트린 부분이나 잘못 전달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오자를 고치며 문장을 다듬고 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거나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전에 입적하신 광덕 스님의 말씀을 책으로 만드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했기에 지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지원하고 또 시작했는데 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의 출가재일 법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고행을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시게 됐다. 그 대목을 광덕 스님께서는 그 때의 광경이 떠오르게끔 실감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녹취록을 교정하고 있다보니 광덕 스님을 뵙게 됐을 때가 생각난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각별한 인연이 될 줄을 몰랐다. 점안식 법회에서 법문하시는 것을 듣게 됐는데 한 말씀 한 말씀에 힘이 실려 있었고 정신이 번쩍 들게 법문을 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한동안 잊고 지냈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신이 맑아짐을 느껴서 가끔 산사를 찾게 됐다.

그 후 어느 가을 어스름한 저녁 무렵이었다. 길가의 낙엽들은 세찬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쏠리면서 거리에 나뒹굴고 있었다.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고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들은 볼품없이 쓸쓸해 보였다. 그 풍경은 나 자신을 보는 듯했다. 나도 언젠가는 낙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차츰 피붙이들도 나를 잊을 것이고 내 존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살아온 날 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줄어든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이대로 주어진 삶에만 매달리기에는 시간이 아깝고 세월이 짧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제부터 나를 찾자. 이제 남은 세월은 나를 위해서 일부를 할애하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어느 날 일간 신문을 보던 중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불교교양대학'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었다. 강사진도 훌륭한 분들이었다. 신청을 하고 설레임과 기대로 개강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일주일에 한번씩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교수님이나 스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발우 공양이 있었다. 김치 한 잎, 밥알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먹어야 하고 그릇까지 헹궈서 마시는 절집에서의 예절을 그대로 재현하는 시간이었다.

오늘날 환경을 훼손한다고 호들갑 떨고 자연을 보존하자고 외치면서도 역행하는 행동을 볼 때 절집에서의 수행방법은 모담답안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3개월이 다 끝나갈 무렵 어떤 방해꾼(?)으로 인해 수료를 못하고 말았다. 그 사찰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버렸다.

그 후 집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들은 나를 압박했다.

낙엽의 쓸쓸한 풍경 내 모습 같아
살아온 날 되돌아 보며 '귀의' 결심



그림 · 문병성

릴레이 수행일기 (下)

하화중생의 실천이라고 하니 '수행으로서의 하화중생'이 뭔가 거창해보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아무리 재주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있게 마련이니 그것을 중생에게 회향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화중생이고 대승의 수행이다.

보시는 수행의 측면에서 보시 바라밀인데, 보시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남에게 따뜻한 눈길만은 보낼 수가 있으니 그것을 곧 안시(眼施)라고 하지 않던가.

우리 불자들은 자기 만에 국한된 수행의 안주에서 벗어나 남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을 함께 실천하는 이상적 수행인 것이다.

<금강경>에는 '사구게(四句偈) 하나만이라도 지니고서 남을 위하여 설명해준다면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이성학
능인선원 IT본부

미를 두면 가볍게 다가오고,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면 진지하게 다가왔다. 여기서도 상대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꼭 내 마음만큼 사이버도 반응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온갖 말이 난무하고 답답한 공간에 이처럼 힘든 수행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한주 지묵

사이버 공간서 '하화중생' 길 찾아
동호회 통한 교리문답운영 큰 보람

방편으로서는 와 닿지가 않았다.

내 경우도 <금강경> 독송이라는 나만의 수행법에서 벗어나 보시바라밀 수행을 하고 싶었으나 IMF 때에는 경제적으로 곤궁해 현실적인 물질 보시는 꿈도 못 꾸었다.

그러던 중 2000년 초에 어떤 계기가 되어 인터넷 불교동호회 세이클럽 '청년불교우리사랑'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 공간도 수행과 하화중생의 실천이 가능한 공간임을 알았다.

그 당시 내가 잘 할 수 있고 당장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연화정사 청년회에서 교육부장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도반들에게 진지하고 성의 있게 불교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취미삼아 한 활동이 점차 회원들도 늘어나고 사이버 공간의 폐해를 알고 회의를 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익명성의 공간일수록 내 수행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동호회를 운영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 신경 쓰이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사이버 단체를 의사단체(疑似團體)로 여기고 가벼운 의스님은 매우 깨어있는 스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기꺼이 지도 법사를 자임하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회원들을 지도해 주셨다.

아는 것을 답변으로 회향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보시바라밀의 한 방법이다.

수행과 포교도 시대에 발맞추어 이 시대에 맞는 부처님의 말씀을 구현해야 한다. 대승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보살이라면 궁극적으로 보살행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일 것이다.

불교 수행에 관심이 많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제는 불교계와 인연을 맺어 능인선원에서 일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더 열심히 일해보라고 이끌어준 능인선원 원장 지광 스님에게 감사드린다.

따지고 보면 제대로 된 수행의 이력도 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가당치 않으나 이 글을 계기로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아침 출근길 전철에서 복잡한 속에서도 <금강경> 몇 구절 읽으니 마음이 평안해진다.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⑧

퇴고 글 전체 살피고 문단단위로 고쳐나가야

퇴고에 대하여

퇴고란 글쓰기의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이다. 집필이 아무리 만족스럽게 이루어져도 나중에 다시 읽어 보면 고칠 데가 눈에 띄게 마련이다.

몇 년 전, 필자가 발자크의 집에서 그의 책상에 있는 자필 원고 엽서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본문보다 퇴고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퇴고는 흥이 아니다. 하면 할수록 글이 다져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퇴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퇴고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글 전체를 살피고 그 다음에 문단 단위로 고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 전체를 살필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주제를 구현하는 데 불완전하거나 결여된 내용은 없는가 △주제에 어긋나거나 무관한 내용은 없는가 △글의 각 부분(문단)의 이음새는 유연한가.

△냉정을 잃어 갑자기 흥분하거나 공연한 감상에 빠진 데는 없는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 미심쩍은 내용은 없는가 △제 자랑(가족 포함)으로 받아들여질 곳은 없는가.

문단 단위로 퇴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소주제를 구현하는 데 불완전하거나 결여된 내용은 없는가 △소주제에 어긋나거나 무관한 내용은 없는가 △문장들의 이음새는 유연한가 △문장은 정확하고 분명한가 △단어는 정확하고 알맞은가 △심상(심상이 있는 경우)은 선명하고 표현은 참신한가 △수식어는 정확한가 △오자나 탈자는 없는가 △능동피동의 혼란은 없는가 △저속한 내용은 없는가 △내용의 모방은 없는가 △시제(時制)의 혼란은 없는가 △조사나 접속사의 사용은 정확한가 △띄어쓰기는 맞는가.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자세한 내용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탈종공고

● 사찰명 : 배재학 (법명 도일)

● 승려번호 : 9294-10129

상기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

2004. 12. 8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토굴(心자 도량)안내

가야산(1,430m)과 단지봉(1,327m)이 천을(天乙), 태을(太乙)로 받쳐주어 일체 흉액을 멸하는 곳 1,000m 준봉 7개가 둘러싸고, 봉우리 5개가 마음 심(心)자를 그려내는 해발 650m 고지의 30리 포천 계곡의 최상부 절옆 10m폭 계곡은 비경중의 비경 숨겨진 가야산 수행터임, 3km 절 뒤 임도는 청정 무공해 산책길

● 전기, 전화, 진입로 포장
● 대지포함 500평
● 위치 :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내
● 가액 : 답사후 상의

문의 011-9366-8929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쪼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 · 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신개념 녹차제품 2선

녹차 음료, 녹차 수제비, 녹차 비누, 녹차 팩…. 이제 차(茶)는 '웰빙' 바람을 타고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마시기 까다로운 음료'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더해 녹차의 주요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농축 앰플이나 녹차 씨에서 추출한 녹차 기름이라는 색다른 상품도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보성녹차테크가 선보인 '녹차 앰플'과 중국 운남 지방에서 생산된 녹차유를 수입·판매하는 다유선의 '참 맑은 녹차유'를 소개한다.

▶티백 5배 영양 '녹차 앰플'



녹차가 마시는 '음료'에서 먹는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바뀌어감에 따라 녹차의 주요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하려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출시된 것이 ㈜보성녹차테크(대표 임화춘)의 '녹차 앰플'이다. 녹차 잎에서 엑기스를 추출해 주사액용기 모양의 유리병에 담은 녹차 앰플은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녹차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차 재배가 활성화 된 보성에서는 80년대부터 녹차 티백을 소주에 넣어 우려 마셔왔는데,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성녹차테크가 2002년 음료용으로 개발한 녹차 앰플은 최근 여성들의 세안이나 미용용으로 즐겨 쓰인다. 생선이나 육류를 조리할 때 넣으면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식당에서 대량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항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지면서 제품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카테킨이나 데아닌 등 녹차의 주요 성분만을 가려 담은 녹차 앰플은 5cc 정도의 양으로도 기존 티백에 비해 최대 5배 이상의 영양 섭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학도였던 임 대표는 '녹차 대중화'를 모토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과 손을 잡고 연구와 실험을 거쳐 녹차를 원재료로 한 새로운 제품개발에 앞장 서 왔다. 그동안 녹차를 이용한 청량음료 제조법, 녹차 침출 농축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을 특허 등록할 정도로 녹차 상품화에 열의를 쏟았다. 녹차 환과 녹차 비누, 녹차 팩 등 보성녹차테크가 생산하는 제품만도 20여 가지에 이른다.

"초창기에 비해 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유통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녹차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061)853-3000 여수령 기자

미용·냄새 제거에도 탁월
항암·항균 성분만 가려담아

▶음식에 어울리는 '녹차油'



1592년, 충무공 이순신은 왜군과 삼천포 항에서 격전을 벌이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이때 운흥사의 한 스님이 건넨 차 열매 기름을 바르자 상처가 금세 아물었다고 한다. 이처럼 예로부터 녹차 기름은 상비약으로 널리 사용됐다. 사찰이나 민간에서만 전해지던 녹차유가 최근 상품으로 개발돼고급 식용유 시장에 진출했다. ㈜다유선(대표 박노환)이 출시한 '참 맑은 녹차유'가 바로 그것이다.

"녹차유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 지방간을 억제하는데 좋고, 특히 고혈압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89년에 펴낸 <동의학사전>에는 녹차유가 장 질환, 화상, 동상에 주로 쓰인다고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카테킨과 사포닌 성분이 많아 몸을 알카리화하는 항산화식품이기도 하다. 다유선이 생명과학연구소에 녹차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항산화작용을 하는 올레인산이 56.3%, 항암성분인 카테킨이 100g당 73mg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차유는 기름 특유의 향이 나지 않아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 부침개 등에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살려줍니다. 재료본래의 맛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요리에 잘 어울리지요."

출시된 지는 이제 두 달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다. 현재 대형 백화점 7군데에 납품하고 있는 녹차유를 올해 말부터 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할 계획이다. 하지만 1리터에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은 다소 부담스러운 편. 이유는 녹차씨 12kg을 짜야 겨우 녹차유 1리터를 얻을 수 있는 희소성 때문이다. 중국 운남산 녹차유를 수입 공급 받아 판매하는 OEM방식(주문자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다유선의 박대표는 "앞으로 보성차 시험장과 연계해 국내산 녹차씨로 녹차유를 생산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피력했다. (02)833-2005

이은비 기자

나물무침·샐러드에 '제격'
고혈압·치매 예방에도 좋아

"가치 알고 차문화 바로 잡아야"



<한국인과 차-그 사색의 열린 공간> 펴낸 정동주 씨

<한국의 차살림> 등을 펴내며 차와 도자기를 연구해 온 소설가 정동주(사진) 씨가 <한국인과 차-그 사색의 열린 공간>을 펴냈다.

佛家·선비들 차 세계 소개
우리의 차살림 부흥 강조

우리 고유의 차문화를 '차살림'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중국의 다예(茶藝)나 일본 다도(茶道)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우리 고유의 차살림을 다시 찾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차의 기원을 찾아 나서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의 제의식 때 식물의 즙을 짜서 올린 것을 시작으로 수질이 나쁜 중국에서 물 대신 마시던 차가 불교문화와 만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간 점 등을 짚어봄으로써 차문화의 기원과 역사를 살핀다.

특히 지은이가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다.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 발해 등에서 자작나무 잎으로 만든 백화차를 즐겨 마셨던 기록과 제천의식이나 국가 중요행사 때 행해졌던 백화차 의식의 흔적을 더듬어 본다. 또한 불가(佛家)에서 차문화와 제례에 차를 올린 기록, 선비들의 차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근현대 우리 차문화가 그 명맥을 제대로 잇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는 "차문화의 보고(寶庫)였던 사찰이 이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고, 해방 후 일본인들에게 차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 차살림 대신 일본 다도를 교육하며 차문화 보급에 앞장섰다"며 "이제 우리 차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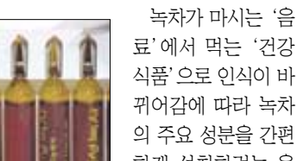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가치를 잊고 있었던 우리 차문화를 살려야 합니다.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위해 제다법의 확립과 세계 시장을 지향한 미래 산업으로서의 차농사 계획, 건전한 차문화 비평 정립 등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도서출판 다른세상. 3만원.

여수령 기자



한국인과 차-그 사색의 열린 공간
정동주 지음
다른세상
3만원



남북국시대 ①

신라의 차종·다법 중국에 영향 준 시기

신라를 성덕왕이 즉위하면서 나라가 평온한 상태로 당(唐)과 교육이 많아지고 학승(學僧)이나 선비들이 입당유학 하는 일이 잦았다. 혜초가 인도에 까지 이르고 사천(四川)의 다사(茶史)에 큰 별로 남은 무상(無相) 스님과 중국 지장신앙의 근간이 된 지장 김교각 스님이 입당하여 불교사에는 물론, 다사에도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중국도 마조도일(馬祖道一)이 선풍을 일으키고 서당지장이 선과 차를 엮었으며, 현종이 즉위하여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특히 육우(陸羽)가 출생하였으며 일본에도 <일본서기>가 쓰여지고 제도가 갖추어진 시기였다. 우리의 차가 중국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입었다기 보다는 무상이나 지장 스님이 활약한 기록으로 본다면 우리 차종(茶種)이나 다법도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① 정중무상(靜衆無相) 스님(684~762)은 신라 성덕왕의 셋째 아들로 728년 입당하여 처적(處寂)을 만나고 청성산(靑城山)으로 들어가 노장학설과 부합하는 삼학(三學) 이론을 창출하여 마조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무상선다도(無相禪茶道)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

② 지장 김교각 스님도 왕손으로 입당하여 구화산을 중심으로 지장신앙을 심었으며, 신라의 다목(茶木)을 가져다 심었다. '화성사 지장전'이나 '전당시'에 그의 다시(茶詩)가 전한다.

③ 충담 스님은 경덕왕 때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분으로 삼월 삼짓날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헌다하고 돌아오다가 귀정문에서 왕의 부름을 받고 차를 올렸다. 그가 다통(茶筒)을 메고 있다가 즉석에서 차를 끓여 올린 것으로 보아 차생활의 보급과 헌다의 예를 짐작할 수 있다.

④ 이백은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족질(族姪)인 중부(中孚) 스님의 옥천 선인장차(玉泉仙人掌茶) 얘기는 유명하다.

⑤ 봉연(封演)은 당나라 천보연간 사람으로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 10권을 썼다.

⑥ 육우가 이제물을 만나 추부자의 별서에서 본격적으로 차공부를 했다.

⑦ '전다기언'은 바이사가 1857년에 쓴 차에 대한 기록으로, 천평대(天平代)에 차를 심고 마셨다고 적혀있다.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남북국시대	702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705 지장 김교각 스님 출생 707 봉덕사 창건 723 혜초의 인도순례 724 상원사 창건 725 상원사 동종 주조 728 무상(無相) 스님 입당(入唐) ① 729 지장 김교각 스님 중국에 다목(茶木)을 심다 ② 742 김흠영 등 187명이 일본 사신으로 감 745 충담(忠談) 스님의 다통(茶筒) ③		
당대		701 이백(李白)의 출생(~762) ④ 709 마조도일의 선다행(禪茶行) 712 당 현종(玄宗) 즉위 718 향음주례(鄕飮酒禮)를 행함 733 육우 출생 735 '다(茶)' 자가 보임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 ⑤ 747 육우가 이제물을 만나다 ⑥	
나라시대			702 율령(律令) 반포 712 고사기(故事記) 녹법(祿法)을 정하다 720 <일본서기> @ 전다기언(煎茶綺言) 천평대(天平代)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다도(茶道)』 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양곤-인천

네 뿌리를 먼저 믿고 네 뿌리를 먼저 알라

여러분한테 항상 해 드리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물론 자기 바탕을, 자기 뿌리를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각자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명의 근본과 생활 자체의 움직임과 서로 말로 전달하고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과 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종교다 내 종교다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자체가 그대로 진리요, 그대로 법이며, 그대로 활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법이며 불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생겼고 상대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생활이 어디 있으며 상대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독불장군은 없는 것이며 모두가 공생공용 공체 공식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주면 내가 너를 주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쓸모없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나오는 도리와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드는 도리를 마땅히 알아야만이 상대와 상대가 한데 합쳐져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각기 찾을 것입니다.

저 나무들을 보십시오. 뿌리가 에너지를 모두 가지나 잎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인간이 보지 못하고 나무의 뿌리는 나무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는 나무 뿌리와 나무를 살펴볼 수 있겠지마는 자기 뿌리는 자기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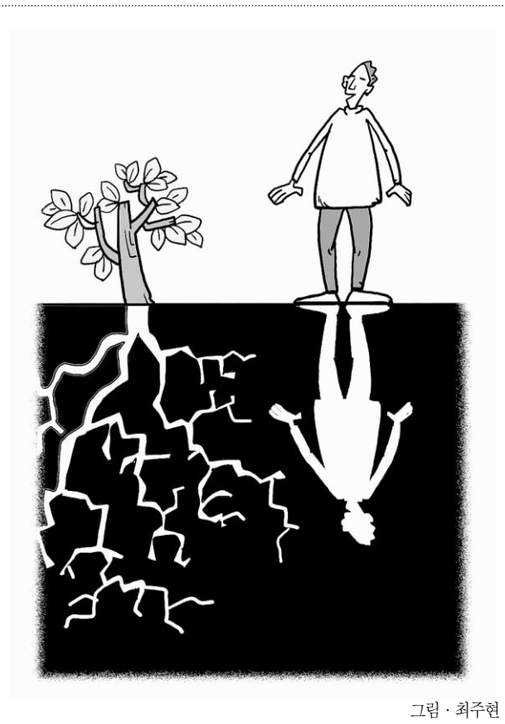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49년 설하고 가르치실 때 '네 뿌리를 먼저 믿고 네 뿌리를 먼저 알라. 네 뿌리를 알게 되면 내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일체 만물만생의 뿌리를 전부 알아서 시공을 초월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 도리를 모른다면 가르치신 사람도 노예가 되고 배우는 사람도 노예가 될 것이며, 기복으로 "날 좀 살려 주세요. 날 좀 되게 해 주세요. 날 좀 안 아프게 해 주세요. 명이 길게 해 주세요. 좋은 데로 가게 해 주세요." 하고 아무리 외쳐 봤자 나로부터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통신이 되지 않을 것이고 또는 막히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막혀서, 나로부터 막히면 일체가 다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복으로 여직껏 했으니까 개선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선해야 할 일도 많고 관습에 의해서 고쳐야 할 일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뿌리가 해 나간다는 것을 모르겠거든 나무들을 보세요.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의 가지와 잎새가 어떻게 푸르게 살 수 있으며, 푸르게 살려면 반드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으면서 오직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기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 한다면 '주인'은 아주 특별한 에너지일 것이고, '공'은 여러분이 마음내서 움죽거리며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먹는 것조차도 하나도 고정된 게 없으니까 찰나찰나 공해서, 화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 착을 두고, 어떤 것에 욕심을 가지며,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나 부부지간이나 부모지간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왜 저렇게 잘못하고 가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건 자기 뿌리 주인공에 맡겨 놓고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항상 자기 탓으로 돌리며 사랑한다면 미움이 없어지고 증오가 없어지고 화목해짐으로써, 돈도 생명이 있는 것이므로 '저 집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재밌겠구나.' 하고 스스로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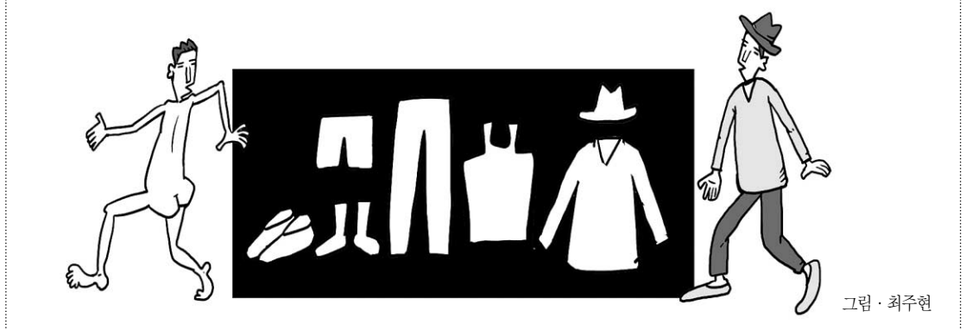
그리고 한마디 해 드릴 것은, 금속이 안 쓰이는 데가 없으며 전력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로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보이는 물질세계에서는 말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마음으로써 전달을 해 나가고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간다면 식구들의 방마다 불이 들어오듯이, 내 마음 속에 불이 들어오고 광명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자유스런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자유스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화목해짐으로써 모든 병고와 액난, 유전성, 영계성 또는 세균성, 인과성 등등이 다 녹고 바로 합쳐버린단 말입니다. 바다의 물은, 골짜기의 물이든 연못의 물이든 빗물이든 구정물이든 핏물이든 고름물이든 다 수용을 합니다. 말없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폭넓고 지혜롭게 정신계와 물질계를 포함해서 바로 중용을 할 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성스럽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느낌을 느끼면서, 허망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며 몸은 흩어졌어도 영혼의 근본은 흩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질 뿐이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이 이 몸뚱이가 죽으면 죽는 줄 알지만 그게 아


그림 · 최주현

말로만 배우려 하지 마시고 요만한 것이라도 실천을 하고 실험 통해서 체험을 해봐야

아주 훌륭한 실험이 나오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며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닙니다. 모습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질 뿐이지 영원한 것입니다. 주인공이 뿌리라면 그 뿌리를 통해 사대육신이 움죽거리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오장육부와 삼백육십의 골절과 팔만 사천의 털구멍을 통해서 삼백육십의 뼈마디와 팔만 사천의 세균, 즉 몸속에 자생 중생들이 각자 여러분의 신하가 돼서 자유스럽게 들고 나면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에너지는 한 구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자기 영혼에 한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본이 아버지에겐 뼈를 빌리고 어머니에겐 살을 빌려서 정자 난자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돼서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조그마한 세균 하나에 보이지 않는 인과가, 즉 말하자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대로 그게 화해서 이 몸뚱이 하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나는 무슨 죄를 졌나. 나는 무슨 업이 많아서 이런가.' 하시지만 내가 볼 때는 딱하긴 딱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업식으로 하여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 어떠한 용건에 따라서든 병고다, 액난이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영계성이 생긴다, 세균성이 생긴다, 업보성이 생긴다, 인과성이 생긴다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야만 없어지겠습니까. 그 나온 자리에다 되맡겨 놔야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온 자리는 바로 통신처도 되고 생산처도 되고, 여러 가지 무명을 녹이고 업보를 녹이고 모든 일체 만법의 근원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멍이 아니면 어떻게 면제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뿌린 거는 내가 받듯이 내가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입력된 것이기 때문에, 즉 정신계에서 입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신계로만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근본이 없으면 생각을 낼 수가 없고, 생각을 낼 수가 없으면 목석이고, 몸을 움죽거릴 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란 바로 각자 여러분의 뿌리이며 말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없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해야 할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습니다. 빌어먹는 건 기복인데 빌어먹어서 뭘 일입니까? 문간에 서서 농사 지은 것 좀 달라고 한다면, 그저 한 술 걸리면 얻어먹고 한 술 걸리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추수를 해서 내가 먹는 것은 당당히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주인공은 에너지요, 시공을 초월해서 화해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자체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자기가 벌여놓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말썽 떨고,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울고불고하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에 오직 몰두하려는 큰 용단과 신심, 용맹심을 일으켜서 일체 만법과 또는 만물의 활용을 여러분 각자가 들이고 낸다는 사실을 단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근본이다 하면,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담아 가지고 있는 통과 같습니다. 그 통은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을 어떻게 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은 또 자기 몸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몸을 다스리는 데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팔만 사천의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이 나의 마음의 신하가 돼서 움죽거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말입니다, 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대로 나오는 거에 속아서 자꾸 떠벌이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보는 거와 듣는 거와 냄새 맡는 거와 감각 지각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에 나오는 것이 잘된 건가, 안되는 건가 안팎을 다 판단해 보고 생각을 해서 '잘못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 맡긴다면 정신계로 직접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명도 업보도 다 제거하는 직결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살림살이를 가져오는 직결문입니다. 생명의 수명을 좀 길게 한다거나 짧게 한다거나 그런 자유로운 마음도 역시 거기만이 직결문입니다.

이 직결문을 두고도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안되고, 이런 거는 되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습관 때문이고 살아온 관습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한 찰나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뭐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다 알고 어디에 뭐를 감춰 놓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무슨 반찬을 해 놓고 왔는지도 보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 지구 바깥은 못 벗어납니까. 여러분이 연못에서, 우물에서 '여기가 제일이다' 이러고는 바다로 안 가는 것뿐입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움죽거리는 대로 한계가 있지만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해야죠. 에너지 주머니, 마음 내는 거, 마음내게 하는 거,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낼 때에 잘못된 거라면 '나는 모르지만 당신만이 올바르고 잘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아서 새 물로 바꿔 쓰란 말입니다. 안되는 거는 구정물과 같지만 체가 없는 거고, 되는 것도 체가 없어서 그것이 훌떡 돌아서 현실에 새 물로 바꿔 쓰게끔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왜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합니까. 영혼의 근본을 믿어야 마음을 내 주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면서 지혜를 넓히고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절간에 가 보면 소 고삐를 쥐고 소를 끌고 가는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마음 다스림을 표현한 겁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 소 위에 올라앉아서 피리를 불고 가죠? 그 자체를 화엄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화엄경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영혼의 근본을 짊어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피리 부는 소리거든요. 아시겠습니까? 피리를 불긴 불되 피리소리를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 종소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생활 자체도 잡을 수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면서도 아주 영원히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날 허망하데요. 뭐가 그렇게 허망합니까. 이 세상에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나와서 한철 놀다가 가는데 자기가 어떠한 캠핑을 하고 가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 다스리고 생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시죠. 모두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소같이 게으르게 살았다 합시다. 그런데 게으른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깨우쳐서 콧구멍이 막힌 소를 타고 다니면 소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 생각해서 다스리고 나가지 않고 몸뚱이가 게을러서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정신력이 게으른 것도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으냐 이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이 도리를 모르고 진리를 파악 못하고 얻어먹으려고만 그러고, 자기가 생산해서 먹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의 발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죽어서 뭐로 태어나느냐 하면 소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미련하고 게을러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망종스럽게 개처럼 살았다면 개 모습을 또 쓰고 나오고 독사같이 살았다면 독사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듯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소로 태어났든 개로 태어났든 독사로 태어났든 간에 약간은 들어 있거든요. 사람의 의식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는 아무개'라고 짖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또 그 개도 자기가 개라는 걸 모르니까 알리려고 짖을 수밖에요.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막 짖어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식은 사람이라 해도 개 모습이니까 개 대접밖엔 못 받아요. 개 대접밖에 안 해 줍니다. "이놈의 개! 왜 이렇게 짖어?" 그러고 말입니다. 아는 소리를 하느라고 짖어도 "이놈의 개! 왜 이렇게 짖어? 배가 고픈가 봐." 하고 딴소리나 하고 개 대접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개, 독사, 소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독사의 습이 생기고 개의 습이 생기고 소의 습이 생겨서 영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30면으로 계속

업보를 짊어지고 나온 그 자리에다 되놓아야

☞29면에서 계속

그래서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천 년 만에 한 번 물 위에 뜬 구멍 뚫린 멧목 하나 만나기처럼 극히 어렵다 한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만한 것이라도 실천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시고 가신다면 아주 훌륭한 실행이 나오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말로 배우려고 그런다면 몸 떨어지면 말 떨어지고 입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의 진실한 생각이 만물을 창조해 낼 수도 있고 가정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는 국가에 보탬을 줄 수도 있고 모든 만 국민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지수화풍으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그 곤충으로부터 인간까지 부처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과 부처는 들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보십시오. 중생과 부처가 들이겠나. 그 자생 중생들을 마음으로 다스려서 천백억 화신으로 화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바로 삶의 보람이요, 자유인이요, 부처요 진정한 만물의 영장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을 모두 한 주먹에 넣고 자유자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을 소중히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헌 걸레처럼 써요.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씁니까.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말도 함부로 나가죠. 자식이 일 주일째 안 들어오고 속을 썩이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니까 "그놈의 새끼, 벼락도 안 맞어. 그냥 차에라도 치여서 죽지." 이러고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보통일 겁니다, 아마. 무슨 원수로 태어나서 그러냐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업은 더 두터워지게끔 돼 있습니다. 끼리끼리 만나게 됩니다. 상점에 가면 배는 배대로 놓여 있고 사과는 사과대로 놓여 있고 금은 금대로 놓고 넝마는 넝마대로 놓고 무쇠는 무쇠대로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도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공업 계통은 공업 계통대로, 천문학 계통은 천문학 계통대로, 물리학 계통은 물리학 계통대로, 과학 계통은 과학 계통대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인연에 따라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부부 인연을 맺는 것도 자식 인연을 맺는 것도 부모 인연을 맺는 것도 그러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억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대로죠. 자기가 마음이 금이면 금방에 모일 것이고, 자기가 마음이 걸레라면 걸레끼리 모이고 깡통끼리 모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깡통끼리 모이게 되면 조금만 건드려도 '덜러덩' 조금만 건드려도 '덜러덩', 꼭 수라장 같죠. 집안이 혼동스럽고 들어가기만 하면 벌써 문 바깥에서부터 상이 찌푸려지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문제를 삼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데 어떻게 업보를 다 없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보를 짊어지고 나온 자리에다 되넣는 겁니다. 짊어진 것 없이 짊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보가 나온 자리에다 되입력을 해서 넣으면 입력하는 대로 앞서 입력된 것이 그냥 솔솔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보다도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래도 여러분은 살아나가는 얘기로만 짐작을 하지 그 외의 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 몸, 사회 이런 걸로부터 알아 가지고 체득을 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영원하게, 저 나무 한 가장구를 봐도 '너는 어떻게 지냈어?' 하고 서로 통하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건데, 산에 올라가서 좋은 꽃만 보면 그냥 꺾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자기 생명을, 자기 목을 가차없이 꺾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나는 우는 걸 봤습니다. 꺾으니까 진이 쭉 흐르는데 그게 인간의 피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놓고 보는 것이 아름답지, 꺾으면 조금 있다가 시들 것을 그렇게 꺾어서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체가 다 그래요. 한번 걸망 짊어지고 한철 나러 왔다가 그저 인연에 따라서 모여 살다가 인연 따라서 또 헤어질 거를, 헤어져서 또 다른 구름과 같이 모여서 이 세상에 또 나오고 그럴 거를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놀러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철 캠핑을 와서 같이 바깥에서 만난 인연들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놀다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요. 인생살이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짊어지고 다녀야만 하겠습니까. 마음의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남한테 꾸러 다니지 않고 무겁게 짊어지지 않고 도둑 올까 봐 겁내지도 않고, 강도 들어올까 봐 걱정하지도 않고 인명피해 될까 봐 걱정하지도 않고 아주 발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굶는다 하면 어디서든지 또 오게끔 돼 있거든요. 왜냐? 내 몸뚱이 속의 신장들이 자기 굶기려고 안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몸뚱이는 여러분 자생 중생들의 집합소예요, 집합소. 집합소에서 '나 배 고프다' 하면 꼭 심부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입을 빌려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서 불교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불교라는 것은 대명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다 하면은 전체 곤충에 이르기까지, 풀포기 하나까지 생명이 있는 것을 불(佛)이라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불바퀴가 크고 작은 것이 돌아가는데 전체 불바퀴가 또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바퀴는 생산처도 되는 것입니다. 생산처. 그리고 '교'라는 건 여러분이 보이는 데서 말로 전달을 하고 듣고 또는 마음과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전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런 나무들은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없이. 말없이 다스리는 오장육부의 모든 생명체들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듣고 있다는 얘깁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겠다 한다면 도둑질을 하게끔 그냥 따라 주고,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한다면 좋은 일을 하게끔 또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악도 선도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요구하는 대로. 시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달라는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지 여러분이 달라 하지 않는 것도 그냥 우정 맡깁디까.

여러분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다. 오장육부 시장에서는요. 그러니 나쁜 거를 달라고 하든, 좋은 거를 달라고 하든, 금방 쓰고 없어질 걸 달라고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거니까요.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눈은 왜 뚫어 놨습니까! 귀는 왜 뚫어 놨습니까! 어떤 분들은 "스님, 아니 이렇게 가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잘 좀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나한테 말할 게 아니라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두뇌가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뭘 장사인가를 봐야 하고 자리가 그 물건에 해당이 되는가도 봐야 하고 또는 지금 빨리빨리 소비가 될 수 있는 물건인가, 그 동네는 어떠한 가를 잘 살펴서 해야지, 가게를 내놔도 빨리 빠지기도 하고 또 잘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빚이라도 얻어서 아무 데나 덜컹 얻어 놓고 물건하고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기네들이 해 놓고 그렇게 밝지 못하게 사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다 한탄할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각자 좀 더 마음으로서 믿고 다스려서 나를 좀 계발시켜서 지혜를 넓히고 삶의 보람을 찾고 화목을 찾고 진실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살아도 얼마 놀지 못할 거를 허망하게 나를 아무렇게나 굴려서 재미있게 못 살지 말고 재미있게 살 생각들을 하세요.

내가 여직껏 설법한 것을 아신다면 실험을 통해서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로 경험을 얻을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거든지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나 나가서 과일을 사든, 시장을 보든, 누구하고 만나든, 누구하고 어떠한 싸움을 하든, 말다툼을 하든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해 드린 대로 실천을 한번 해 보시면서 실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체험이 꼭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과 바람과 흙과 불이 뭉쳐져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풀 한 포기까지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한 지구도 우리의 수명과 같습니다. 좀 빠르고 더디고 이럴 뿐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서 발전을 하고 계발을 하고 창조력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라는 거지, 어떻게 말로 산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만 가지고 다라고 하겠습니까.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물질세계의 50%에 정신세계의 50%를 충당한다면 100%로 중용을 하면서 창조력을 기르면서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그렇게 단순하고 기복으로 목탁이나 치고 복 달라고 비는 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은 전체 진리인 것이며 생명은 근본이요,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생명이 존재하니까 불이죠. 교라는 것은 전체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통신과 통신이 전달이 되고 말과 말이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서 사랑을 하면서 잎이 푸르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는 다시 또 씨가 되어 그 씨가 또 열매가 되어서 다들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성으로 서로가 서로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불교이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서 걸상 하나 가지고 내 종교니 네 종교니 하고, 내 거니 네 거니 하고 그러지 맙시다. 자기 자신들을 발전시켜서 정신세계에서 물질세계로 나오고, 물질세계에서 정신세계로 들고 양면이 같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같이 끊임없이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9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푸르게 살려면 반드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으면서
오직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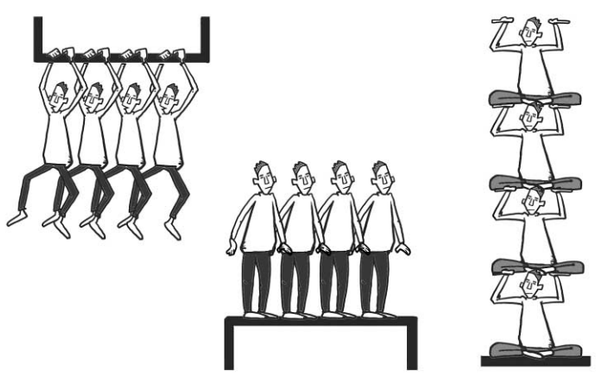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005학년도 혜룡 불교작법 전수원 제1기 수강생 모집

본 전수원에서는 불교 전통의식인 작법 (바라춤, 나비춤)과 예경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을 모집하오니 출가자(스님), 재가자(일반인) 구분없이 불교 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제반의식을 기초부터 배우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2005년 2월17일(오전 10시) 개강 및 작법(나비춤, 바라춤) 시연회

학 과	교 육 내 용	기 간
바라춤(일반반)	요잡바라, 관욕바라, 화의재바라, 사다라니바라	6개월
바라춤(전수반)	명바라, 천수바라, 내림게바라, 법고무	6개월
나비춤(일반반)	사방요신, 기경이, 도량게, 다게, 오공양, 운심게	6개월
나비춤(전수반)	옴남, 모란찬, 삼귀의, 향화게, 지옥게, 구원겁중, 육법공양	6개월

(**바라춤 전수반과 나비춤 전수반은** 일반반 수료한 자만이 가능함)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사진 3매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바라 1벌(바라반)
-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국,내외 공연 및 행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특　　전 :** 성적우수자는 전수반 수업료 면제와 더불어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선발함.

혜룡 불교작법 전수원 원장 엄혜우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34-1 ☎062)515-7749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년 11 · 12월호 주요 내용

문화칼럼 | 산사음악회, 이제는 불교 전통을 살리자

포토 에세이 한국불교태고종 제28회 합동수계산림

특별취재 : **영국불교의 현장 속으로**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깊세기 대안사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때, 영국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불교 수행공동체 아마라와띠(Amaravati)를 단독취재했다. 이와 함께 영국 내 불교현황 및 한국불교의 해외 포교를 위한 향후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영국인들이 사랑하는 불교 수행공동체, 아마라와띠와 수메도 스님
– 영국불교의 현황과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과제
특별 인터뷰 | 수메도 스님 "지금 여기, 깨어있는 행복을 느껴 보세요"

특집 경전공부가 불교의 미래를 밝힌다
경전 공부하러 절에 가는 요즘 불자들
지금 왜 『금강경』을 읽자 하는가
경전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문화 속으로
성낙주의 석굴암 건축기행 |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둥, 석굴암 쌍석주
테마문화산책 | 불교건축의 얼굴, 꽃살문이 아름다운 사찰
(영주 성혈사 · 강화 정수사)

자연과 사람
절집의 나무들 보리자나무
등잔 밑을 밝히는 사람들 | 웰빙, 그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 이제열(명상) · 이태영(요가) · 유건작(茶문화)
이 불자의 삶 | 불교 일에 써 달라며 살던 집 사후 기증한 대명화 김광업 보살

불교 정보창고
고전 읽기의 즐거움 | 석옥 선사의 소참 법문과 대참 법문
불교잡지에서 고른 명문장 | 농아생의 '수선납승(修禪納僧)의 반성과 책임'
책 속의 책 | 2004 불교관계논저총합색인(단행본 ·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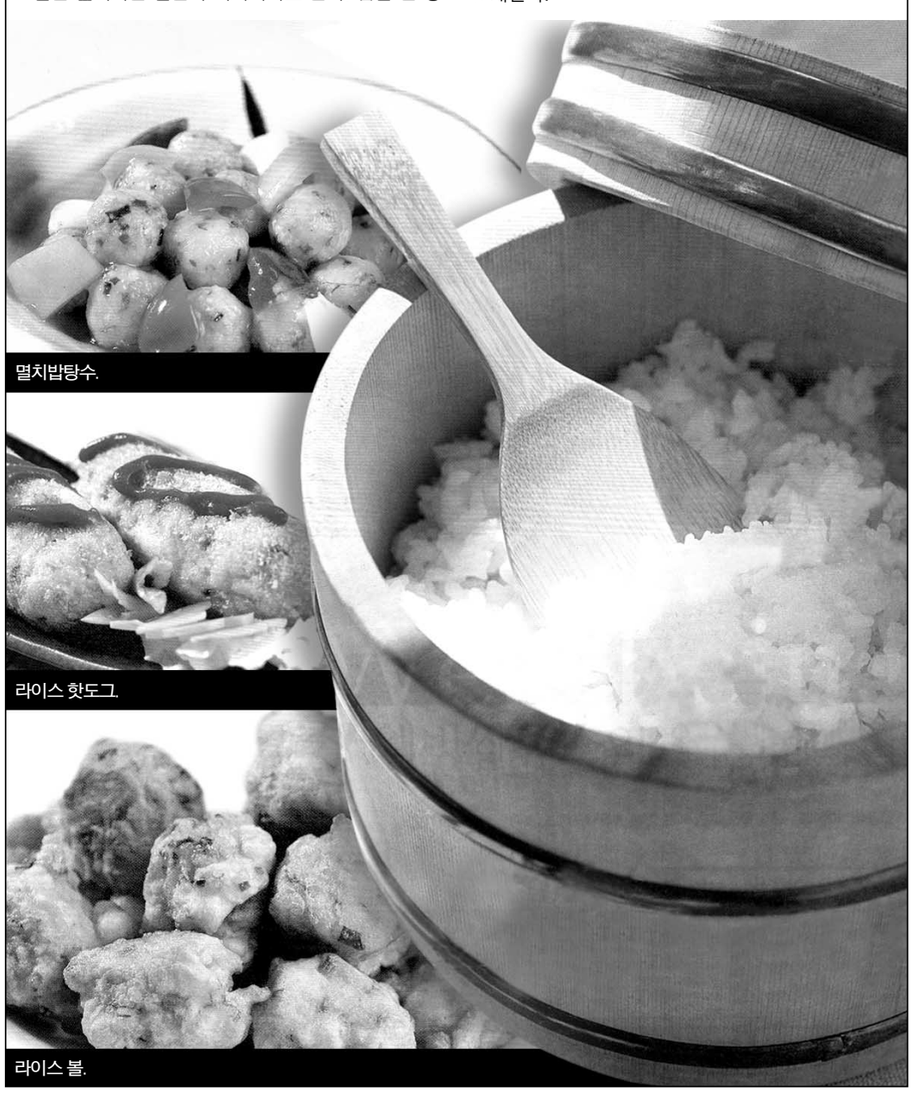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쌀의 변신 나~이스

쌀에 건강이 숨어있다

최근 쌀협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그러나 앞으로 늘어날 수입 쌀의 공급량에 맞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혀버리고 만다. 밥을 한 공기 더 먹자니 그 굳은 결심이 며칠이나 이어질지 의문이고, 우리 농산물 애용 차원에서 쌀을 조금 더 구입하자니 남아도는 묵은 쌀을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하다. 하지만 그것은 쌀을 단순히 주식으로만 여긴 결과다. 생활에서 쌀을 백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멸치밥탕수.

라이스 핫도그.

라이스 볼.

쌀뜨물에 담그면 냄새 싹~

■ 쌀은 다용도 생활 용품

묵은 쌀이 수북히 쌓여있다면 탈취제나 세제, 비료 등으로 활용하면 된다.

합성수지로 만든 밀폐 용기 속에 음식물 냄새가 배었을 때는 쌀뜨물을 30분 정도 넣어뒀다가 스펀지로 문지른 후 헹궈내면 냄새가 사라진다. 말린 생선의 비린내 역시 쌀뜨물 속에 담가 두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쌀겨에 포함된 기름 성분을 이용한다면 쌀은 천연 세제로도 손색이 없다. 밥을 짓기 전 모아 둔 쌀뜨물로 걸레를 빨고 물기를 꼭 짜서 닦으면 왁스 바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유리창 역시 수돗물 대신 쌀뜨물을 뿌려서 닦으면 윤이 난다.

한편 쌀뜨물은 비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쌀에 포함된 풍부한 영양가가 그대로 전해져 화초의 성장을 돕는다.

신체 세포 활성화에 탁월

■ 쌀은 천연 화장품

쌀뜨물 세안은 피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기미나 주름을 억제 ·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쌀뜨물 아래로 가라앉은 앙금을 모은 '쌀뜨물 앙금팩'은 미백효과가 있다. 쌀 앙금에 레몬즙과 밀가루를 조금 첨가해 만든다.

쌀겨팩 역시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균형을 찾아주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다. 쌀겨 유분은 살균력이 뛰어나 피부병이 생긴 부위에 올려두면 자연 치유에도 도움을 준다. 생쌀겨를 살짝 갈아서 밀가루와 섞어 팩을 만든 다음 얼굴에 올리고 10~20분 뒤에 씻어내면 된다.

쌀겨 입욕제는 세척 효과가 뛰어난 천연 비누다. 쌀겨는 천연 유지의 원료로 사용되므로 쌀겨를 넣은 주머니를 욕조에 담가 두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세척 효과를 볼 수 있다. 쌀겨 샴푸는 지친 모발에 윤기를 준다. 머리를 감기 전 쌀겨를 물에 풀어 양분을 적당히 빼낸 뒤에 그 물로 머리를 마사지한다.

과일·우유 등과 섞어 한잔 쭉~

■ 쌀은 요리의 바탕

쌀뜨물로 감자나 토란을 삶으면 특유의 아린 맛이 없어진다. 너무 짜서 먹지 못하는 자반고등어도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짠맛을 날릴 수 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등을 끓일 때 맹물대신 쌀뜨물을 사용하면 찌개에 윗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매끄러운 감촉과 진한 맛을 더할 수 있어 좋다.

묵은 쌀이라도 겁낼 필요 없다. 밥을 짓기 전에 식초를 조금 첨가하면 묵은 쌀 냄새를 날릴 수 있으며 동시에 밥알의 빛깔도 뽀얗게 만들 수 있다. 녹차나 표고 우린 물로 밥물을 쓸 경우에도 독특한 향과 감칠맛이 더해진다.

쌀요리도 다양하다. 쌀을 24시간 이상 불린 후 먹을 만큼 과일이나 우유, 두유와 섞어 믹서에 갈면 아침밥 대용의 쌀쥬스를 만들 수 있다. 라이스 핫도그는 간식으로 좋다. 쌀밥에 소금과 깨소금을 약간 넣고 절구로 찧은 후, 나무젓가락에 소시지를 끼우고 재료와 밀가루를 묻혀 핫도그 모양을 만든다. 빵가루를 입혀 올리브유에 튀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도움자료:대한주부클럽연합회 발행 <맛난 우리 쌀 이야기>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32)

모근 속 침투 신경섬유 기능 강화

아유르베딕 마사지에서의 오일의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일과 도샤와의 상관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바타에는 참기름, 피타에는 코코넛 기름, 카파에는 겨자 혹은 오리브유가 효과적이다.

그러면 오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오일에는 각종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과 무기질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때문에 피부의 영양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땀 구멍을 통해 모근 속으로 들어가 '바라자카 피타(Bharajaka pitta)'에 의해 동화된다. 모근은 신경섬유와 연결돼 있는데 침투된 오일에 의해 신경섬유는 그 기능이 강화된다.

오일은 또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마찰을 없애며 몸 속으로 들어오는 열을 고르게 퍼지게 하며 피부에 매끄러운 광택을 준다.

탄수화물·비타민 등 인체 필요성분 다량 함유
배꼽 마사지 통해 건조증 방지·시력 향상 도움

자기 전에 배꼽 주위를 오일로 마사지하면 전신의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다. 척추와 두 개골 사이의 마사지는 전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기억력과 시력을 향상시킨다.

오일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하는 마사지도 피로, 스트레스, 신경 쇠약, 안절부절,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러나 피부의 건조증을 없애고 윤택하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일을 사용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인도인들은 오래 전부터 규칙적으로 항문과 음부에 오일을 바름으로써 가려움증과 곰팡이 감염을 예방해 왔다. 시력 강화, 전신 건조증 방지, 소화력 강화를 위해서는 배꼽에 오일 마사지를 한다.

이렇게 배꼽을 중시하는 까닭은 배꼽을 중심으로 7만 2천 개의 섬세한 신경들이 전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때 오일을 사용함으로써 마찰을 방지하고 윤활 작용과 정화 작용을 돕고 열의 증발을 막아 골고루 퍼지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 오일은 유기 농법으로 자란 식물이나 채소의 씨를 저온으로 압축한 것이 좋은데 대표적인 오일 몇 가지를 알아본다.

먼저 겨자 오일을 들 수 있다.

겨자유는 굳어져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는 데 그만이므로 운동 선수들이 쓰면 좋다. 매끈매끈 기름기가 있고 쓰고 자극적인 맛과 함께 날카롭고, 가벼우며 열을 낸다. 바람과 점액에 의해 생긴 병 치료에 효과적이며 통증, 종기 등 모든 종류의 상처 치료에 사용한다. 곰팡이 등의 항균 작용과 함께 살균 작용도 있어 다친 후 피가 멈추면 곧바로 발라준다. 바른 후 부드럽게 문지르면 통증도 가시고 염증도 예방할 수 있다.

눈 주위에 발라도 별 해가 없으며 코, 귀, 목구멍, 항문, 성기 등과 같은 섬세한 기관에 발라줘도 좋다. 관절염이나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따뜻하게 데운 유기 장뇌유를 함께 사용한다. ■ 포천 중문의대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가는 길, 거룩한 만남

갈수록 좋아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친.구. 라는 말 아닐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먼저 손을 내미는..

세상은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친구가 많을수록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5분, <거룩한 만남>에서는
고단한 삶에 지친 이웃들과 희망의 인연 만들기가 이어집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힘겨운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진실을 만나보세요...



• 국민은행 055-01-0414-331(예금주 : 불교방송)
• 농 협 069-01-229021 (예금주 : 불교방송)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97.7 Mhz / 포항 105.5 Mhz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32) 작봉산 쌍계사


보물 408호인 쌍계사 대웅전 기둥.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봉황루.


쌍계사 상수리나무.


외래종인 물미나리는 해열과 이뇨작용을 한다.

‘문 없는 문’ 속 젊은 숲 기운 가득

인공(人工) 절제한 대웅전, 천의무봉 美 자랑

교회들이 들어서 이름마저 퇴색한 ‘절골 마을’

절로 가는 길은 세간(世間)에서 출세간(出世間)으로 가는 길이요, 속(俗)에서 성(聖)으로 가는 길이다. 절은 걸어서 들어가야 맛이다.

논산에서 양촌행 시내버스를 타고 중산리 쌍계사 입구에 내리면 작봉산에서 개울물이 내려온다. 이 개울은 지방 2급 하천인 장성천 본류이다. 개울가에 갈대, 물억새, 달뿌리풀 등 수생식물이 그득하다. 물가의 갈대숲도 붉게 물들었다. 물가에 물미나리가 파랗게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물미나리는 외래종이다. 돌미나리나 논미나리보다 향은 덜 나지만, 줄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 열을 내리게 하고 이뇨작용을 해주는 식용 미나리이다.

중산리에서 쌍계사까지는 십리길. 길을 따라 집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곳을 ‘절골’이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절골 마을에는 교회가 2개나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절골’이라는 지명은 곳곳에 남아있지만, 해방 이후 교회들이 속속 들어서서 이제는 찬송가를 들으며 절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절이 가까워지면 저만큼 절골지(池) 저수지가 나타난다. 둑 아래 몇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지은 지가 오래되어 집들이 모두 낡았다. 여기까지가 쌍계사 소유 절 땅이다.

작봉산의 단풍이 절골지 물 속에 울긋불긋한 치맛자락을 드리우고 있다. 오랜 가뭄으로 낮아진 수면 위를 논병아리들이 한가로이 유영하고 있다. 논병아리는 오리류 가운데 몸집이 가장 작지만, 민물과 바닷물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한다.

새들은 몸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똥오줌도 따로 누지 않고, 오래 참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날아다니면서도 싼다. 그러나 새들에게도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골지 주변에 새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봉황루 해체복원 공사는 사찰 전각의 ‘지속 가능한 생태건축’ 입증하는 좋은 예

쌍계사는 무문(無門)의 절이다. 화재로 소실된 후 다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설이 깃든 하마비를 지나면 산자락의 낙엽송 숲 속에 부도와 중건비가 모여 있다. 멀리 작봉산(鵲鳳山)이 보인다.

조선조 문헌에 ‘쌍계사 재불명산(雙溪寺 在佛明山)’이라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작봉산의 옛 지명이 ‘불명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봉산은 해발 418 미터에 불과한 육산이지만, 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쌍계사는 작봉산의 북쪽 기슭에 북향으로 앉아 있다. 절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계곡이 내려온다. 그래서 쌍계사라고 했다. 처음에는 ‘백암(白庵)’이라고 불렀으나, 절에 화재가 잦아서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리 아래에 생강나무 한 그루가 홀로 노랗게 단풍 들었다.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는 전국 어디서나 자라는 낙엽 활엽수 관목이다. 줄기나 가지를 꺾으면 생강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예전에는 절에서 이 나무의 기름으로 등불을 켜기도 했다. 어린잎은 말렸다가 차를 우려 마셨다고 한다.

문 없는 문을 들어서면 눈높이의 석축이 있고 돌계단이 나 있다. 돌계단을 올라서면 대웅전과 봉황루가 넓은 중정(中庭)을 만들고 있다. 마침 봉황루 해체복원공사가 한창이다. 지붕을 걷어낸 집체가 사찰건축의 생태성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찰건축물은 조립성이 강해서 기둥과 써까래 같은 구조물들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사개를 맞추어 치목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대로 해체하여 옮겨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실성(移室性)도 뛰어나다. 요즘 학계에 흔히 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건축물’이 바로 사찰의 전각들이 아니던가.

쌍계사 절터는 제석천이 잡아 주었다고 전한다. 전설에 따르면 보물 408호인 대웅전은 제석천의 아들이 강림해 각지의 백성들이 보내온 여러 가지 진귀한 나무들로 지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웅전 오른쪽 3번째 기둥은 칡 줄기로 만들었다는 전설까지 있다. 비틀어진 근육질을 보아 칡 기둥은 서어나무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은 단층 팔작지붕의 당당한 규모와 함께 천의무봉한 자연미를 자랑한다. 가지만 툭툭 쳐서 세운 듯한 자연목 기둥에서부터 다듬지 않은 덤벙주초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인공(人工)을 절제했다. 후불벽을 세운 기둥까지도 구불구불한 자연목 그대로이다.

요사채 마당에 감나무가 잎들을 떨군 채 서 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연시가 지나가는 바람에도 뚝 떨어진다. 감은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만 재배되는 동양 과일이다. 감잎은 과일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차(茶)를 제공해준다. 여름날의 그늘도 좋다. 새들이 둥지를 틀지 않고, 해충이 거의 범접하지 않다.

나한전 벽에 큰멋쟁이나비 한 마리가 가을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고 있다. 큰멋쟁이나비는 날개의 편 길이가 6센티 가량 되는 중간 크기의 나비다. 양쪽 앞날개 가장자리는 흑색 바탕에 주황색 무늬가 있으며 뒷날개 바깥 가장자리에는 주황색에 검은 점들이 나 있어서 매우 아름답다. 가을에 보이는 것은 어른벌레로 겨울을 나낸다.


줄기와 가지가 곧게 자라 목재로 쓰기에 알맞는 일본 원산 낙엽송은 쌍계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된다.

작봉산 산림은 산불로 사람의 힘을 받아 이루어진 ‘천연갱신림’

대웅전 뒤로 작봉산 자락이 급하게 내려온다. 쌍계사를 감싸고 있는 숲의 나이는 비교적 젊다. 나무들의 나이들도 모두 고만고만하다. 이러한 동령림(同齡林)은 과거에 산판이 있었거나 산불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군락을 이룬 노간주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작봉산 산림은 사람의 힘을 많이 받아 이루어진 천연갱신림(natural regeneration)이다. 낙엽송(일본이깔나무)이나 소나무나 잣나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낙엽송은 이름 그대로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낙엽지는 소나무이다. 우리 소나무에 비하면 매우 빨리 자란다. 잘 자란 나무는 높이가 무려 30미터에 닿고, 지름도 무려 1미터 가까이 자란다. 게다가 줄기와 가지가 곧아서 얼른 키워서 목재로 쓰기에는 그만이다. 그리고 이른 봄 연두색 신록도 아름답고 가을날 황갈색 단풍도 아름답다. 겨울날 설경도 좋다. 그 밖에 굴참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잣나무 서어나무 생강나무 쪽동백 철쭉 진달래 쥐똥나무 국수나무 청미래덩굴 등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

대웅전 뒤로 정상에 오르는 유일한 등산로가 나 있다. 등산객들에겐 미안하지만 절에서 그 등산로를 폐쇄한 것은 잘한 일이다. 대웅전 뒤로 객이 드나들면 경내도 산란하거니와 부처님 등 뒤로 난 길은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다. 작봉산 정상에 서면 금남정맥이 전북과 충남을 가르고 있다. 익산 쪽은 경사가 급하고, 논산 쪽으로는 완만한 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봉산은 <산경표>에 나오는 금남정맥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것은 <산경표>의 금남정맥이 실제와 다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산경표>에는 금남정맥이 전북 완주 주화산에서 시작해 부여 부소산 조룡대에서 금강에 잠수되고 있으나, 실제 산줄기는 싸리재-불명산-시루봉-남당산-작봉산-천호산-미륵산-오성산을 거쳐서 서해에 이르고 있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인터넷 수업으로 4년제 학사학위와 자격증을 동시에!

"e-시대의 전문가를 키운다"
2005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한방건강학과 (1학년 모집)



"한약과 음식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건강음식 전문가"

- 한방과 약선(藥膳)요리의 접목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
- 전 · 현직 한의학 교수의 깊이있는 강의
- 지역별 요리학원과 연계 실습교육 병행

요가 · 명상학과 (1학년,3학년 모집)



"요가 · 명상으로 참된 나를 추구한다."

- 전국 33개 지역 요가원 실습 운영 실시
- 인도 요가 초빙 교수 3인 강의 진행 (Prof.C.Bhushab, Prof.H.Singh, Prof.K.Mishra)
- 인도요가 해외연수를 통한 현지 요가 체험
- 졸업(현지과정 수료)후, 인도 Delhi,Bihar Yoga대학교의 공인요가자격증 수여

차(茶)문화경영학과 (1학년,2학년 모집)



"차(茶)문화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내 최초학과"

- 중국 절강수인대학과의 다례사 차품평사 자격과정 운영
- 한국제다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교육
- 전국 50개 다례원과 연계실습 교육실시
- 자격증 : 전통차(茶) 예절 강사(사범), 선 · 명상 지도사

● 모집학과

학 부	모 집 학 과	신입생	편입생
힐링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O	
	요가·명상학과	O	O
문화예술학부	전통타악연희학과	O	
	한국복식과학학과	O	O
	차(茶)문화경영학과	O	O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O	O
교육학부	유아교육학과		O
공무원행정학부	경찰학과	O	O
	공무원행정학과	O	
경영학부	부동산세무경영학과	O	O
	중국비즈니스학과		O
게임학부	게임기획학과	O	O
	게임제작학과	O	O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학과	O	

● 전형일정

전 형	구 분	일 시
특별전형	접수기간	2004. 12. 15(수)까지
	합격자발표	2004. 12. 17(금)

■ 특별전형 전형자에 한하여 입학금(10만원)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자격

①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② 편입학 : 2학년편입 – 1학년 이상 등록을 필하고, 35학점 이상 취득자
3학년편입 – 2학년 이상 등록을 필하고, 70학점 이상 취득자
※ 공익근무요원 입학 가능

특전
- 학교에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정규 4년제 대학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일반대학교의 1/3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
- 재학생 병역연기 혜택 및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 학자금 융자 가능 및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학습활동 지원

■ 지역교육센터 : 광영교육센터 / 부천교육센터 / 부산교육센터 / 광주교육센터 / 전주교육센터 / 익산교육센터 / 제주교육센터

입학상담 080-285-2854 /www.wdu.ac.kr
>> 자세한 입학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